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靈巖 茅亭 光山金氏 古文書 國譯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이 나 래

靈巖 茅亭 光山金氏 古文書 國譯

The transfortation of Yeongam Mojeong county Gwangsan
Kim family's ancient documents

202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이 나 래

靈巖 茅亭 光山金氏 古文書 國譯

지도교수 최진규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이 나 래

이나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정선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202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 解題	1
1. 머리말	1
2. 靈巖 茅亭 光山金氏 所藏 古文書 概觀	5
3. 光山金氏의 靈巖 定着과 活動	9
1) 光山金氏의 靈巖 定着	9
2) 靈巖 茅亭 光山金氏의 活動	14
4. 맺음말	21
II . 國譯	23
1. 教令類	23
2. 疏笥啓狀類	43
3. 牒關通報類	62
4. 證憑類	68
5. 明文文記類	92
6. 詩文類	112
참고문헌	123

표·그림 목 차

[표 1] 靈巖 茅亭 光山金氏 所藏 古文書 現況	5
[표 2] 靈巖 茅亭 光山金氏 所藏 古文書 目錄	118
[그림 1] 光山金氏 家系圖	10
[그림 2] 靈巖 郡西面 茅亭里 地圖	11
[그림 3] 1760년(英祖36) 김세보(金世寶) 고신(告身)	23
[그림 4] 1760년(英祖36) 김태성(金泰聖) 고신(告身)	24
[그림 5] 1773년(英祖49)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25
[그림 6] 1774년(英祖50) 김익성(金益聖) 고신(告身)	26
[그림 7] 1775년(英祖51)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27
[그림 8] 1774년(英祖50) 김경(金鏡) 추증교지(追贈教旨)	28
[그림 9] 1774년(英祖50) 유인신씨(孺人申氏) 추증교지(追贈教旨)	29
[그림 10] 1774년(英祖50) 김기인(金起仁) 추증교지(追贈教旨)	30
[그림 11] 1774년(英祖50) 유인정씨(孺人鄭氏) 추증교지(追贈教旨)	31
[그림 12] 1774년(英祖50) 김후석(金厚碩) 추증교지(追贈教旨)	32
[그림 13] 1774년(英祖50)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教旨)	33
[그림 14] 1774년(英祖50) 숙부인박씨(淑夫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教旨)	34
[그림 15] 1903년(光武7) 김현수(金顯洙) 관고(官誥)	35
[그림 16] 1784년(正祖8) 김시원(金始元) 차첩(差帖)	36
[그림 17] 1867년(高宗4) 공명첩(空名帖)	37
[그림 18]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1	38
[그림 19]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2	39
[그림 20]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3	40
[그림 21]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4	41
[그림 22] 1892년(高宗29) 공명첩(空名帖)	42
[그림 23] 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1	43
[그림 24] 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2	48
[그림 25] 1864년(高宗1)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52
[그림 26] 1866년(高宗3)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57

[그림 27]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1	62
[그림 28]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2	62
[그림 29]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3	62
[그림 30] 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1	68
[그림 31] 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2	68
[그림 32] 대성학원(大成學院) 표창완문(表彰完文) 1	73
[그림 33] 대성학원(大成學院) 표창완문(表彰完文) 2	73
[그림 34] 1780년(正祖4) 김달온(金達溫) 준호구(準戶口)	78
[그림 35] 1798년(正祖22) 김달원(金達元) 호구단자(戶口單子)	79
[그림 36] 1798년(正祖22) 김희민(金喜敏) 호구단자(戶口單子)	81
[그림 37] 1798년(正祖22) 김희민(金喜敏) 호구단자(戶口單子) 배면(背面)	81
[그림 38] 1882년(高宗19)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85
[그림 39] 1885년(高宗22)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87
[그림 40] 미상(未詳) 시권(試券)	89
[그림 41] 1771년(英祖47) 4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1	92
[그림 42] 1771년(英祖47) 4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2	92
[그림 43] 1771년(英祖47) 4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3	92
[그림 44] 1802년(純祖2) 5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1	102
[그림 45] 1802년(純祖2) 5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2	102
[그림 46] 가경연간(嘉慶年間) 4남 2녀 분재기(分財記)	109
[그림 47] 1934년 김영기(金永冀) 사권당(思勸堂) 기(記)	112
[그림 48] 1943년 김달수(金達洙) 사권당(思勸堂) 상량문(上樑文)	115
[그림 49] 世顯門 사진	121
[그림 50] 思勸堂 사진	121
[그림 51] 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 사진	122

ABSTRACT

The transfotation of Yeongam Mojeong county Gwangsan Kim family's ancient documents

Lee NaRae

Advisor :Prof. Choe ChinKyu

Major in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ncient documents(古文書) are considered empirical and concrete because of their distinct purpose and objectivity as writing records. If the ancient documents are fragmented, understanding their details would be difficult. However, if the family's ancient documents are kept within the family, it is possible to paint a more accurate picture of the specific points in history and determine which documents are valued based on the documents that the family chose to preserve. When ancient documents remain in the family unit, identifying the family members, the village, and their history is attainable.

In 1608, Gwangsan Kim(光山金氏) followed Kim Ik-chung(金益忠) and settled in Mojeong(茅亭) Village, about a century later than other families who came to Yeongam(靈巖). This late arrival caused Gwangsan Kim to focus on activities that enhanced their family's status in the village. Documents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Gwangsan Kim clan's activities and living space are accessible, but related research on the clan has yet to be conducted. A total of 38 ancient document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an explanation was written based on their cont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various families carried out enhancement projects to cement their status in society. In the same vein, Gwangsan Kim and his clan also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their family and establish their position in the village.

First, the four cases of booklets and cit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an official commendation in a monument inscription. As they built a Confucian academy and a shrine to enhance national prestige, Kim engaged in activities to receive filial piety.

Second, the monument inscription shows that Kim distributed rice to the villagers during the famine, which was considered unique compared to the other families' activities.

Finally, finding a family that possesses such a document and an intelligence used for problem solving is difficult. It is also related to the "Monument to Provincial Governor Kim Byeong-gyo(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 which still exists in the village to this day, and the Mojeong Reservoir, are considered unique to the ancient documents of the Kim Clan, and rarely found in other families. In particular, because documents related to these activities remain, case studies of local studies are possible through these ancient documents.

Even if the ancient documents contain specific information, verifying their entirety using only these old documents is challenging. In the case of Gwangsan Kim in Mojeong, Yeongam,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clearly how they moved to the south or how they had kept documents related to their village's history.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documents could further develop research on the Mojeong Reservoir or the yangban (gentlemen) who lived in the area. Late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milies, villages, and families who had been married to Gwangsan Kim.

I. 해제

1. 머리말

고문서는 문집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문서는 개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서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에 있거나, 개인과 官 사이에서 작성되는 문서도 해당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문서작성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¹⁾ 특히 고문서는 문서작성 시에 목적과 상대가 뚜렷하다는 특징 때문에 내용이 實證의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서 인정받는다.²⁾ 고문서를 이용해서 개인의 일상이나 가정에서의 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문서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문서의 수가 적고 남아있는 자료도 보통 한 주제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에 맞게 주제가 정해진다는 점³⁾이나, 특정한 내용만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작성의 주제나 시대적 성격에 따라서 선별된 문서로 보관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⁴⁾

고문서가 단편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만으로 가문의 활동이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고문서가 한 가문에서 여러 점이 보관되어있다면 그 가문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 내용도 자세해진다. 특히 고문서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리어 그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을 수많은 고문서 중에서 어떤 문서를 집안에서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여겨 보관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 가문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역사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존하려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고문서가 가문 단위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작은 범위에서는 가문의 인물에 대한 역사부터 크게는 마을, 지역의 역사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고문서를 연구한 논문은 특정 문서군 하나만 정해 그 문서를 연구⁵⁾하거나, 가문의

1) 남권희·옥영정, 「고문서로 살펴본 조선시대의 기록문화(1) -남재문고 소장 고문서자료의 유형과 특징」, 『사회과학』 15, 2003, p24-26.

2) 이해준, 「地方史 研究에 있어서 古文書資料의 活用」, 『한국학』 15, 1992, p53-54.

3) 장현희,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後期 京畿地域 兩班 家門 研究 -龍仁 海州吳氏 楸灘公派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2.

4) 이해준, 위 논문, p53-54.

5) 고문서 중 특정 문서군을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혁, 『朝鮮時代 完文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노인환, 「朝鮮時代 諭

고문서를 다루더라도 일부 문서만을 추려 연구하는 경우6)가 많다. 전체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도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종류에 대한 소개나 인물에 대한 소개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7) 고문서 국역으로 작성된 경우는 드물다.8)

그동안 고문서 국역은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편찬한 『古文書集成』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9) 『고문서집성』은 많은 양의 자료가 존재하는 집안을 위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서의 수가 적거나 중요한 인물이 나온 집안이 아니라면 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호남권의 고문서는 다른 지역의 고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어 지역이나 마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역을 진행할 자료인 영암 모정 광산김씨 고문서는 그 가문에서 행했던 활동들과 살아온 공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광산김씨가 세거하는 모정마을은 全羅南道 靈巖郡 郡西面 茅亭里에 위치하고 있다. 영암은 백제 때에는 月奈로 불렸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영암으로 이름이 바뀐다. 995년(고려 成宗14) 朗州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668년(顯宗9)에 영암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돌아왔다.10) 군서면은 영암면의 서쪽 첫머리에 있어 西始面이라 불렸고, 1898년(光武2)

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문보미, 「朝鮮時代 關에 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명경일, 「조선시대 계목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문숙자, 「朝鮮時代 分財文記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영남학』 18, 2010; 문현주, 「朝鮮時代 戶口單子의 작성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7; 윤인수, 「朝鮮時代 甘結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6) 가문의 고문서 일부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혁, 「朝鮮後期 충청도 서해안 지역 상업 활동의 사회적 의미」, 『고문서연구』 44, 2014; 박선미, 「朝鮮後期 靈巖 西湖 密陽金氏 文中研究」,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임학성, 「18~19세기 仁川 德積島 주민들의 거주 양상」, 『한국학연구』 45, 2017; 장현희,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後期 京畿地方 兩班 家門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미은, 「正祖代 무신 정호남의 家系와 官職活動」, 『고문서연구』 56, 2020; 조원래, 「17세기 순천지역 羅州鄭氏家의 사회 경제적 기반」, 『고문서연구』 33, 2008 등.

7) 가문 고문서를 소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의환·고수연, 「진천 평산신씨 소장 고문서 조사의 내용과 성격」, 『역사와 실학』 57, 2015; 안승준, 「논산시 성동면 우곡리의 남양전씨와 소장 고문서」, 『고문서연구』 14, 1998; 전형택, 「雪齋書院 소장의 조선초기 나주정씨 고문서 자료」, 『고문서연구』 11, 2005; 조미은, 「제주지역 조사 수집 문중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장서각』 34, 2015 등.

8) 고문서 국역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원택·정명수, 「울진 대동헌 소장 원문과 수도절목의 해제 및 번역」, 『영도해양연구』 16, 2018; 정승경, 「제월당 송규림의 『선찰』 제1권 역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한재기, 「명안공주 궁방 고문서 탈초 및 역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한재기, 『조선후기 서울 세거: 해주정씨 간찰 역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9)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에는 영암군의 서쪽에 있어 郡西面이라 개칭되었다.¹¹⁾ 그리고 모정리는 본래 西終面에 포함되어 松巖이라 부르다가 모정으로 고쳤고, 1914년에 군서면에 편입되었다.¹²⁾

영암에는 1998년의 『靈巖郡誌』를 기준으로 약 40여 개의 성씨가 세거하고 있으며¹³⁾ 崔·朴·周·白·嵇·陸씨를 영암의 토성으로 본다.¹⁴⁾ 모정마을은 1600년대에 平山申氏와 光山金氏가 들어오고 光山金氏에서 全州柳氏를 맞아 후손들이 마을에 살고 있다. 현재는 세 성씨 외에도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¹⁵⁾

光山金氏 가문은 1608년(宣祖41) 落南祖 金益忠(1580~1660)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터를 잡고 살고 있다. 모정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광산김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수는 38점으로 다른 큰 가문에서 보관되어온 양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가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敎令類, 疏劄啓狀類, 證憑類, 明文文記類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¹⁶⁾ 마을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도 존재한다. 특히 감결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가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영암 모정 광산김씨 고문서는 감결과 함께 감결을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첩보도 함께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감결의 내용 또한 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을에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철비와 모정 저수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마을과 공간에 대한 역사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영암 모정 광산김씨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마을의 貧民救恤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로 가문 내 三孝子의 孝行에 관련된 내용, 세 번째로 마을에 세워진 永世不忘碑의 설립 경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적인 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完文, 所志, 甘結과 牒報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문서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과 함께 『光山金氏水使公派族譜』, 『靈巖郡誌』 등의 추가 자료를 통해 영암 모정 광산김씨가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어떤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활동을 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영암 모정 광산김씨 고문서는 다른 큰 가문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고문서만으로 광산김씨의 전체적인 역사, 특히 김익충이 영암으로 내려온 경위나 감결과 첩보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

10)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11) 영암문화원, 『靈巖의 땅 이름』, 2006, p20.

12) 영암문화원, 『靈巖의 땅 이름』, 2006, p397.

13) 영암군지편찬위원회, 『靈巖郡誌 下』, 1998, p643.

14)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15) 영암문화원, 『영암의 땅 이름』, 2006, p398.

16) 장현희, 위 논문, p1.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고문서의 내용을 통해 광산김씨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모정마을 내에서 어떻게 가문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추후 고문서를 이용한 지역학 사례연구가 가능하다. 문서를 통해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가문에서 했던 선양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정 저수지라는 공간적인 배경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역 자료는 소장자 金善珉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2018년 11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하고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탈초하였다.¹⁷⁾ 문서의 분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고문서 분류체계를 따랐다. 고문서의 문서명은 ‘서기년도(왕력)+발급자+문서의 종류’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교령류의 경우, 발급자가 아닌 수취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급자 대신 수급자를 표기하였다. 증빙류 중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경우 호적을 작성한 主戶의 이름으로 문서명의 발급자 부분을 대신하였다. 고문서 탈초 시 문서에 나타나는 한자를 현재에 쓰이는 한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다. 문서에서 줄이 바뀌는 부분은 탈초에서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내용을 이어 적었다. 주석의 경우 국역 부분에 표기하였으며 국역 시 필요한 부분은 한자를 併記하였다. 도장이나 서명을 표기할 때는 ‘[]’를 사용하며 문서 위에 별지로 붙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 표기를 사용하였다.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자는 ‘{ }’ 표기를 통해 파자한 한자를 ‘+’ 기호를 사용해 표기하였다. 이 경우 한글 발음은 두 글자 중 本字로 생각되는 쪽의 발음으로 적었다. 이두에는 기울기와 밑줄을 그어 따로 표시하였다. 중간에 문서가 결락되어 글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를 넣어 구분하였고, 글자가 공백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로 빈칸을 표시하였다. 주석에는 문서명과 함께 [표 2]의 번호를 앞에 함께 적었다.

17) 한국학호남진흥원DB(<http://db.hiks.or.kr/>)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국역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실시했던 청년한국학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제출했던 번역을 수정·보완하였다.

2. 靈巖 茅亭 光山金氏 所藏 古文書 概觀

영암 모정 광산김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敎令類 20점, 疏筭啓狀類 4점, 牒關通報類 1점, 證憑類 8점, 明文文記類 3점, 詩文類 2점으로 총 38점이다. 연대는 18세기 후반(1760, 英祖36)부터 20세기 초반(1903, 光武7)에 걸쳐 분포되어있으나 대부분 문서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후반에 집중되어있다. 18세기 후반의 문서들은 교령류의 告身¹⁸⁾, 追贈敎旨¹⁹⁾, 증빙류의 完文²⁰⁾과 戶籍²¹⁾, 명문문기류의 分財記²²⁾

[표 1] 靈巖 茅亭 光山金氏 所藏 古文書 現況

중분류	소분류	점수
敎令類	告身	5
	追贈敎旨	7
	官誥	1
	差帖	1
	空名帖	6
疏筭啓狀類	所志	4
牒關通報類	甘結	1
證憑類	完文	2
	戶籍	5
	試券	1
明文文記類	分財記	3
詩文類	記	1
	上樑文	1
총		38

18) 告身은 品階를 중심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다. 4품 이상의 관원들에게는 敎旨라는 명칭으로 왕의 御寶인 ‘施命之寶’를 찍어 발급하였다. 서두를 ‘敎旨’라고 시작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5품에서 9품의 관원들에게는 왕의 명을 받아 이조와 병조에서 나누어 임명하는 형식으로 받았는데 문신은 吏曹에서 ‘吏曹之印’이 찍힌 문서를, 무신은 兵曹에서 ‘兵曹之印’이 찍힌 문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敎牒이라고 하는데 職帖이라고도 불렀다. 왕의 명을 받아 이조나 병조에서 대신 발급하기 때문에 내용에 ‘왕의 명을 받들어’라는 뜻의 ‘奉敎’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하 문서의 정의는 모두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89를 참조하였다.)

19) 追贈敎旨는 죽은 官員이나 그 자계에 準하는 자에게 내리는 교지이다.

20) 完文은 官에서 향교나 서원,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을 인정하기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관에서 발급하게 된다. 대부분은 身役, 煙戶雜役, 還上 등의 면제를 인정 또는 확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다양하며 그 시대의 사회나 경제적인 방면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보통 문서 형식으로 발급하지만 근현대시기에는 책자로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21) 戶籍은 호구단자와 준호구, 호적대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子, 卯, 午, 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호구단자는 일반적으로 2통을 제출한다.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차이점은 문서의 서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호구단자는 호주의 주소가 먼저 기재되고 호주의 인적사항들이 나열된 반면, 준호구는 올리는 연월일과 문서를 내는 관부, 의거한 호구장적 등이 문서 초반에 기재되며, 발급자의 手決, 訂正의 유무 표시와 踏印 등이 있다.

22) 分財記는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문서이다. 주로 分衿[분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며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나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分給文記, 衿付文記[깃부문기], 和會文記, 許與文記,

등이 있고, 19세기 후반의 문서는 소차계장류의 所志²³⁾, 증빙류의 表彰完文 등이 있다. 이 중 문서에서 주로 나오는 인물인 32세손인 金禮聖, 33세손 金相海, 34세손 金箕陽, 35세손 金在敏과 관련된 문서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18세기 후반의 문서는 이들이 살아있을 때 받았던 문서나 작성된 문서가 대부분이고, 19세기 후반의 문서는 대부분 이들의 후손이 자신들의 조상을 선양하기 위해 한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 모정 광산김씨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의 종류와 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교령류는 임금이나 관에서 개인에게 발급한 문서로 족보와 함께 개인의 관력을 확인할 수 있고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임명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료 수집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다. 소장하고 있는 교령류는 고신, 추증교지, 空名帖²⁴⁾, 官誥²⁵⁾, 差帖²⁶⁾이 있다.

1773년(英祖49)에 김상해가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는 교지를 받았고, 1774년(英祖50)에는 김예성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는 교지를 받았다. 傍書에 ‘年八十特爲加資事承傳’이라고 적혀있어 당시 이 교지를 받을 때의 김예성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經國大典』 「吏典」 老人職條의 ‘나이가 80세가 되면 良人이나 賤人을 상관하지 않고 품계를 하나 주고, 이미 관직이나 관품이 있으면 특별히 資級을 한 단계 올려준다.’²⁷⁾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예성을 終二品 下階 嘉善大夫로 한 단계를 올

別給文記로 나누어진다. 분제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재산상속 내역은 다양하나 주로 노비나 토지의 상속, 분배가 많다. 분제기를 작성하는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타인에게 가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대부분의 분제기는 書頭에 문기 작성 일자와 사유, 分財 원칙, 재주의 자손들에 대한 당부 등을 적고, 본문에는 분제 수량을 적는다. 말미에는 재주와 보증인, 집필자, 상속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된다. 집필자는 筆執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 작성자라고 표시한다.

23) 所志는 관부에 올리는 訴狀, 청원서, 진정서, 白活[발괄]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내용이 아주 다양하며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 수집 시 많이 나오는 문서 중의 하나이다. 소지를 올리고 나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題音[데김]’ 또는 ‘題辭’라고 한다.

24) 空名帖은 말 그대로 이름과 직책 부분이 비어있는 고신을 말한다. 공명첩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벼슬에 임명하는 증명서인 空名告身帖, 양인의 경우 역을 면제해주는 空名免役帖, 천인의 경우 천인의 신분을 벗겨주는 空名免賤帖, 향리에게 그 역을 면제해주는 空名免鄉帖 등이 있다. 대부분은 공명고신첩이 많이 발견된다.

25) 官誥는 임금이 내리는 4품 이상의 관리의 임명장이나 해임장이다.

26) 差帖은 녹을 받지 않는 관직을 임명하는 문서이다.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하는 口傳差帖과 奉敎差帖,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官長差帖이 있다. 차첩의 작성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정한 투식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某曹爲差定事”로 시작하며 임명 날짜나 임명하는 내용을 적은 뒤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라는 결사 투식을 기록한다. 그 뒤로는 문서의 수취자와 발급 일자를 적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고신에 사용하지 않는 이두를 차첩에 쓴 것은 문서의 격이 고신보다 낮았음을 의미하고 이는 임명장의 위계가 존재하였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7) “年八十以上, 勿論良賤, 除一階, 元有階者, 又加一階, 堂上官有旨乃授.”, 『經國大典』 「吏典」 老人職

려 주었다. 이 때에 김예성이 加資되면서 『경국대전』 「이전」 追贈條²⁸⁾에 따라 위의 3대조와 김예성의 부인까지 함께 추증을 받게 된다. 曾祖父인 金鏡은 正三品 堂下官 通訓大夫 掌樂院正에 추증되었고 曾祖母인 孺人申氏 또한 正三品 淑人에 추증되었다.²⁹⁾ 祖父인 金起仁은 正三品 堂上官 通政大夫 刑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祖母인 孺人鄭氏 또한 正三品 淑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버지 金厚碩은 嘉善大夫에 추증되었고, 어머니인 孺人李氏는 終二品 貞夫人에 추증되었다. 김예성의 부인인 淑夫人 朴氏 또한 남편의 품계를 따라 貞夫人에 추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고는 1점으로 金顯洙를 管理署主事에 임명하고 判任官 8등의 품계를 주는 내용이다. 마지막에는 관고를 작성한 관리의 이름인 成岐運과 관리의 관직명 議政府贊政 宮內府大臣臨時署理가 함께 적혀있다.

차첩은 1점으로 내용상 군수가 직접 임명한 관장 차첩으로 보인다. 幼學 金始元을 大同有司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김시원은 분재기와 소지³⁰⁾등과 족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김상해의 둘째 아들 金箕三으로 확인된다.

소지는 총 4점으로 上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상서는 訴狀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 그 내용으로는 보통 山訟, 表彰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이 소지에서는 가문에서 나온 삼대에 걸친 金禮聖, 金箕陽, 金在敏의 효행과 삼호자의 褒揚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장된 문서 중에서 조상을 宣揚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문서이다.

甘結³¹⁾은 牒報³²⁾와 粘連되어 있다. 감결에는 모정 저수지에 관련된 소송의 결과를 내

條.

- 28) “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 父母准己品, 祖父母·曾祖父母, 各遞降一等. ○ 亡妻從夫職. ○ 大君妻父正一品·王子君妻父從一品. ○ 親功臣, 則雖職卑贈正二品. ○ 一等功臣父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二等純忠積德補祚功臣, 三等純忠補祚功臣, 竝封君.” 『經國大典』 「吏典」 追贈條.
- 29) 『經國大典』 「外命婦」 封爵從夫職條에 따르면 文武官妻는 正·從一品은 貞敬夫人, 正·從二品은 貞夫人, 正三品 堂上官은 淑夫人, 正三品 堂下官, 從三品은 淑人이 된다.
- 30) [35]1802년(純祖2) 5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에 ‘一故第二男始元^抄……一第三男陽元^抄……’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해당 분재기에서 三男인 ‘陽元’이 ‘金箕陽’인 것으로 추측해볼 때 ‘金始元’은 둘째인 김기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1) 甘結은 상급 官署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 양식이다. 내용은 지시나 명령이 주가 되며 대부분은 觀察使가 管下 邑에 내리는 것이다. 御史도 임무 수행과 관련해 수령에게 내릴 수 있는데 그 때에는 관인대신 마패를 감결에 찍었다. 내용상 일정한 양식은 없지만 첫머리가 ‘甘結某邑’, 또는 ‘甘結各邑’으로 시작한다. 마지막에는 대부분 명령을 행하고 즉각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당시의 행정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자료가 된다.
- 32) 牒報는 朝鮮後期에 鄉校의 任員, 品官, 面任 및 頭民 등이 守令에게 보고할 때나 下級 官廳에서 上級 官廳에 보고할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 牒呈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첩보에는 세부적인 請願 내지는 報告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밝히는 것이 관례였다.

리며 불복하는 자는 잡아 엄히 다스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첩보에는 여러 해 동안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해결하는 판결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당시 판결을 내렸던 관찰사 김병교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철비를 세웠다는 내용과 함께 ‘사람들이 防禦에 收稅하는 것은 水稅를 내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 관개에 납세하는 것은 실로 억울하다.’³³⁾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첩보를 올린 관리는 ‘(原告와 被告의) 文券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뽑아내 成冊해서 올리니 살펴보신 후에 處分해 주길 바란다.’³⁴⁾고 보고하였다.

완문은 총 2점으로 1점은 문서 형식으로, 1점은 책자의 형식으로 만들어져있다. 문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완문은 김상해가 기근에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줘 구휼을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이 부민들에게 주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명을 내렸을 때 김상해가 기꺼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이 행동에 대해서 관에서 알아 褒獎을 해달라 문서를 올렸고, 김상해에게 자손과 형제의 역을 영영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완문이 내려온다. 관리들에게 광산김씨 가문에게 멋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진 완문은 表彰完文으로 京城大成學院³⁵⁾에서 광산김씨 가문의 삼효자를 표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⁶⁾

호적류는 총 5점으로 준호구 1점과 호구단자 4점이 있다. 김상해의 첫째 아들인 金箕元으로 추정되는 金達溫(金達元)의 준호구와 호구가 남아있고, 金在敏으로 추정되는 金喜敏의 호구, 그리고 김재민의 증손자 金顯洙의 호구가 2건 있다. 보통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그 아들이 호주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지만 1882년(高宗19)에 작성된 김현수의 호구단자를 보면 죽은 할아버지를 대신에 손자가 호주를 이어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특이한 점으로는 1789년(正祖13) 김희민의 호적 背面에 조상들의 직위를 적어둔 점인데 아마 호적을 작성할 당시에 적은 것은 아니고 김현수의 아들인 金容彩가 후

33) “...今以防築蒙利收稅於畚作者此無異水稅也”, [25]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및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34) “...前後文軸昭然在茲以此意論報亦縷縷不已爲臥乎所...”, [25]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35) 京城大成學院:1921년에 大東斯文會에서 孔子 追慕 記念으로 設立되었다. 대동사문회는 1919년에 發起하였는데 日帝強占期에 활동한 儒敎 단체이다. 결성된 목적은 3·1운동 이후 유교 계열의 親日化를 推進하기 위해서였다.

36) 붉은색 표지를 가졌다. 앞 내용은 직접 붓으로 적었고, 뒷부분의 발급자 부분은 당시 경성대성학원 임원들의 이름과 직위가 목판으로 찍혀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1책이다. 四周雙邊으로, 半郭의 크기는 24.8×19.7cm이다. 界線이 있고, 上內向二葉花紋魚尾를 가지고 있다.

37) “...第一戶幼學金潤鉉故代孫幼學顯洙年三十二甲寅...”, [31]1882년(高宗19)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대에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³⁸⁾ 이처럼 보관된 문서가 후대에 수정이 되거나 메모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분제기는 총 3점으로 앞의 2점은 재주가 살아있을 때 작성된 분급문기이고, 뒤의 1점은 재주가 사망한 뒤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적혀있는 토지의 양이 많아 당시 광산김씨 가문의 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아들과 달리 딸의 이름을 직접 적는 대신에 사위의 이름을 적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³⁹⁾ 땅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卜數]에 대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다. 명문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후대에 그 땅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땅 위에 작게 별지를 잘라 붙여 표시를 해두는 것도 확인된다.

3. 光山金氏의 靈巖 定着과 活動

1) 光山金氏의 靈巖 定着

光山金氏의 시조 金興光은 新羅國 大輔公 金闕智의 후손으로 신라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신라 말기에 武珍州 西一洞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광산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김홍광에 대해 憲康王子說, 神武王子說 등 몇 가지 설이 있으나 입증하기 어려워 주로 新羅王子公으로 본다. 김홍광이 살던 서일동은 고려 때 후손들 중 8명의 平章事가 배출되면서 이름이 平章洞으로 바뀌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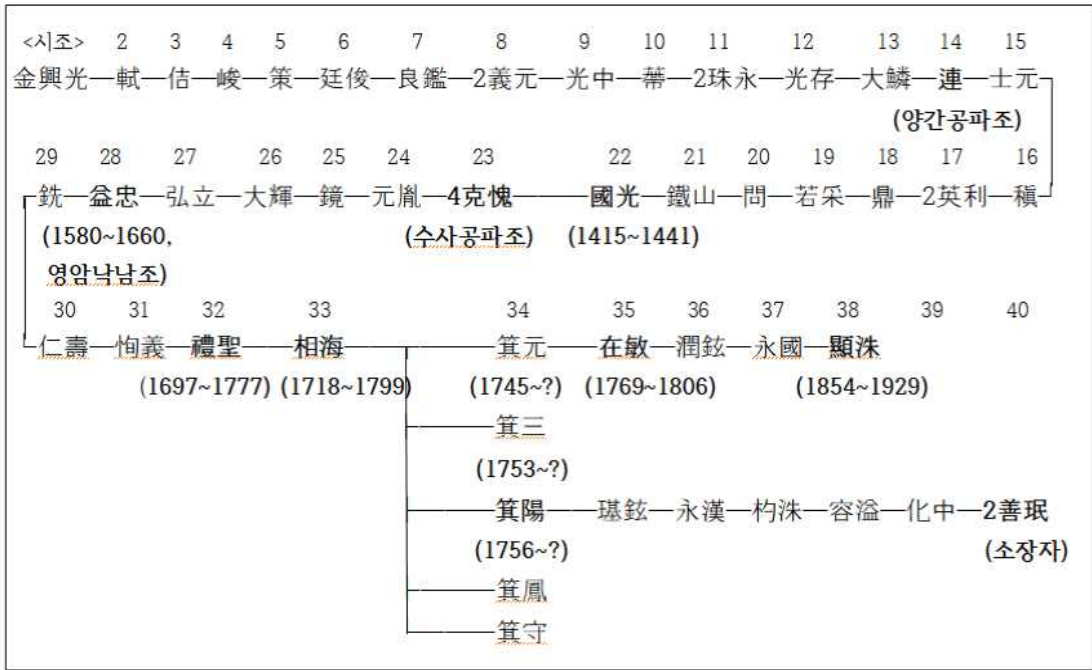
광산김씨의 派는 크게 文貞公, 文肅公, 良簡公, 郎將公, 司醞直長公 등 5개의 大派로 나뉘고 그 아래 또 中派, 小派로 나뉜다. 영암 모정마을 광산김씨 고문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지파는 良簡公派에서 判軍器監事公 중 水使公派에 해당한다.⁴¹⁾

38) [30]1798년(正祖22) 김희민(金喜敏) 호구단자(戶口單子) 背面에 적힌 글을 보면 考顯洙, 祖永國 등으로 적혀있어 김현수의 아들인 김용채가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一女柳鎮厚衿郡地西終...”, [34]1771년 4남 1녀 등 분제기(分財記); “...一女婿曹聖達衿郡地西終面...”, [35]1802년 5남 1녀 등 분제기(分財記); “...一長妹安尙敬衿...一妹李漢運衿...”, [36]가경연간 4남 2녀 분제기(分財記).

40) 현재 全羅南道 潭陽郡 大田面 平章리에 있는 潭陽平章洞光山金氏遺墟碑의 뒷면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1) [그림1]의 가계도는 소장자가 보관 중이던 光山金氏水使公派譜編纂委員會, 『光山金氏水使公派族譜』上, 199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광산김씨대중중에서 만든 전자족보(<http://www.kwangsankim.co.kr/>)에서는 11세인 珠永이 빠져있어 작성된 가계도와 세대수의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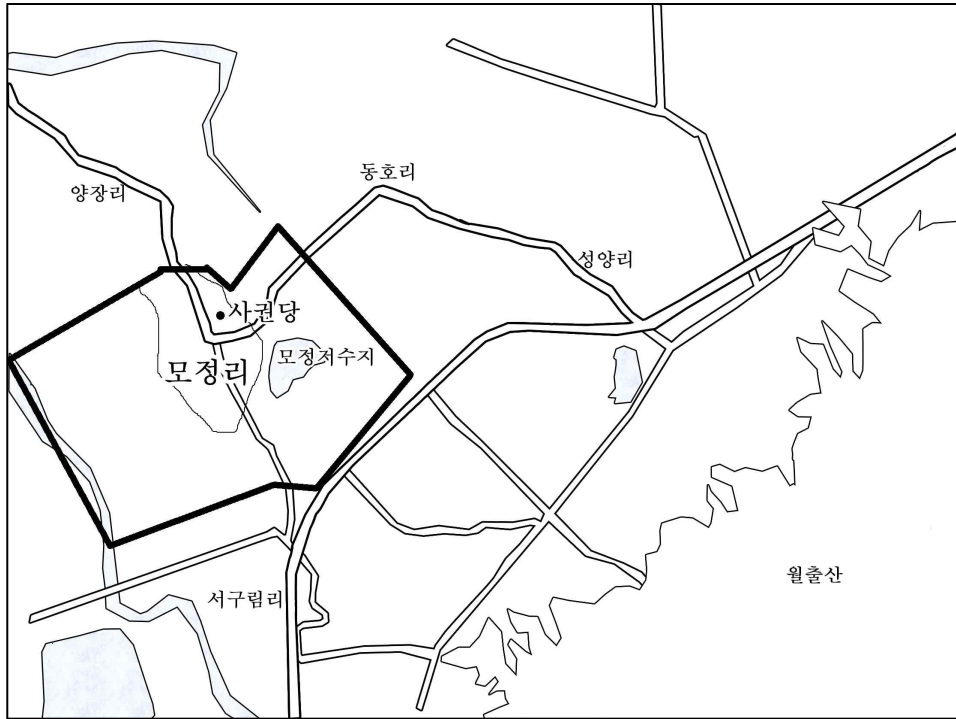


[그림 3] 光山金氏 家系圖

수사공파의 派祖는 金克愧로 金國光의 아들이다. 1466년(世祖12)에 태어났으며 1490년(成宗21)에 졸하였다. 1483년(成宗15) 嶺南左道에 변이 났을 때 成宗의 명을 받은 숙부 金謙光에 의해 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천거되어 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

광산김씨가 영암 모정마을에 터를 잡은 것은 1608년(宣祖41) 광산김씨 28세손 金益忠에 의해서였다. 김익충의 字는 廷年이고 號는 松竹이다. 1580년(宣祖13)에 태어났고 1660년(顯宗1) 9월 17일에 졸하였다. 進士 柳大亨의 딸인 全州柳氏와 혼인하였다. 김익충은 어릴 적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인재였다. 1608년(宣祖41) 光海君이 등극하며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여 사양하고 영암으로 내려왔다. 1636년(仁祖14)에 사촌 김집이 직접 영암으로 와 김익충에게 다시 벼슬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고 영암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⁴²⁾

42) 이백(李白)이 쓴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의 일부(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 而浮生若夢爲歡幾何.)를 차용하여 문장으로 거절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창오, 「군서면 모정리(8) - <82> 광산김씨 집성촌 ... 학문 벗삼아 조상의 향기 물씬」, 『영암신문』, 2009.08.17., <http://www.yasinmo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2> (검색일:2020.04.18.)



[그림 2] 全羅南道 靈巖郡 郡西面 茅亭里 地圖

영암 모정은 月出山이 보이는 곳으로 간척 이전에는 동네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모정마을 옆에 자리하고 있는 구림마을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특히 백제의 왕인박사가 일본으로 떠날 때 이곳에서 배를 탔다고 전해진다. 15세기 말 이후로 인구의 증가와 장시의 성장을 이유로 많은 곡물 생산이 필요해지면서 농경지를 늘리기 위해 권세가들의 주도 하에 많은 토지를 간척했다.⁴³⁾ 영암은 1540년경부터 羅州牧使 林九齡⁴⁴⁾이 鳩林, 羊場, 茅亭, 東坪 등의 일대를 대규모로 간척하면서 농경지를 많이 만들었으며, 현재까지도 모정마을은 농업에 힘쓰는 인구가 대부분이다.⁴⁵⁾ 이후 19세기에 도 제방 축조를 통해 2천여 두락의 농토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간척을 계속해나갔다.⁴⁶⁾

43) 박영한·오상학, 『조선시대 간척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33~36.

44) 林九齡(1501~1562)의 字는 年樹이고, 號는 月堂이다. 靖亂衛社 공신 2등에 策錄되고 南原 都護府使, 羅州 牧使를 지냈으며, 指南平野 干拓을 주도하여 토지를 많이 얻었다. 鳩林洞契와 靈巖鄉樂의 주도세력이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45) 표인주, 「영암군 구림리 죽음의례와 의례조직의 지속과 변화 -학암과 모정마을의 사례-」, 『남도 문화연구』 7, 2001, p3.

46) 박영한·오상학, 위의 책, p98~101.

영암지방에는 15~16세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성씨들을 중심으로 士族基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영암에 정착한 성씨로는 全州崔氏, 居昌愼氏, 南平文氏, 咸陽朴氏, 善山林氏, 居昌曹氏 등이 있다. 전주최씨의 경우 烟村 崔德之(1384~1455)가 15세기에 처의 연고지인 靈巖郡 德津面 永保里로 들어왔고, 거창신씨와 남평문씨는 각각 15세기에 전주최씨와 혼인 관계를 맺으며 영보리에 자리하였다. 함양박씨의 경우 15세기에 처향인 靈巖郡 郡西面 鳩林里로 들어왔고, 선산임씨 또한 16세기에 임구령이 처향인 구림리에 정착하며 거주하였다. 거창조씨는 16세기에 선산임씨와 혼인 관계를 맺으며 구림으로 자리잡았다.⁴⁷⁾ 이 외에도 영암으로 이주한 성씨는 다양하다.

그 중 광산김씨인 김익충이 영암으로 내려온 시기는 17세기로 영암에 世居하던 성씨들보다 두 세기가량 뒤늦게 옮겨왔다. 김익충이 영암으로 내려온 경위와 모정마을에 머물게 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김익충은 영암으로 내려오기 전 벼슬을 가지고 있었으나 광해군이 등극하면서 정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때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보통 세거지를 옮길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리를 잡기 쉬운 妻鄉, 外鄉 등 緣故地를 따라 옮기기 마련이다. 혹은 鄉·所·部曲 등 중앙정부의 통제가 철저하지 않은 지역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⁴⁸⁾ 족보를 확인해보더라도 김익충의 高祖父인 金元胤과 曾祖父인 金鏡의 墓는 廣州 石磨里에, 祖父인 金大輝와 아버지인 金弘立의 묘는 廣州 豐陽里(豐壤)에 자리하고 있어 김익충이 영암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그보다 윗대인 선조들의 묘소도 論山에 자리하고 있어 영암과의 연고는 찾아보기가 힘들다.⁵⁰⁾ 김익충의 경우 妻는 全州柳氏이고, 외가는 全州李氏와 安東金氏이다. 이 성씨들은 영암의 토성도 아니고, 김익충 이전에 세거지를 옮긴 성씨도 아니어서 연고지를 따라서 영암으로 옮겨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자의 이유도 확실하진 않으나 소장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추측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조인 22세손 金國光⁵¹⁾이 1469년(睿宗1) 5월에 충청도와 전라도의 間弊使로

47) 박선미, 「조선후기 영암 서호 밀양김씨 문중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2~3; 이해준,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배경과 성격」, 『역사학연구』 2, 1988, p9~12; 김경옥, 「朝鮮後期 靈岩地方 士族活動과 書院建立 :全州崔氏家門의 成長과 鹿洞書院 建立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13~19.

48) 국사편찬위원회, 『韓國史 34 -朝鮮後期の 社會』, 1995, p174.

49) 족보에 기록된 묘소 위치를 통한 추정이고 『영암의 땅 이름』 p398에는 ‘光山金氏 金益忠이 忠南 連山에서 들어왔다.’고 기록되어있다.

50) 光山金氏水使公派譜編纂委員會, 『光山金氏水使公派族譜』 上, 1999.

내려가 있는 동안 영암을 유람하며 영암 모정의 풍광을 이야기한 시가 있다. 김국광이 영암에 내려갔을 때 崔德之의 存養樓에 갔을 때 지은 시이다. 제목은 「存養樓次韻」이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操心迂叟德馨香, 文苑當年獨擅場, 世上浮沈惟適意, 美名應與水流長.”⁵²⁾ 소지의 내용에도 김국광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광산김씨 가문의 사람이라 말하며 ‘김국광의 후예’라 언급하는 문장이 나온다.⁵³⁾ 인터뷰의 내용에서도 ‘선조인 김국광이 영암의 풍광에 대해 논하며 살기 좋은 곳이라 긍정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아마 선조의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말이 있다.⁵⁴⁾ 당시 김익충은 조정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先祖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영암의 다른 마을 대신 상대적으로 마을 내에 주력 가문이 없던 모정마을로 낙남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모정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광산김씨와 平山申氏인데 광산김씨가 마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광산김씨가 먼저 터를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도 모정마을은 주로 광산김씨와 평산신씨로 인가가 구성되어있으며 광산김씨 인가가 더 많다.⁵⁵⁾

모정마을의 원래 이름은 나무와 바위가 많다고 하여 松巖이었다. 이 마을이 모정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1500년대 羅州牧使 林九齡이 모정에 防築을 築造한 뒤 雙醉亭이라는 별장을 지었다. 하지만 나라에서 너무 호화롭다고 하여 철거명령이 떨어져 이후 기와지붕에 띠(茅)를 엮어 사용하여 그때부터 茅亭이라 하었다고 한다. 이 쌍취정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그 자리에 願豐亭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다.⁵⁶⁾

김익충은 모정마을에 정착한 뒤에 슬하에 아들 金銑을 두었다. 김선(1624~1675)의 字는 澤之로 通訓大夫 掌樂院正으로 추증되었다. 부인은 淑夫人 平山申氏이다. 묘는 靈巖郡 鶴山面 龍池 뒤 加火洞에 있고 부인의 묘는 영암군 郡西面 茅亭里 뒤 堂山洞에 있다. 김선은 金仁壽, 金仁宅, 金仁奉 아들 셋을 두었다. 첫째 아들 金仁壽(1646~1694)

51) 金國光(1415~?)의 字는 觀卿이고, 號는 瑞石이다. 典籤으로 漢城府 少尹을 추증받은 黃保身의 딸인 長水黃氏와 혼인하였다. 1438년(世宗20)에 生員試에 합격했고, 1441년에(世宗23) 文科에 급제하여 세조의 눈에 들어 精忠布義敵愾功臣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光山府院君이 되었고, 『經國大典』 편찬에 함께 하였다고 한다. 김국광은 湖南三綱錄 忠義에 이름이 실려있다. 묘는 論山郡 豆磨面 旺垆里에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52) “操心 …… 流長”:崔世榮이 崔德之의 遺事を 수집하여 엮은 『烟村有事』에 실려있다.

53) ‘…其先光山人也左議政光山府院君之後裔也…’, [21]1864년 최각현 등 상서에 해당하는 문장이 들어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소지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54) 소장자 김선민과의 자문회의 인터뷰 내용 중.

55) 광산김씨는 약 800여 가구, 평산신씨는 180여 가구라 기록되어있다. (영암군지편찬위원회, 『靈巖郡誌』 下, 1998, p643)

56) 영암문화원, 『영암의 땅 이름』, 2006, p398.

의 字는 寬夫로 通政大夫刑曹參議로 추증되었다. 부인은 淑人 河東鄭氏이고 묘는 加火洞에 있다. 김인수도 자식이 아들 한 명뿐이었는데 金恂義이다. 김순의(1674~1766)의 字는 子誠로 嘉善大夫工曹參判 兼五衛都摠府總管으로 추증되었다. 묘는 祖母(靈巖郡 郡西面 茅亭里 뒤 堂山洞) 묘의 북쪽에 있고 松沙 奇宇萬이 비문을 지었다. 부인은 貞夫人 全州李氏이다. 김순의는 아들 金禮聖 한 명을 두었으며 이후로는 金相海, 金箕陽, 金在敏 등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도 김익충의 후손들은 모정마을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

16세기가 되면서 영암으로 많은 가문들이 낙향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세거지를 옮기는 데에는 처향이나 외향 같은 연고지가 있는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마을에 주를 이루는 성씨가 없는 마을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김익충은 다른 가문에 비해서는 한 세기 가량 뒤늦게 영암으로 낙남하였다. 김익충이 자리 잡은 모정마을은 마을에 주를 이루는 성씨가 없었더라도 원래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광산김씨는 마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문의 입지를 세우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2) 靈巖 茅亭 光山金氏의 活動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가문의 활동 양상을 몇 개의 커다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族契 창립, 宗家와 祠堂 건립, 精舍와 學契 마련, 樓亭과 齋室 건립, 書院·祠宇 건립과 운영, 族譜와 先祖文集의 발간, 旌閭 褒獎과 追贈 등이 있다.⁵⁷⁾ 영암 모정 광산김씨도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마을에 자리잡고 가문의 기반을 다졌다. 思勸堂⁵⁸⁾이라는 齋室을 건립하고, 世顯門⁵⁹⁾이라는 정려문을 세우면서 선조의 정려와 포장에 힘을

57)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p144~14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 - 조선 후기의 사회』, 1995, p169~170.

58) 思勸堂은 김용채가 부친 김현수의 뜻을 이어받아 1930년에 건립하였다. 내부에는 「思勸堂上樑文」을 비롯하여 「思勸堂記」, 「思勸堂原韻」, 「韻次」 등의 편액이 걸려 있다. 사권당은 광산김씨의 제각으로 사권당 내에 전적과 문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 일부 전적이 도난 당한 이후에 소장자의 자가로 옮겨 직접 보관 중이다. 소장자는 이전에 1년에 13번 제사와 추석, 설날 명절을 지냈는데 현재는 석달 그름에 한 번 지낸다고 한다.

59) 三孝子 世顯門은 金禮聖, 金箕陽, 金在敏 삼효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孝子門이다. 세현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세현문은 '光山金氏 孝子門'이라고도 불린다. 모정마을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다.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고, 돌담 사이에 있는 瑞顯門을 통해 들어가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현문 내부에는 광산김씨 문중의 金容彩가 쓴 효자문 편액과 1924년에 기록된 「孝子旌帛」, 1928년에 기록된 「光山金氏三孝子遺蹟後」, 1928년에 기록된 「世顯門記」가 걸려 있다. 御筆로 적힌 旌帛에는 「심히 범상함에 흠탄하여 일 尺의 맑은 천을 건물에 조각하여 향을 피우며 그 문을 정려하여 봉하니 그 이름이 만 년

졌으며 족보도 발간하였다. 이 중 고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은 정려 포장과 추증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있는 문서에서 확인되는 활동 대부분이 선조의 정려 포장을 위한 노력이고, 교지 또한 추증과 관련된 내용이 남아있다.

이처럼 고문서를 통해 가문에서 행했던 활동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문서의 수는 적은 편이다. 보통 낱장인 종이로 작성되며 보관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문집이나 유물, 유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의 비중을 적게 둔다. 하지만 영암 모정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광산김씨의 경우 자신들의 재실인 사권당에 문서를 보관하여 소장하고 있었다.

영암 모정 광산김씨 고문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문의 활동은 가문의 선양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가문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 마을에서 가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광산김씨의 선양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家門의 宣揚을 위한 三孝子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가문의 입지를 위한 마을의 貧民救恤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활동은 32세손인 金禮聖부터 35세손인 金在敏가 살았던 때에 주로 이루어졌다.

가문 내에서 이러한 활동이 두드러지는 인물로는 32세손인 金禮聖부터 35세손인 金在敏까지이다. 32세손 金禮聖(1697~1777)의 初名은 益聖이고 字는 大化이다. 孝子로 三綱緣에 이름이 실려있다.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賑恤하여 1777년(正祖1)에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자리에 올랐고, 그 해에 졸하였다. 龍村 黃喜의 후손 蘭善⁶⁰⁾이 비문을 지어주었고, 1804년(純祖4)에 命旌을 받았다. 묘는 영암군 新北面 卒巖 뒤에 있고 부인은 貞夫人 潘南朴氏이다. 슬하에 金相海, 金相德, 金相鍊, 金相宗 4명의 아들을 두었다.

33세손 金相海(1718~1799)의 字는 宗白, 號는 慈善堂이다. 족보에는 김상해로 기록되어있으나 실제로는 金龜海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는 족보에 적혀있는 김예성의 처음 이름이 ‘益聖’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족보와 호구단자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⁶¹⁾ 通德郎으로 1783년(正祖7)에 가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어 관의

동안 오래 가기를 바란다.” 라고 적혀있다. 세헌문 편역 아래에는 ‘光山金氏之世孝子之門’이라 적힌 현판이 있고, 문의 내부에 광산김씨 문중 齋閣인 思勸堂이 있다. 좌측으로 재실이 있고 재실 뒤편까지 모두 낙남조 김익충이 터를 잡은 곳이지만 현재는 매각되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60) 黃蘭善(1825~1908)의 字는 同輔이고, 號는 是廬이다. 本貫은 長水이다. 朝鮮 末期 學者로 柳致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遺稿로 8권 4책의 시문집 『是廬集』이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61) 金禮聖의 初名이 金益聖이고, ‘1780년(正祖4) 김달온(金達溫) 준호구(準戶口)’에서 ‘父幼學龜海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益聖’ 부분을 살펴보면 김익성의 아들인 金相海가 金龜海이고, 준호구의 주인

褒獎을 받았다.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다. 묘는 郡西面 茅亭里 堂山洞에 있고 부인은 貞夫人 金海金氏이다. 金箕元, 金箕三, 金箕陽, 金箕鳳, 金箕守 5남 1녀를 슬하에 두었다.

김상해의 셋째 아들인 金箕陽(1756~?)의 字는 彦直, 號는 栢軒이다. 호자로 삼강록에 이름이 실렸다. 추후에 通政大夫 兼經筵參贊官에 追贈되었으며 1804년(純祖4)에 命旌을 받았다. 묘는 郡西面 모정리에 있고 부인은 金海金氏, 咸平魯氏이다.

35세손 金在敏(1769~1806)은 김상해의 첫째 아들인 김기원의 4남 1녀 중 첫째 아들이다. 字는 乃賢, 號는 竹谷이다. 김재민 또한 호자로 삼강록에 이름이 실려있고 사후에 朝奉大夫 童蒙教官에 추증되었다. 묘는 西湖面 白雲洞에 있고 부인은 密陽朴氏이다. 김기양과 김재민도 호자로서 旌帛을 받았다.

첫 번째 가문의 선양을 위한 삼호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영암 모정 광산김씨 가문에서는 顯祖의 행적 중 효행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문에서도 주로 기반으로 삼는 양상 중 하나이며 효행이 아닌 다른 업적을 기리기도 한다.⁶²⁾ 광산김씨에서는 32세손 김예성, 34세손 김기양, 35세손 김재민은 당시 보기 드문 세 명의 호자였음을 내세우며 정려를 받고자 하며 이 행적을 통해 유적을 짓기까지 하였다. 효행은 열녀와 더불어 유교적인 측면에서도 선양되는 대상이었으므로 한 가문에서 삼 대에 걸쳐서 호자라 칭해질 정도의 활동이 나온 것은 충분히 가문에서 내세울 가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문서로는 4건의 소지, 표창완문이 있다.

정려 표창은 성리학 이념에 기반한 조선사회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성리학의 기본 덕목인 충·효·열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인물들을 褒揚하였다. 이는 18, 19세기에 이르면 정려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띠었고 특히 효·열과 관련된 정려는 해당 가문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였다. 성리학 사회에서 정표자를 배출한 가문은 물질적 포상, 부세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가문의 품격 및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려는 행적의 탁월함과 사실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향촌 공론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다. 지방관 즉 고을 수령과 관찰사는 정려 요청 民狀을 접수하면 향촌 공론을 요구하기 마련이었다. 죽인들로 구성된 문중 공론은 객관성이 약하여 국가와 관을 설득

인 金達溫은 김상해의 큰아들인 金箕元임이 확인된다.

62)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연구」, 『동양학』 23, 1993, p16.

하기에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사대부가에서 정려를 추진할 때 문중 공론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었다. 향촌공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향촌의 사림들과 연계하여 정려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⁶³⁾ 광산김씨의 소지에서도 소지를 작성한 사람이 김씨가 문의 사람이 아닌 최씨, 권씨가 올린 것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였다.

처음 올린 소지는 1864년(高宗1) 7월 靈巖郡守에게 올린 것으로 삼효자의 행실을 적어 올렸다. 부모의 상을 채 마치기도 전에 조부모의 상을 당해 합하여 최대 9년간의 廬墓살이를 했다는 점 또한 부각 되어있다. 군수에게 올린 소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사림에서 의견이 나왔고,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행실에 대해 營門에 보고할 것’⁶⁴⁾이라는 데김을 받았으나 바로 褒揚을 내리는 결정은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에 全羅道觀察使에게 崔珪鉉이 한번, 權克壽가 한번 총 두 번의 상서를 올린다. 답변으로 각각 ‘듣기에 심히 가상하다, 하지만 포양을 내리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다.’⁶⁵⁾는 답변을 받게 된다. 2년 뒤인 1866년(高宗3) 3월, 전라도 지방의 儒林들이 聯名해 예조 관서에게 직접 소지를 올린다.

소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삼효자의 효행을 강조하기 위한 대목으로 ‘동물이 효자의 마음에 감복해서 함께 여묘살이를 했다는 내용(김예성)⁶⁶⁾,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 부모님이 살아나고, 수명이 늘어났다는 내용(김기양)⁶⁷⁾,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를 봉양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똑같이 대하였다는 내용(김재민)⁶⁸⁾이 적혀있다. 그리고 부모의 상을 채 마치기도 전에 조부모의 상을 당해 합하여 최대 9년간의 여묘살이를 했다는 점이 부각되어있다⁶⁹⁾. 특히 ‘한 집안에서 삼 대에 걸쳐서 효자가 나왔다’는 점이 강조되며 일반적인 효행보다는 탁행(卓行)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⁰⁾

63)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연명정소 활동과 공론 형성」, 『사학연구』 109, 2013, p255~257.

64) “…既有士林之公議可/想實行之卓異當/依狀辭轉報營門…”, [21]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65) “聞甚嘉尙/向事”, [22]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褒揚之典/啓體至重/姑難遽議…”, [23]1864년(高宗1)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66) “…父母喪執喪之禮廬墓之節一如前喪凡廬墓八年夜則虎來衛之晝則烏鵲集廬而悲鳴距家…”, [24]1866년(高宗3)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67) “…父嘗病病幾至氣絕斫指注血得以見甦延壽七年…”, [24]1866년(高宗3)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68) “…在敏幼喪慈母至孝繼母以養父志母亦感化……承重服六年廬墓歡粥行素一如前喪前後九年廬墓常如一日…”, [24]1866년(高宗3)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69) 김예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상을 지내던 중 조부모의 상까지 겹쳤고, 김재민 또한 부모의 상을 지내던 중 조부모 상을 만났다. (“…故孝子金(益)禮聖九歲父喪……廬墓未服闋遭祖父母喪…其曾孫(亨)在敏……丁憂三年泣血廬墓……又遭祖父母喪以承重服六年廬墓…”, [24]1866년(高宗3)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이처럼 여러 차례 올린 소지로 각 삼효자에 대한 정려를 받았을 것이라 추측한다. 하지만 가문에서는 실질적인 旌閭門을 세워 자신들의 위상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창완문의 내용에 삼효자의 孝行에 대해 京城大成學院에서 표창을 내린다고 적혀있다. 표창완문에는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유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던 중, 광산김씨 삼효자에 대한 문서와 추천이 많이 나와 표창을 한다.’⁷¹⁾는 내용이 적혀있다. 지금의 世顯門은 이 표창완문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아 세워졌다고 추측된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서원·사우도 문중서원의 성격을 띄며 자신들의 조상을 기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문중활동, 가문 내의 활동이 주축이 되었다.⁷²⁾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발판삼아 영암 모정 광산김씨도 조상의 업적을 기리는 정려문을 짓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곧 가문의 선양사업과 마을 내에서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가문의 입지를 위한 마을의 貧民救恤에 관한 부분으로 18세기 金相海의 救恤활동이다. 1784년(正祖8) 완문을 통해서 김상해가 당시 전라도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구휼에 도움을 준 내용을 알 수 있다. 완문이 작성된 경위는 全羅道觀察使가 작성한 關⁷³⁾을 備邊司가 보고 그 내용을 추려 관을 보내 내려오게 되었다. 완문의 주요 내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곡식을 마을사람 600여 명에게 90여 석의 쌀을 베풀었다는 것을 칭찬하며 앞으로 김상해의 자손과 형제의 역을 면제하고, 다른 지방관들이 멋대로 김상해의 집안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자손과 형제의 각종 역을 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암군의 座首, 別監, 大同有司, 分賑都監의 監官과 色吏 및 六房의 色吏들이 참여하여 著名하였다.

당시 정조대에는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다. 특히 1781년(正祖5)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3분의 2가 재해를 입을 정도로 큰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년간이나 기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영암지방에도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완문에서는 ‘왕께서 六道⁷⁴⁾를 賑恤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마을에 사는 富民들에게 도움을

70) “...此三世卓異之行...”, [23]1864년(高宗1)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71) “...孔夫子繼之以闡善/揚美之意自羅麗以來卓行異/蹟無漏收集次第表彰紀念/中謹按全南有司及儒林薦狀...”, [27]대성학원(大成學院) 표창완문(表彰完文).

72) 김기동, 「18세기 호남지역 광산김씨 종족 활동의 변화-시조사당 건립과 현조선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4.

73) 關: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또는 동등한 관청 상호간에 보내는 官文書. 내용은 대개 두 관청간의 관련있는 사무를 서로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74) 六道:平安·咸鏡道를 제외한 京畿·忠淸·全羅·慶尙·黃海·江原의 여섯 道를 말한다.

요청했다.’⁷⁵⁾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부민들에게 구휼의 부담을 지우면서 오히려 부민까지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부민은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굶어 죽어도 신경쓰려하지 않았다고 한다.⁷⁶⁾ 하지만 김상해는 나서서 관에 고하고 곡식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씩 나누어주었다고 한다.⁷⁷⁾ 그리고 ‘길에서 빌어먹는 아이(行乞兒)’와 ‘버려진 아이(遺棄兒)’를 언급하며 왕이 ‘아이들을 收育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는 1783년(正祖7)에 나온 『字恤典則』⁷⁸⁾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김상해가 마을 사람들을 구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 덕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인 분재기, 완문, 소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당시 김예성이 작성한 ‘1771년 4남 1녀 등 분재기’를 살펴보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자신이 구입한 땅을 합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준다고 쓰여있다. 당시에 장자였던 김상해가 받았던 재산을 살펴보면 집터와 함께 논과 밭을 합쳐 대략 130斗落으로 130두락은 약 13000평에 해당한다. 이 재산을 어떻게 축적하였는지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광산김씨는 부민에 속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완문은 이 분재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큼 김상해가 부민에 속해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다른 부민들은 마을 사람들을 굶이 구휼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광산김씨 가문에서는 기꺼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나누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가문 내의 효자에 대한 정백을 받기 위한 노력이 들어있는 소지까지 살펴보면 이러한 활동이 가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한 노력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김상해의 이런 행동을 통해 모정마을 사람들은 광산김씨 가문에 더 호의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75) “...聖上當六道議賑之餘軫一民失所之慮蠲恤之惠……使其富民擔當救濟之意嚴飭施行事…”, [26]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76) “...所謂富民等徒知財穀之爲貴不知活人之所重守錢積貨乘時射利隣里族屬之入於溝壑者袖手傍觀無異於秦瘠之越視荒歲民心誠爲可慨…”, [26]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77) “...西終面毛亭里居幼學金龜海素以意氣之人前後饑歲捐穀周恤……乃於恩綸之下不勝感發之心■告于官而去二月中旬饑民六百餘口一依官分賑例捐出九十餘石穀斗給而分給飯餼而饋餉是如乎……其一面五百饑口支活十日…”, [26]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78) 『字恤典則』:조선시대 흉년을 당해 乞食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救護 방법을 규정한 法令集이다. 흉년을 당해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걸식하거나 버림받아 굶주리므로, 이들이 父母 및 親戚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나 심부름꾼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收養하게 하기 위한 救恤法이다. 1783년(正祖7)에 綸音과 함께 事目을 정해 국한문으로 인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해 영구히 시행하도록 했다. 9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호대상자인 ‘行乞兒’는 부모 및 친척이나 上典이 없어 의탁할 수 없는 4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이며, ‘遺棄兒’는 3세 이하의 유아를 말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소장하고 있는 문서 중에서는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문서도 존재하는데, 감결과 첩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 문서에는 현재까지도 모정마을에 있는 《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⁷⁹⁾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 첩비는 모정마을 옆에 있는 방죽을 당시 전라도관찰사 金炳喬⁸⁰⁾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정마을과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鳩林마을은 羅州牧使 임구령의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당시에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개시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흙을 쌓아 저수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후에 임구령의 후손들은 저수지 앞의 약 20마지기 논밭을 다 팔고 세거지를 옮기지만 세월이 지나서 임구령의 外孫들이 마을로 돌아와 자신들은 땅만 팔았을 뿐 저수지는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저수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벌여 이미 마을 주민들이 승소하였지만 당시 상대방 측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승소했음을 알리지 않고 뺏대면서 따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승소 사실도 모른 채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며 계속 소송을 진행해왔다. 후에 전라도관찰사 김병교가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수지는 논과 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내용의 감결을 내리고, 관리에게 일러 이 일을 모두에게 알리고 말쟁을 일으키거나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들여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모정마을 주민들이 이 판결에 감복하여 관찰사 김병교의 판결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를 세웠다. 이 첩비가 19세기에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첩비는 약 2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첩비 자체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마을의 역사뿐만 아니라 첩비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광산김씨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광산김씨에서 첩비를 짓는 데 많

79) 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 觀察使 金炳喬를 기리기 위해 모정마을 사람들이 1857년(哲宗8) 5월에 세운 첩비이다. 현재도 靈巖郡 郡西面 茅亭里 모정저수지 수문 옆 원풍정의 뜰 한 편에서 있으며 높이는 124cm, 너비 24.5cm, 두께 3cm이다. 첩비 앞면에는 ‘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라 양각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건립 시기와 건립 주체가 새겨져 있다. 김병교 영세불망비는 김병교를 기리기 위해 모정마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자 김병교의 행적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80) 金炳喬(1801~1876) 字는 公器. 本貫은 安東이다. 1851년(哲宗2) 進士가 되고 이듬해 縣監으로 식년 문과에 급제, 持平이 되었다. 1853년(哲宗4) 吏曹參判 자리에 올라간 뒤 開城府留守大司成을 거쳐 1855년(哲宗6) 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1857년(哲宗8) 刑曹, 禮曹判書, 漢城府判尹大司憲 右參贊 등을 역임하고, 1862년(哲宗13) 吏曹判書左參贊工曹判書를 지내고 耆老社에 들어갔다. 이듬해 漢城府判尹이 되었으나 興宣大院君이 실권을 잡자 사임하였다. 그러나 다시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용되어 1864년(高宗1) 刑曹判書가 되고, 1868년(高宗5)에는 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 그 뒤에도 工曹判書, 刑曹判書, 判義禁府使, 上護軍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 <http://people.aks.ac.kr>)

은 지분을 들였거나 어느 정도 일조한 바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혹은 마을에서 가장 큰 가문이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5. 맺음말

영암 모정마을에 세거하는 광산김씨 가문은 김익충이 1608년(宣祖41)에 영암에 내려온 이후 현재까지도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김익충이 영암으로 정착한 이유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나, 후손들의 구전에 따르면 선조인 김국광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에 자리하고 있던 대부분의 성씨가 15~16세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성씨를 중심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가문의 영향력이 적은 모정마을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영암 모정 광산김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교령류, 소차계장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시문류 총 38점이다. 이를 국역한 내용을 토대로 가문이 마을 내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게 삼효자의 효행 관련된 부분, 김상해의 마을 구휼에 관련된 부분, 마을 내 모정 저수지와 《관찰사김공영세불망비》에 관련된 부분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삼효자의 효행은 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2세손인 김예성, 34세손인 김기양, 35세손인 김재민은 삼 대에 걸친 효자로 이들의 뛰어난 효행에 대해 정려를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삼효자의 효행과 관련된 소지를 총 4건을 올렸고, 표창완문을 통해서도 삼효자의 효행을 인정받았음이 확인된다.

효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지에서 ‘동물이 효자의 마음에 감복해서 함께 여묘살이를 했다.’는 내용,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 부모님이 살아나 수명을 늘렸다.’는 내용,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를 봉양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똑같이 대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효자를 이야기할 때 주로 언급되는 주제들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대 9년간의 여묘살이를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삼 대에 걸친 효행은 일반적인 효행이 아닌 특별한 행동이라 부각하며 강조하였다. 소지를 통해 정려를 포장 받은 이후에 경성대성학원에서 준 표창완문을 받은 뒤 지금의 세헌문이라고 불리는 정려문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김상해의 구휼 활동은 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에 오랜 기근 탓

에 전라도 지방까지 기근이 달하여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민은 자신의 친척이나 이웃사람이 굶어 죽어도 무시했으나 김상해는 자신의 곡식을 털어 마을 사람들을 며칠간 먹여 살렸다. 이에 그 행위를 칭찬하며 김상해의 자손과 형제의 역을 면제하였고, 관리들에게 김상해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아 완문을 내렸다.

세 번째, 마을의 역사는 감결과 첩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서들은 마을 방죽 옆에 세워진 첩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 모정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양장과 동변마을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관개시설이 방죽이었다. 하지만 방죽의 소유권 문제로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문제는 전라도 관찰사로 내려왔던 김병교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김병교는 ‘물은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방죽이 눈에 띈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김병교를 기리는 영세불망비를 방죽 옆에 세웠다는 내용도 감결과 첩보에 담겨있었다.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문서를 광산김씨에서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마을에서 위세가 있던 가문이었거나, 첩비를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이유이지 않을까 추측된다.

이처럼 영암 모정마을에 세거하는 광산김씨에서 소장된 고문서를 살펴보면 당시에 지방의 관직을 갖지 않고 살던 양반이라도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의 영향력이 적거나 마을 내의 주력 가문이 없는 곳으로 외부 가문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주축이 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중활동이라면 주로 꼽을 수 있는 서원·사우를 짓거나, 계를 만드는 등의 활동은 없었지만 대신 시조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그 활동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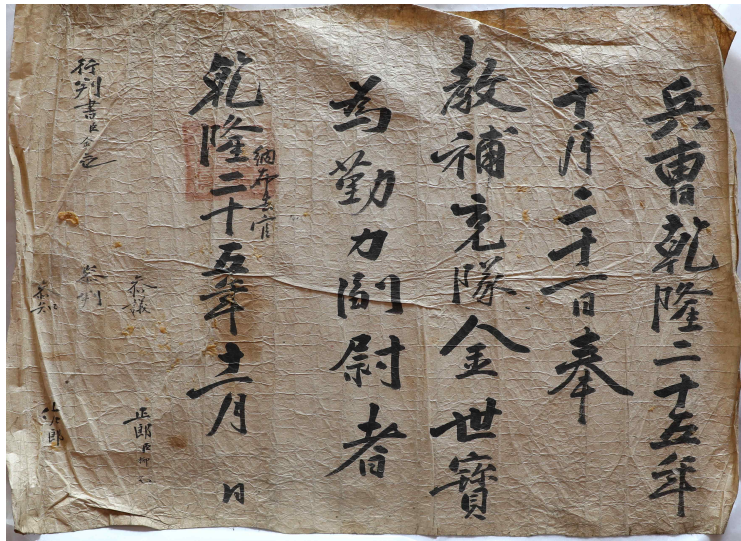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큰 가문들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는 수량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어 광산김씨의 전체적인 역사와 인물에 대한 행적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서들을 통해 추후 모정 저수지에 관한 연구나 지역에 거주하던 양반들에 관한 연구 등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암 내의 다른 마을이나 가문 간의 교류 관계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

V. 國譯

1. 教令類

1) 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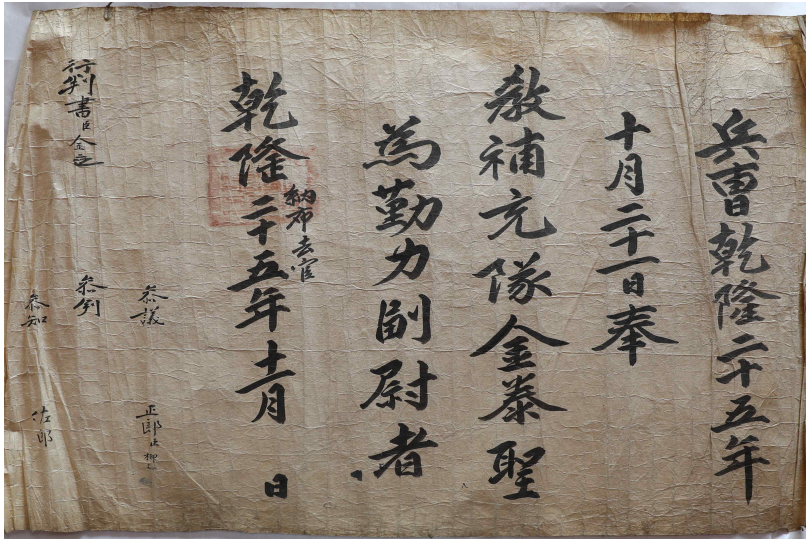
(1) 1760년(英祖36) 김세보(金世寶) 고신(告身)



[그림 3] 1760년(英祖36) 김세보(金世寶) 고신(告身)

<p>兵曹乾隆二十五年 十月二十一日奉 教補充隊金世寶 爲勤力副尉者 納布去官 乾隆二十五年十一月 日</p> <p>參議 正郎臣柳[著名] 行判書臣金[著名] 參判 參知 佐郎</p> <p>[兵曹之印] 1顆</p>	<p>병조 건륭25년(英祖36, 1760) 10월 21일 명을 받들어 보충대 김세보(金世寶)를 근 력부위(勤力副尉)로 임명함. 포목을 납부하여 거관함.⁸¹⁾ 건륭25년 11월 일 참의 정랑 신 류[작명] 행 판서 신 김[작명] 참판 참지 좌랑</p> <p>[병조지인] 1과</p>
--	---

(2) 1760년(英祖36) 김태성(金泰聖) 고신(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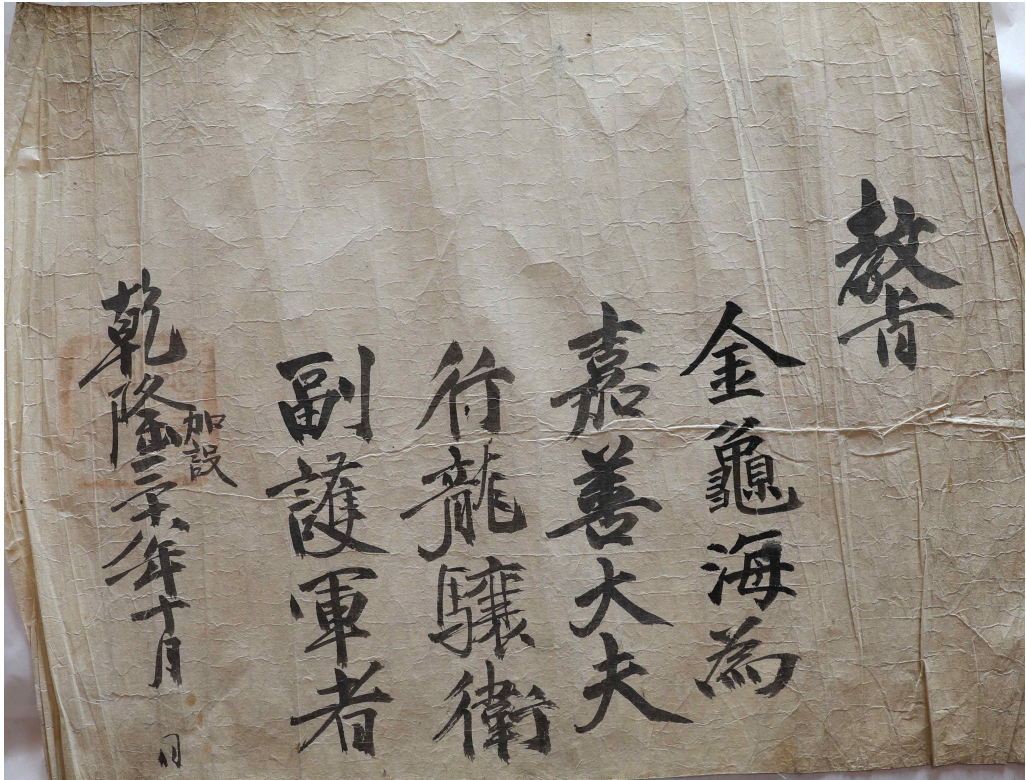


[그림 4] 1760년(英祖36) 김태성(金泰聖) 고신(告身)

<p>兵曹乾隆二十五年 十月二十一日奉 敎補充隊金泰聖 爲勤力副尉者 納布去官 乾隆二十五年十一月 日 參議 正郎臣柳[着名] 行判書臣金[着名] 參判 參知 佐郎 [兵曹之印] 1顆</p>	<p>병조 건륭25년(英祖36, 1760) 10월 21일 명을 받들어 보충대 김태성(金泰聖)을 근력부위에 임명함. 포목을 납부하여 거관함. 건륭25년 11월 일 참의 정량 신 류[착명] 행 판서 신 김[착명] 참판 참지 좌랑 [병조지인] 1과</p>
--	---

81) 納布去官:去官은 鄉吏나 衙前, 軍人 등 특정 관직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日數를 채우거나 品階의 승진 한계에 도달한 관원이 해당 관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補充隊는 入役 중 일수를 布木을 納付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었다. (“補充隊 年滿六十者·未去官身死者仕, 並許子孫繼役通計. 番次 四番, 四朔相遞. 都目 兩. 正月·七月. 加階 仕滿一千. ○二品以上子孫, 三百三十. ○原從功臣賤妻·妾子承重者, 減半. 去官從九品, 雜職.”, 『大典會通』 「兵典」 上, 番次都目, 大典, 補充隊.)

(3) 1773년(英祖49)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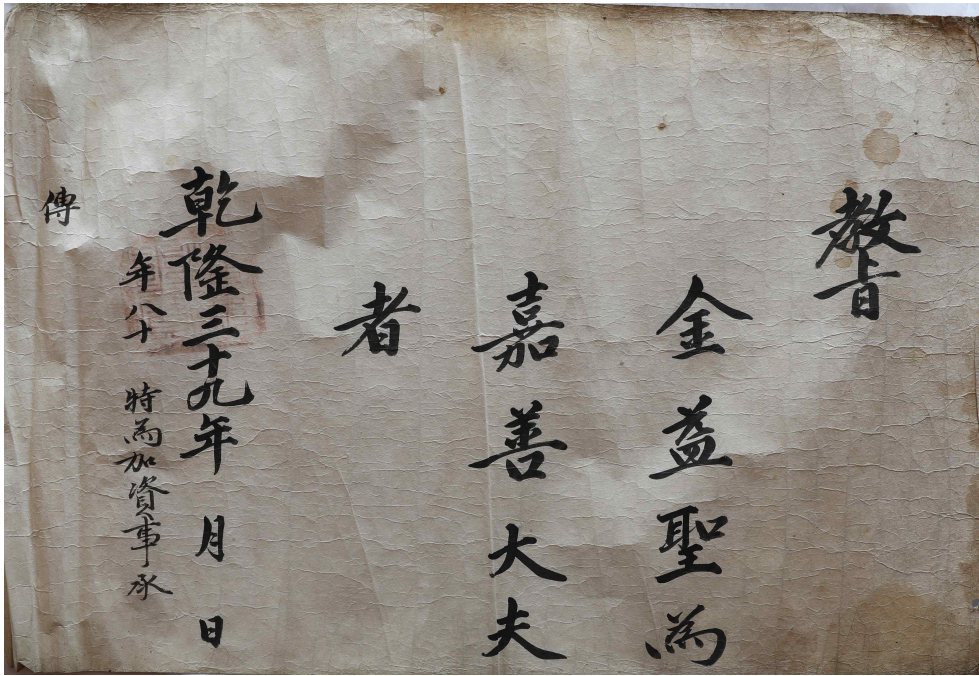


[그림 5] 1773년(英祖49)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p>教旨</p> <p>金龜海為 嘉善大夫 行龍驤衛 副護軍者 加設 乾隆三十八年十月 日</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김귀해(金龜海)를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함. 관청의 정원 외 임시로 늘려서 임명함.⁸²⁾ 건륭38년(英祖49, 1773) 10월 일</p> <p>[施命之寶] 1顆</p>
---	--

82) 加設:관청의 정원 외 임시로 늘려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1774년(英祖50) 김익성(金益聖) 고신(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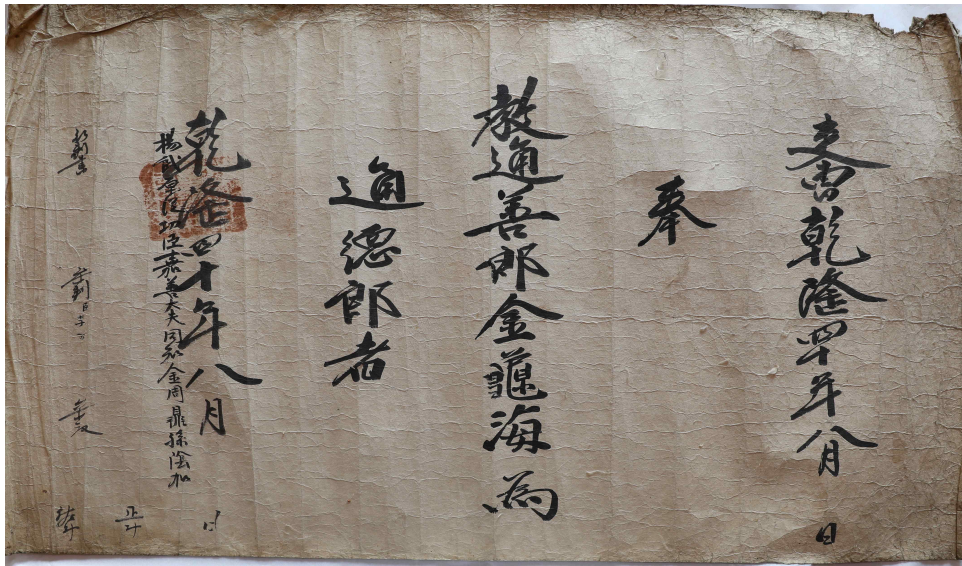


[그림 6] 1774년(英祖50) 김익성(金益聖) 고신(告身)

<p>敎旨 金益聖爲 嘉善大夫 者 乾隆三十九年 月 日 年八十 特爲加資事承 傳 [施命之寶] 1顆</p>	<p>교지 김익성(金益聖)을 가선대부에 임명함. 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 나이가 80이 되어 특별히 가자(加資)⁸³할 일. 왕의 명령을 따름. [시명지보] 1과</p>
--	--

83) 加資:資級이나 品階를 올려주는 것을 뜻한다. 자급은 벼슬아치의 職品과 官階를 뜻한다. 관리들이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나 임금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

(5) 1775년(英祖51)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그림 7] 1775년(英祖51)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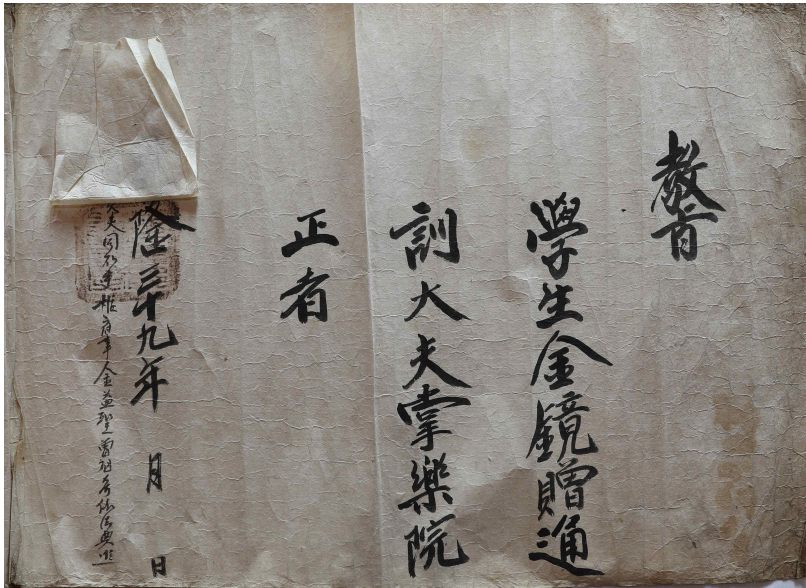
<p>吏曹乾隆四十年八月 日 奉 教通善郎金龜海爲 通德郎者 乾隆四十年八月 日 揚武原從功臣嘉善大夫同知金周鼎孫蔭加 正郎 行判書 參判臣李[着名] 參議 佐郎 [吏曹之印] 1顆</p>	<p>이조 건륭40년(英祖51, 1775) 8월 일 임금의 명을 받들어 통선랑(通善郎) 김귀해를 통덕랑(通德郎)에 임명함. 건륭40년 8월 일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⁸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同知) 김주정(金周鼎)의 손자를 음직(蔭職)⁸⁵⁾으로 가자함. 정랑 행판서 참관 신 이[착명] 참의 좌랑 [이조지인] 1과</p>
---	--

운 일이 생겼을 때, 반란이 평정되었을 때 같은 경우에도 행해졌다.

84) 揚武原從功臣:1728년(英祖4) 李麟佐의 난 때 참전하여 공을 세운 의병 대표 16인의 공을 治下해

2) 추증교지

(1) 1774년(英祖50) 김경(金鏡) 추증교지(追贈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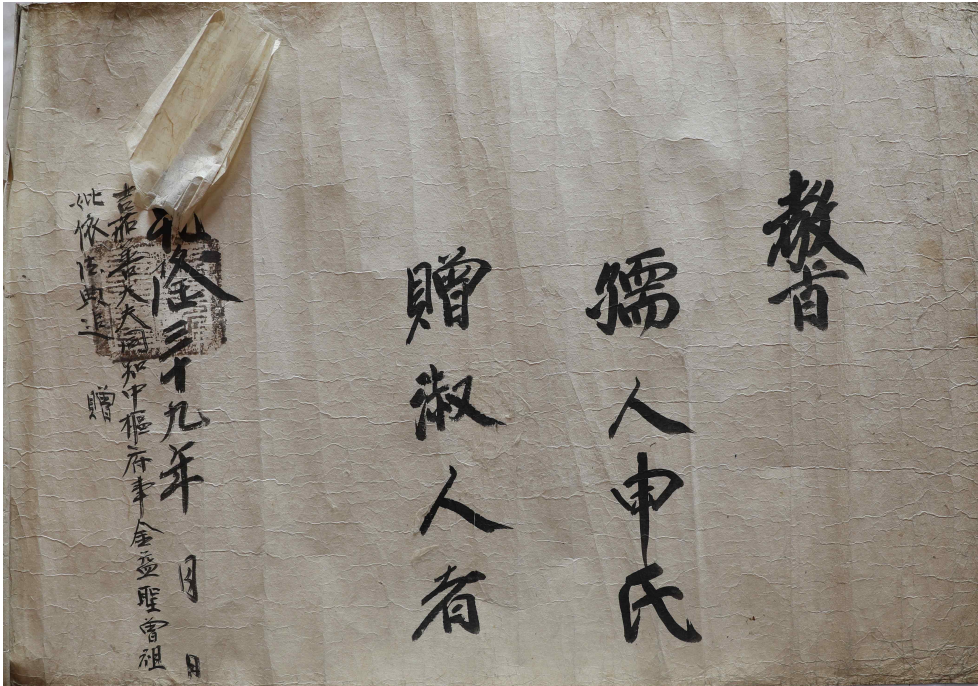
[그림 8] 1774년(英祖50) 김경(金鏡) 추증교지(追贈教旨)

<p>教旨</p> <p>學生金鏡贈通</p> <p>訓大夫掌樂院</p> <p>正者</p> <p>乾隆三十九年 月 日</p> <p>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曾祖考依法 典追</p> <p>贈</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학생(學生) 김경(金鏡)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추증(追贈)함.</p> <p>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p> <p>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익성(金益聖)의 돌아가신 증조부로 『경국대전』 추증조에 의거함.</p> <p>[시명지보] 1과</p>
--	--

揚武原從功臣이라 錄勳하였다.

85) 蔭加:先世에 功勳이 있을 때, 그 자손에게 推恩하여 官品을 내리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과거제도가 강화되어 官僚制적 성격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공신이나 3품 이상의 고관 자손 및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蔭敍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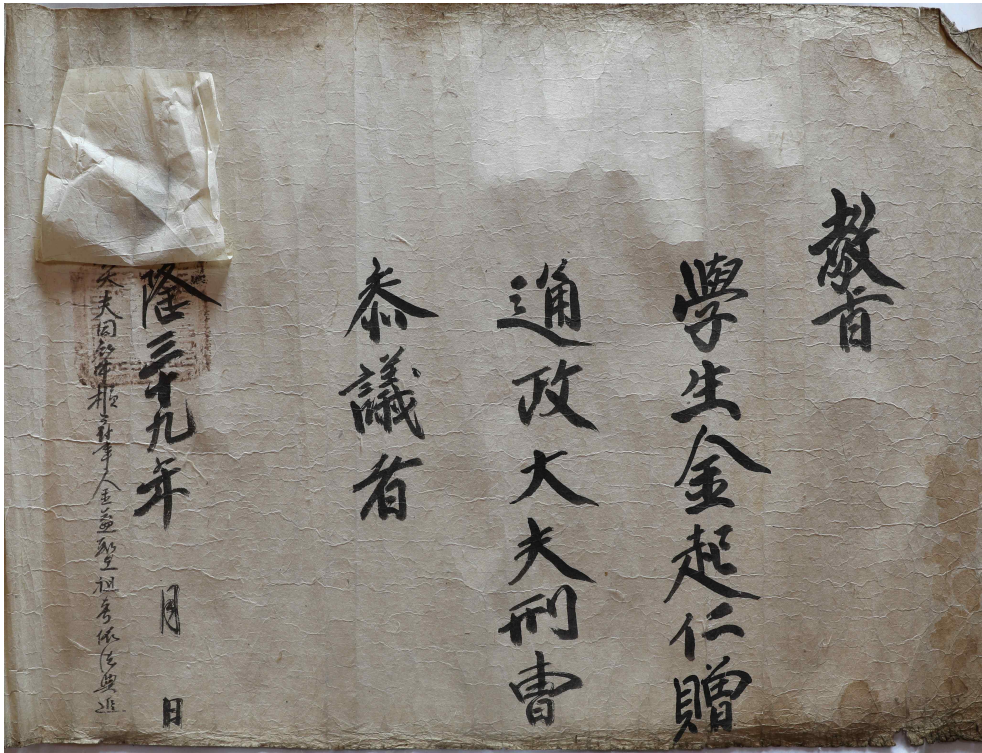
(2) 1774년(英祖50) 유인신씨(孺人申氏) 추증교지(追贈教旨)



[그림 9] 1774년(英祖50) 유인신씨(孺人申氏) 추증교지(追贈教旨)

<p>教旨</p> <p>孺人申氏</p> <p>贈淑人者</p> <p>乾隆三十九年 月 日</p> <p>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曾祖</p> <p>妣依法典追</p> <p>贈</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유인신씨(孺人申氏)를 숙인(淑人)으로 추증함.</p> <p>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p> <p>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김익성(金益聖)의 돌아가신 증조모로 『경국대전』 추증조에 의거함.</p> <p>[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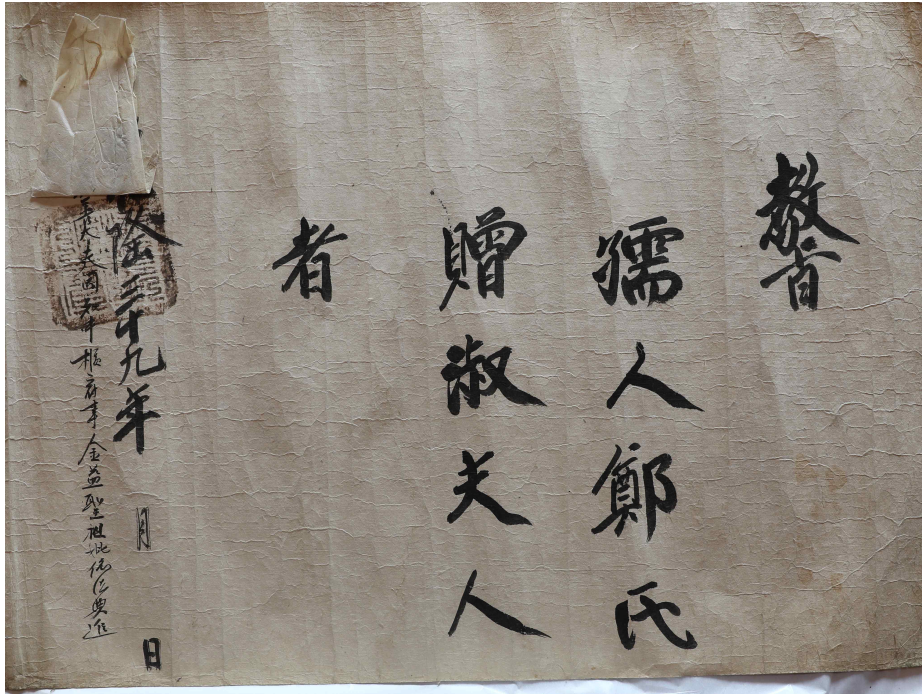
(3) 1774년(英祖50) 김기인(金起仁) 추증교지(追贈教旨)



[그림 10] 1774년(英祖50) 김기인(金起仁) 추증교지(追贈教旨)

<p>教旨</p> <p>學生金起仁贈</p> <p>通政大夫刑曹</p> <p>參議者</p> <p>乾隆三十九年 月 日</p> <p>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祖考依法典</p> <p>追贈</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학생 김기인(金起仁)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추증함.</p> <p>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p> <p>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김익성(金益聖)의 돌아가신 조부로 『경국대전』 추증조에 의거함.</p> <p>[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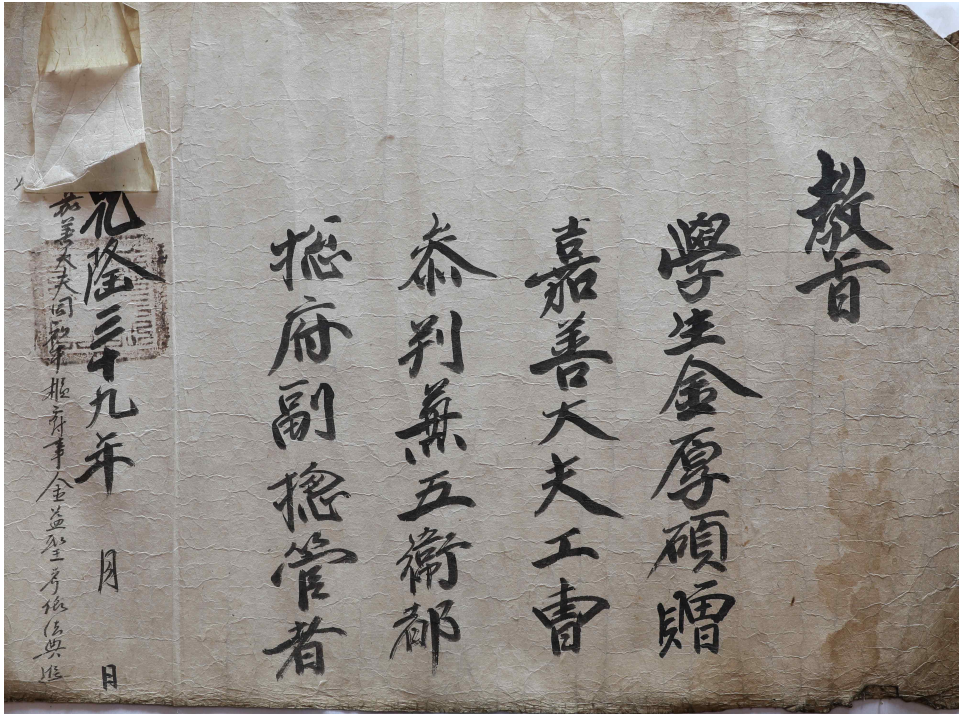
(4) 1774년(英祖50) 유인정씨(孺人鄭氏) 추증교지(追贈教旨)



[그림 11] 1774년(英祖50) 유인정씨(孺人鄭氏) 추증교지(追贈教旨)

<p>教旨 孺人鄭氏 贈淑夫人 者 乾隆三十九年 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祖妣依法典追贈 [施命之寶] 1顆</p>	<p>교지 유인정씨(孺人鄭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함. 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김익성(金益聖)의 돌아가신 조모로 『경국대전』 추증조에 의거함. [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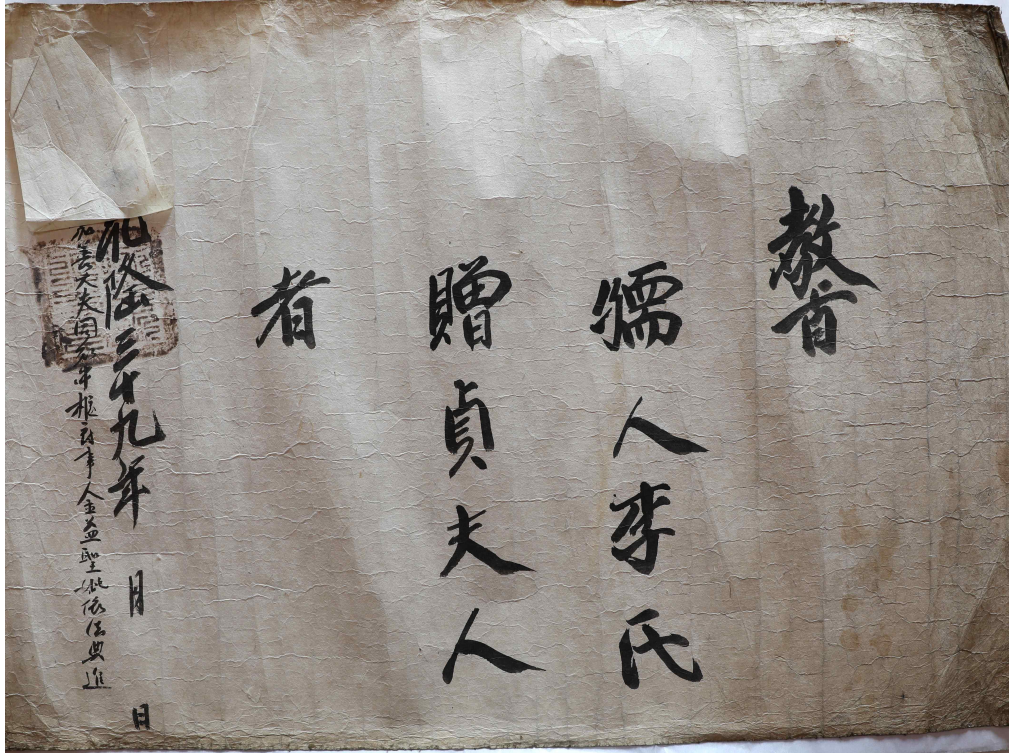
(5) 1774년(英祖50) 김후석(金厚碩) 추증교지(追贈教旨)



[그림 12] 1774년(英祖50) 김후석(金厚碩) 추증교지(追贈教旨)

<p>教旨</p> <p>學生金厚碩贈 嘉善大夫工曹 參判兼五衛都 摠府副摠管者 乾隆三十九年 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考依法典 追 贈</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학생 김후석(金厚碩)을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의(工曹參判) 겸(兼)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함.</p> <p>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김익성(金益聖)의 돌아가신 아버지로 『경국대전』 추증조에 의거함.</p> <p>[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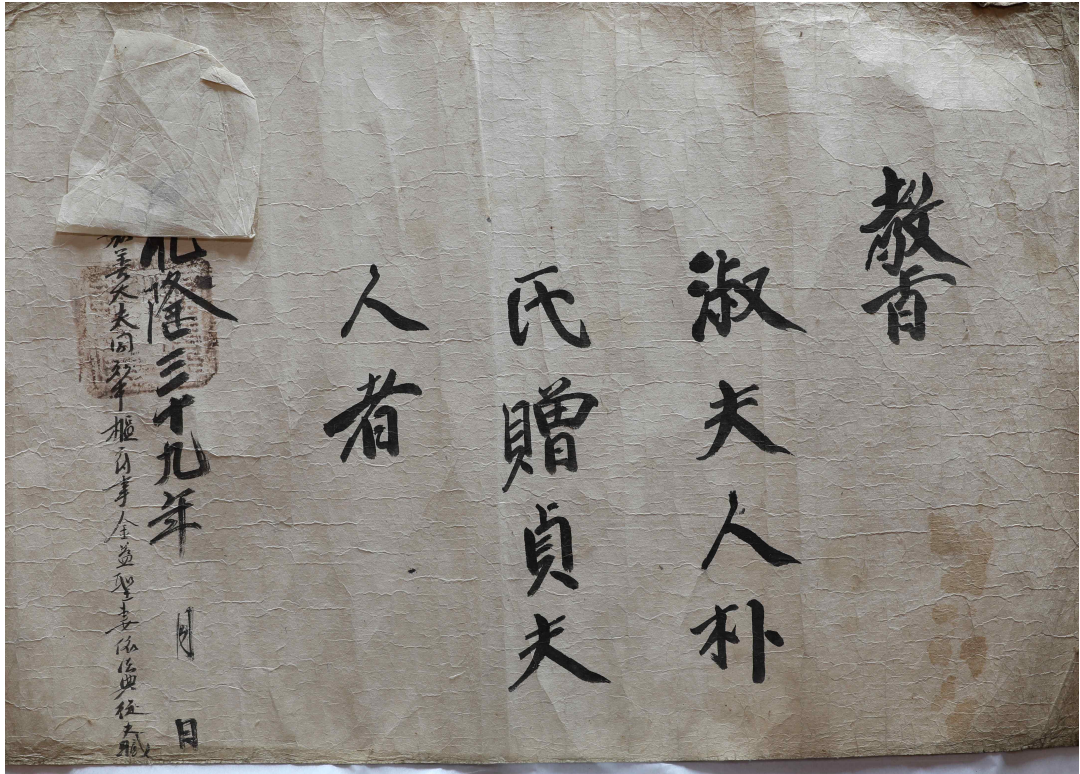
(6) 1774년(英祖50)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教旨)



[그림 13] 1774년(英祖50)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教旨)

<p>教旨 孺人李氏 贈貞夫人 者 乾隆三十九年 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妣依法典追贈</p> <p>[施命之寶] 1顆</p>	<p>교지 유인이씨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함. 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김익성(金益聖)의 돌아가신 어머니로 『경국대전』 추증조에 의거함.</p> <p>[시명지보] 1과</p>
---	--

(7) 1774년(英祖50) 숙부인박씨(淑夫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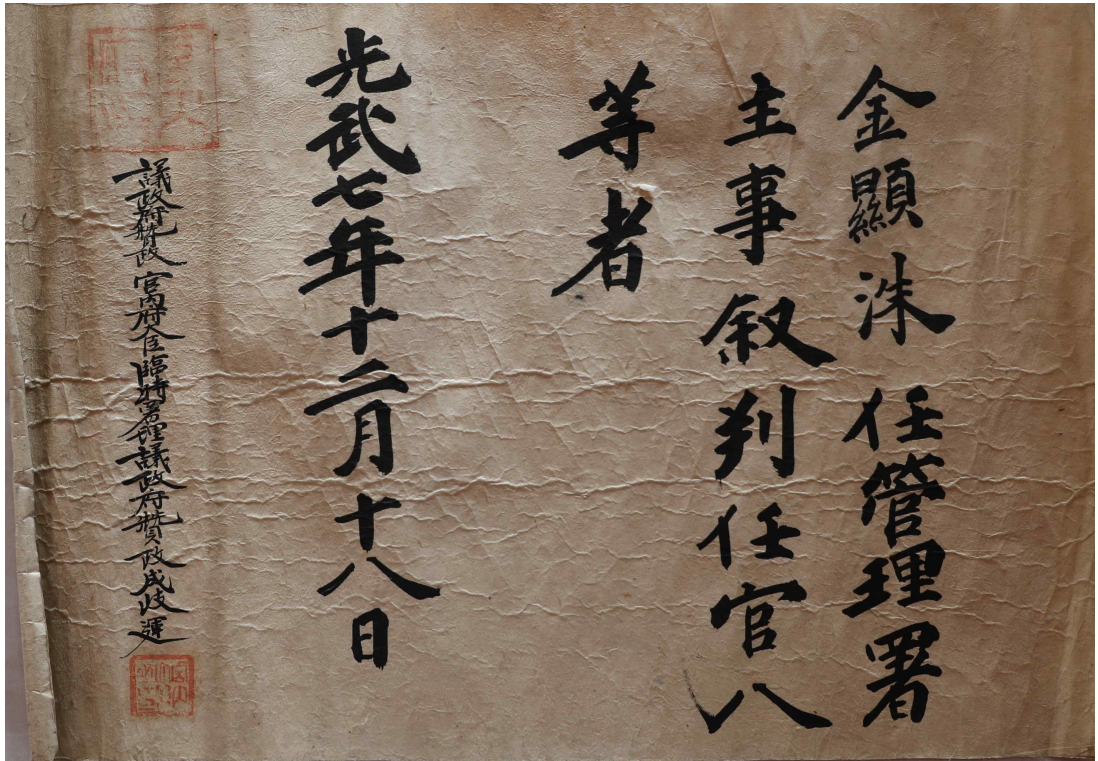


[그림 14] 1774년(英祖50) 숙부인박씨(淑夫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教旨)

<p>教旨 淑夫人朴 氏贈貞夫 人者 乾隆三十九年 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妻依法典從 夫職 [施命之寶] 1顆</p>	<p>교지 숙부인박씨(淑夫人朴氏)를 정부인으로 추증함. 건륭39년(英祖50, 1774) 월 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김익성(金益聖)의 처로 『경국대전』 종부직조에 의거함. [시명지보] 1과</p>
--	--

3) 官誥

(1) 1903년(光武7) 김현수(金顯洙) 관고(官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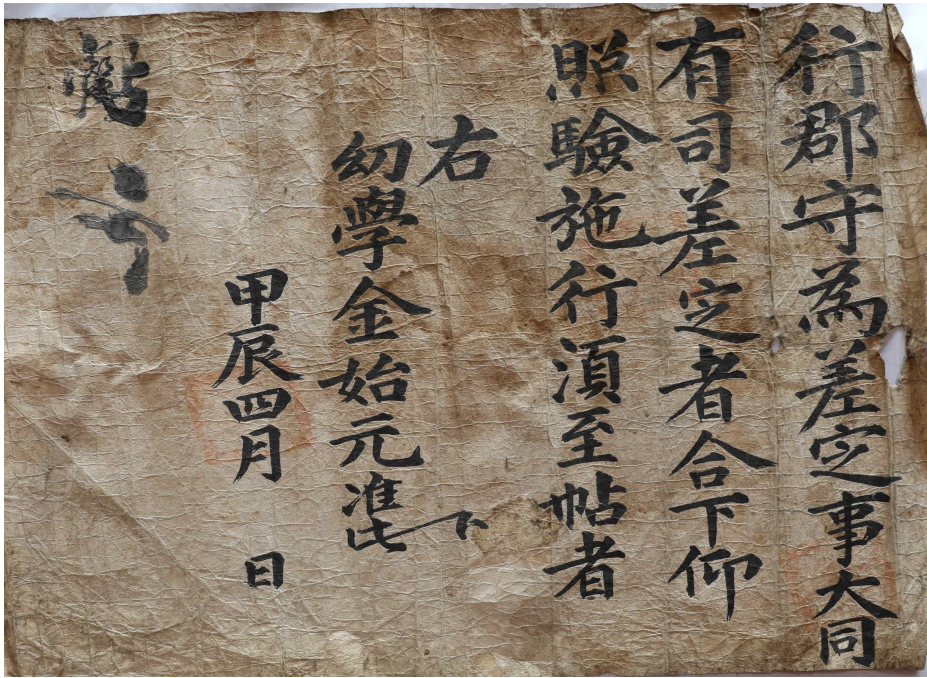


[그림 15] 1903년(光武7) 김현수(金顯洙) 관고(官誥)

<p>金顯洙任管理署 主事叙判任官八 等者 光武七年十二月十八日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 贊政成岐運</p> <p>[宮內府印] 1顆 [宮內大臣之章] 1顆</p>	<p>김현수(金顯洙)를 관리서(管理署) 주사(主事)⁸⁶⁾에 임명하고 판임관(判任官) 8 등⁸⁷⁾의 품계를 줌. 광무7년(1903) 12월 18일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임시서리(臨時署理) 의정부찬정 성기운(成岐運)</p> <p>[궁내부인] 1과 [궁내대신지장] 1과</p>
---	---

4) 差帖

(1) 1784년(正祖8) 김시원(金始元) 차첩(差帖)



[그림 16] 1784년(正祖8) 김시원(金始元) 차첩(差帖)

<p>行郡守為差定事大同 有司差定者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 下 幼學金始元准此 甲辰四月 日 帖 [着押]</p>	<p>행군수가 차정(差定)⁸⁸⁾한 일은 대동유사(大同有司)를 차정한 것. 이에 살펴보아 시행해 차첩이 이름. 이 첩을 내려 유학(幼學) 김시원(金始元)을 이에 따르게 함. 갑진년(正祖8, 1784) 4월 일 첩 [착압]</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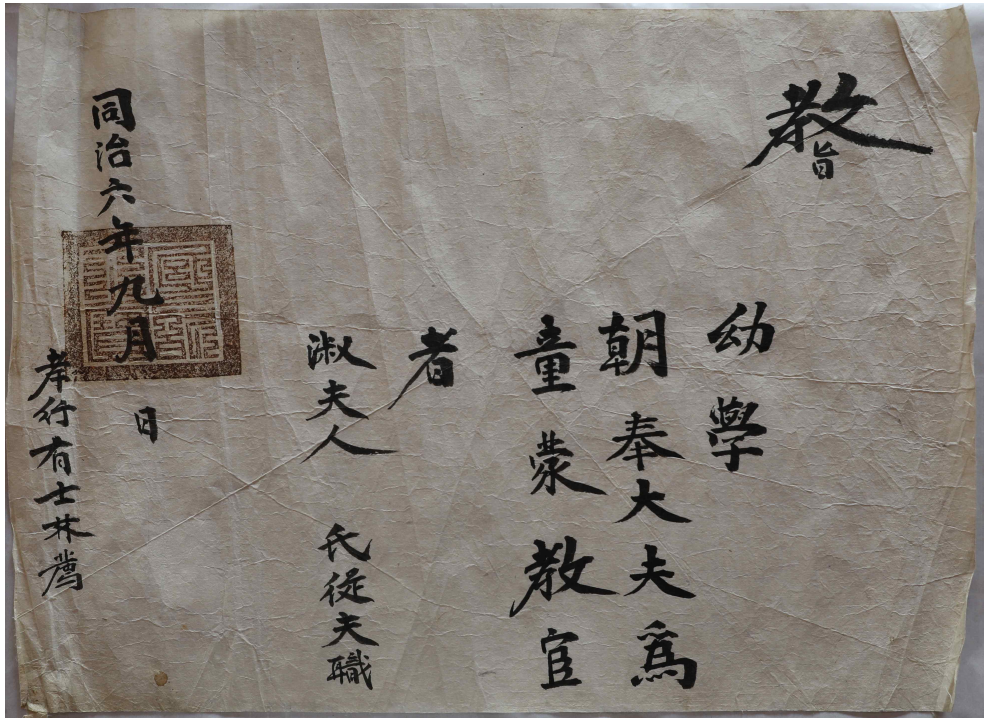
86) 管理署:1902년(光武6) 전국의 寺刹과 山林 및 城堡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宮內府소속의 관청이다. 그러나 1년만에 폐지되어 內部官房으로 업무가 移管되었다가 내부지방국 주관으로 바뀌었다. 직원으로 勅任官인 管理 1명, 칙임이거나 奏任인 副管 1명, 주임관 理事 3명, 判任官 主事 6명을 두었다.

87) 判任官:朝鮮末期 관료의 최하 직계이다. 가장 높은 등수를 1등으로 두었고 가장 말단을 8등으로 두었다.

88) 差定:입명하여 사무를 맡기는 것을 뜻한다.

5) 空名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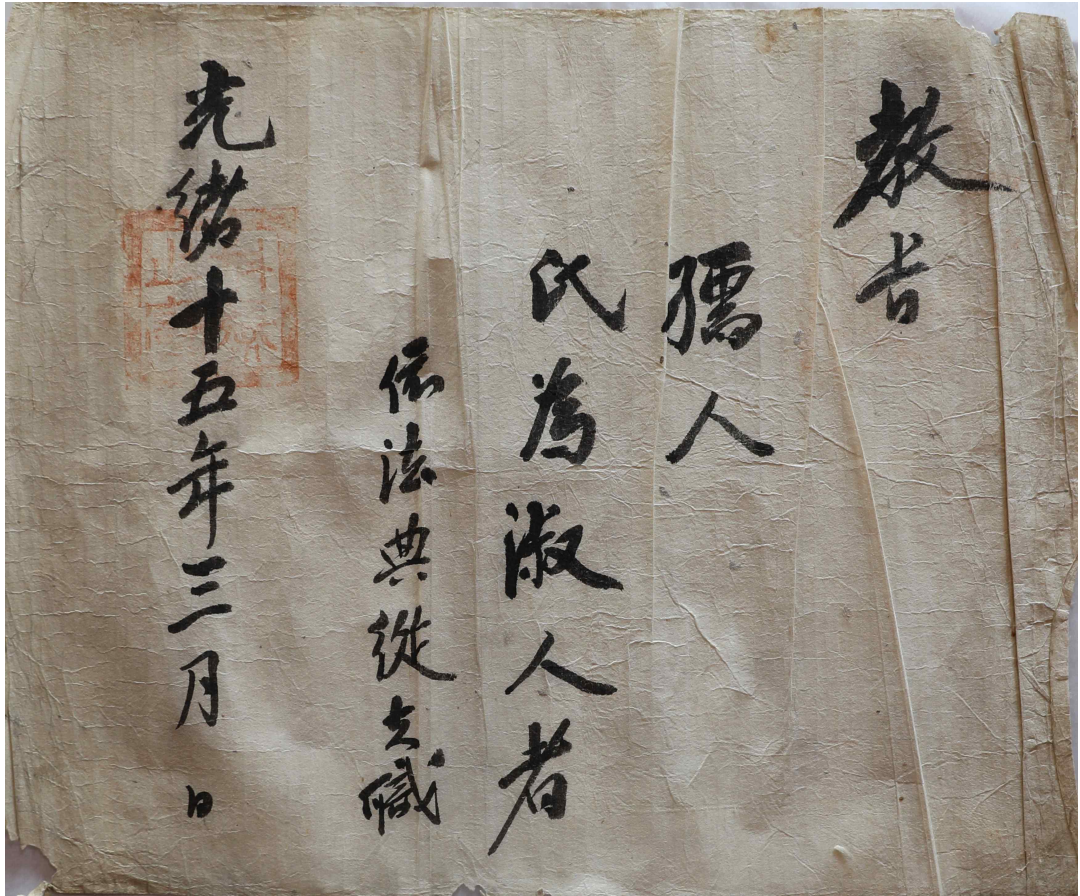
(1) 1867년(高宗4) 공명첩(空名帖)



[그림 17] 1867년(高宗4) 공명첩(空名帖)

<p>教旨 幼學 朝奉大夫爲 童蒙教官 者 淑夫人 氏從夫職 同治六年九月 日 孝行有士林薦 [施命之寶] 1顆</p>	<p>교지 유학 □□□ 조봉대부를 동몽교관에 임명함. 숙부인 □씨는 남편의 직을 따름. 동치6년(高宗4, 1867) 9월 일 효행으로 사림의 천거가 있음. [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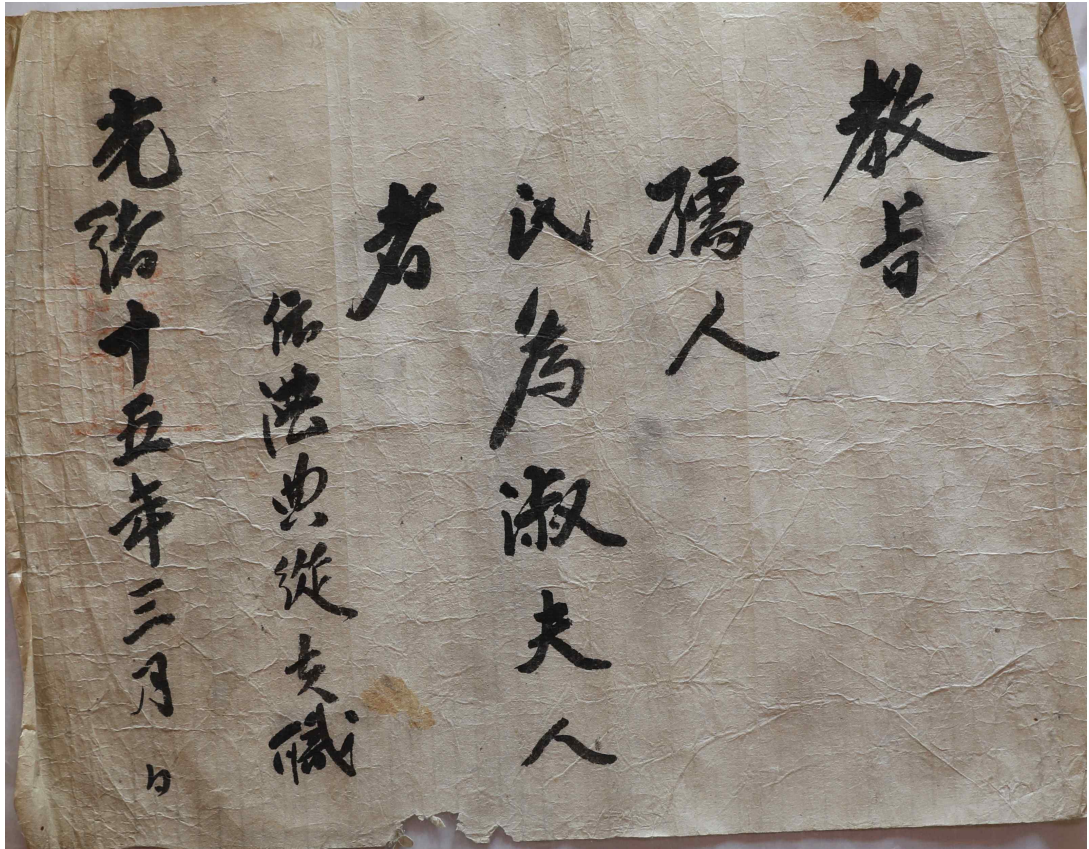
(2)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1



[그림 18]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1

<p>教旨</p> <p>孺人</p> <p>氏爲淑人者</p> <p>依法典從夫職</p> <p>光緒十五年三月 日</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유인 □씨를 숙인으로 임명함.</p> <p>『경국대전』 중부직조에 의거함.</p> <p>광서15년(高宗26, 1889) 3월 일</p> <p>[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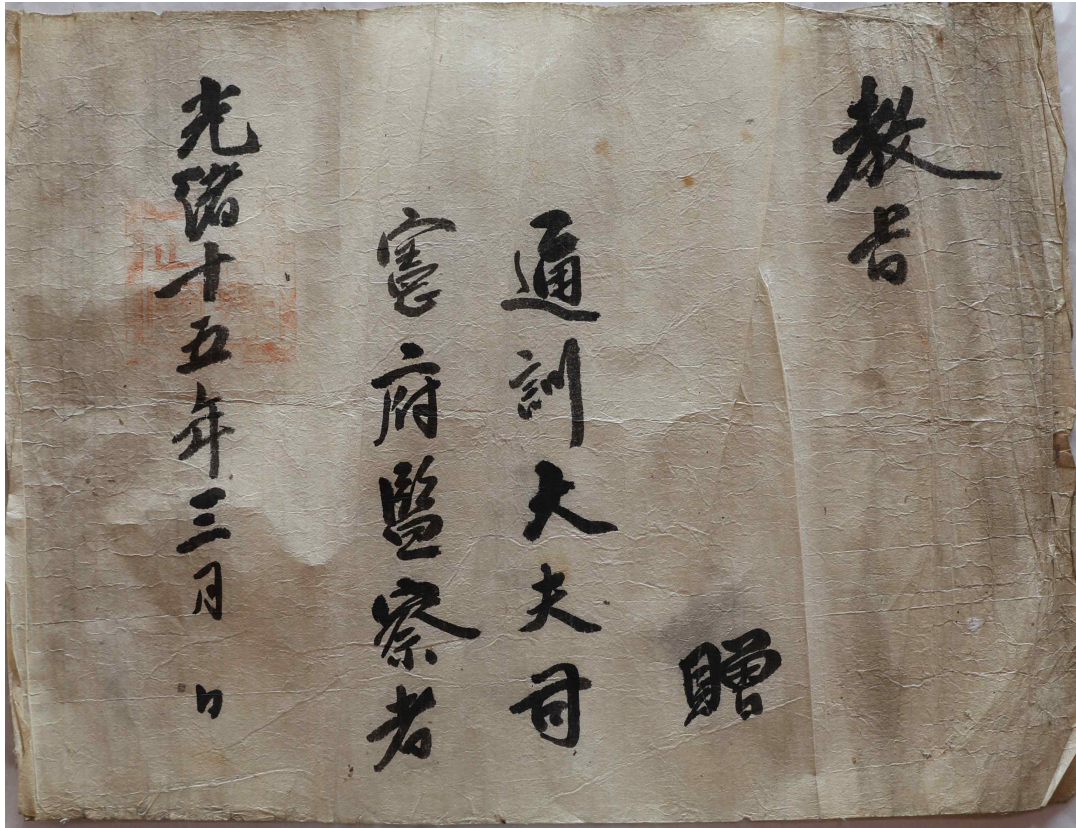
(3)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2



[그림 19]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2

<p>教旨 孺人 氏爲淑夫人 者 依法典從夫職 光緒十五年三月 日 [施命之寶] 1顆</p>	<p>교지 유인 □씨를 숙부인에 임명함. 『경국대전』 종부직조에 의거함. 광서15년(高宗26, 1889) 3월 일 [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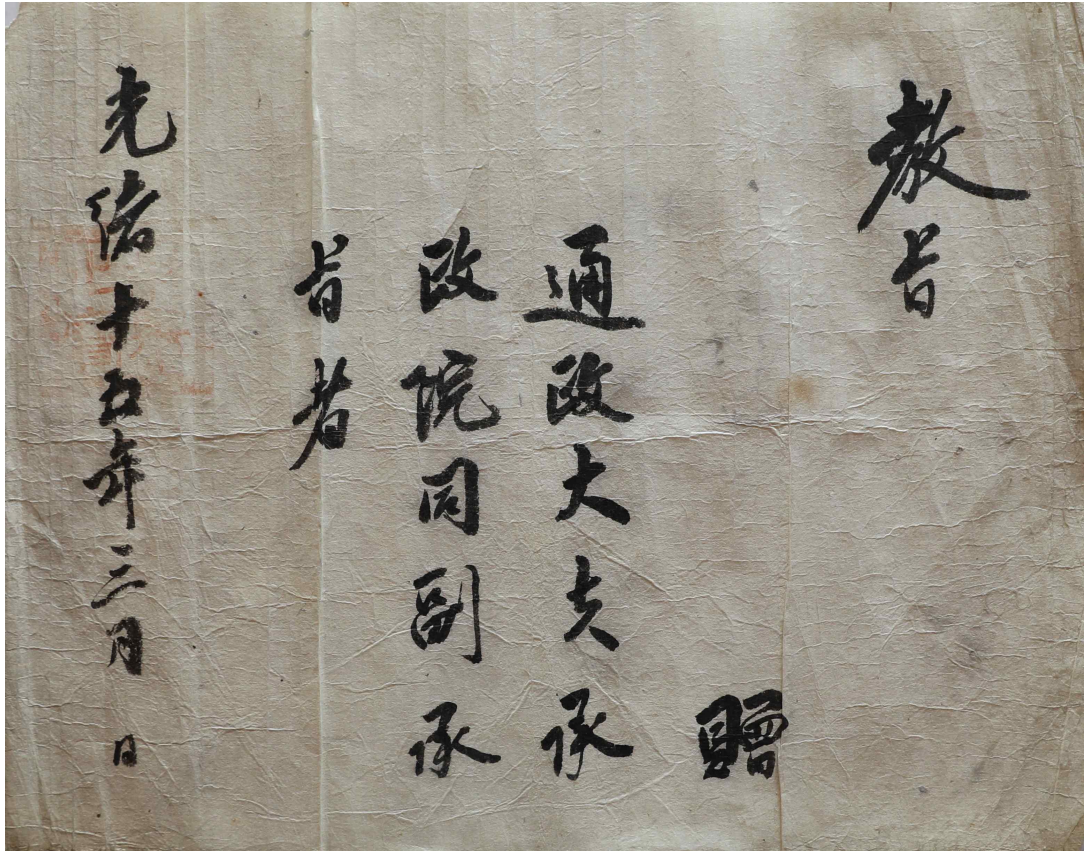
(4)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3



[그림 20]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3

<p>教旨</p> <p>贈</p> <p>通訓大夫司</p> <p>憲府監察者</p> <p>光緒十五年三月 日</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를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추증함.</p> <p>광서15년(高宗26, 1889) 3월 일</p> <p>[시명지보] 1과</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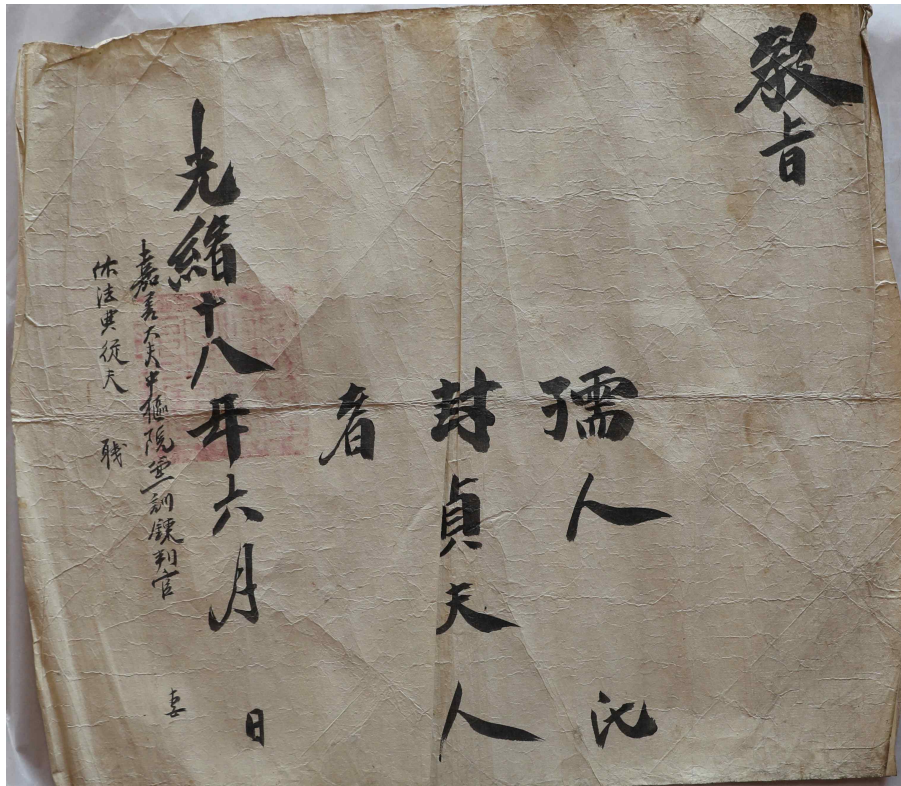
(5)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4



[그림 21] 1889년(高宗26) 공명첩(空名帖) 4

<p>教旨</p> <p>贈</p> <p>通政大夫承</p> <p>政院同副承</p> <p>旨者</p> <p>光緒十五年三月 日</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를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에 추증함.</p> <p>광서15년(高宗26, 1889) 3월 일</p> <p>[시명지보] 1과</p>
--	--

(6) 1892년(高宗29) 공명첩(空名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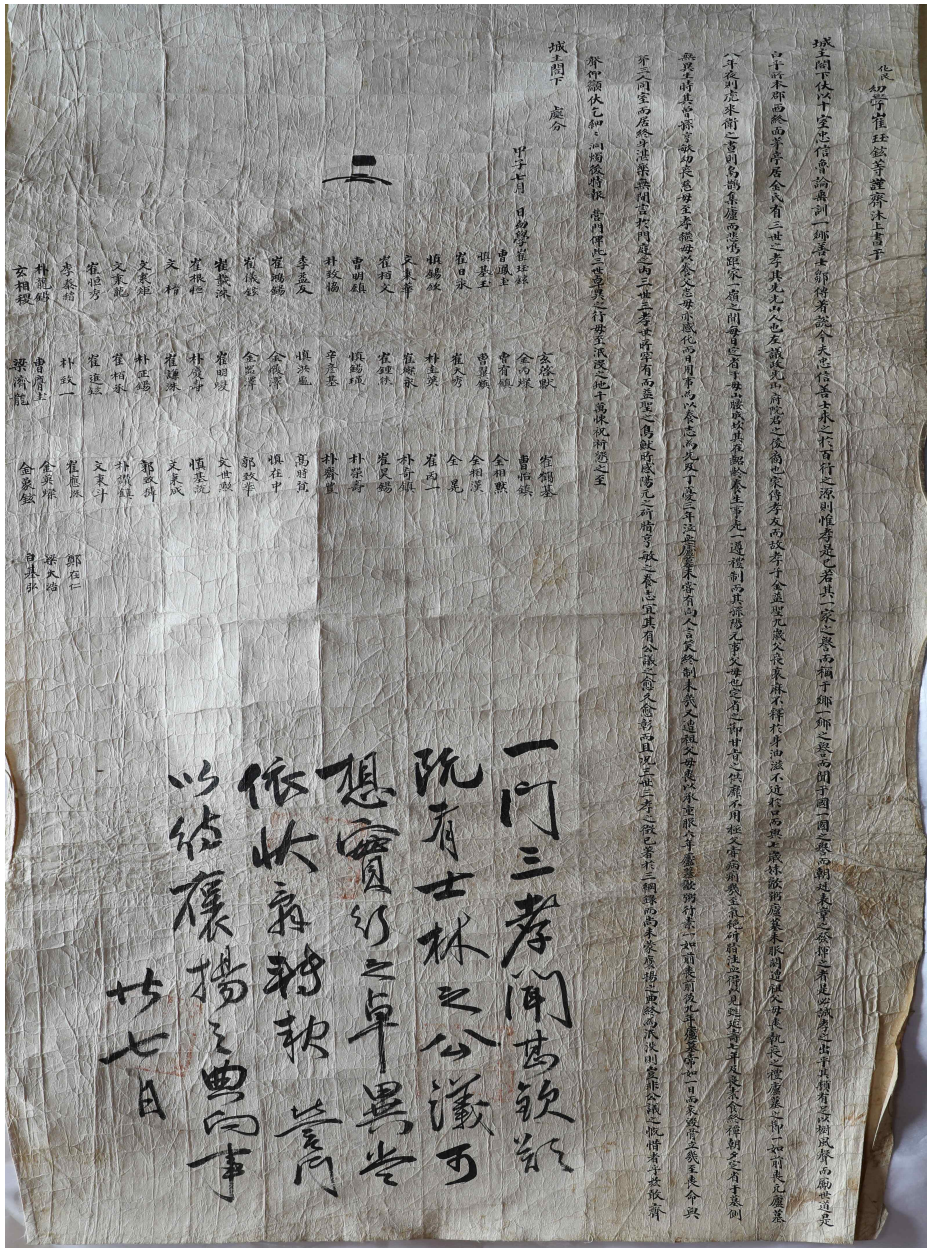
[그림 22] 1892년(高宗29) 공명첩(空名帖)

<p>教旨</p> <p>孺人 氏</p> <p>封貞夫人</p> <p>者</p> <p>光緒十八年六月 日</p> <p>嘉善大夫中樞院兼訓練判官 妻</p> <p>依法典從夫 職</p> <p>[施命之寶] 1顆</p>	<p>교지</p> <p>유인 □씨를 정부인에 봉함.</p> <p>광서18년(高宗29, 1892) 6월 일</p> <p>가선대부 중추원 겸 훈련판관 □□□ 처로</p> <p>『경국대전』 중부직조에 의거함.</p> <p>[시명지보] 1과</p>
---	--

2. 疏劄啓狀類

1) 所志

(1) 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1



[그림 23] 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1

化民幼學崔珪鉉等 謹齊沐上書于

城主閣下 伏以十室忠信 魯論垂訓 一鄉善士 鄒傳著說 今夫忠信善士 求之於百行之源 則惟孝是已 若其一家之譽 而稱于鄉 一鄉之譽 而聞于國 一國之譽 而朝廷表章之發揮之者是必誠孝之出乎 其類有足以 樹風聲 而勵世道是/白乎所 本郡西終面茅亭居金氏 有三世之孝 其先光山人也 左議政光山府院君之後裔也 家傳孝友 而故孝子金益聖 九歲父喪 衰麻不釋於身 油滋不近於口 而與七歲妹歔粥廬墓 未服闋遭祖父母喪 執喪之禮 廬墓之節 一如前喪 凡廬墓/八年 夜則虎來衛之 晝則烏鵲集廬而悲鳴 距家一嶺之間 每日定省于母 山腰成坎 其在齠齡 養生事死 一遵禮制 而其孫陽元 事父母也 定省之節 甘旨之供 靡不用極 父嘗病痢 幾至氣絕 斫脂注血 得以見甦 延壽七年 及喪素食終禫 朝夕定省于墓側/ 無異生時 其曾孫亨敏 幼喪慈母 至孝繼母 以養父志 母亦感化 而日用事爲 以養志爲先及 丁憂三年 泣血廬墓 未嘗有向人言笑 終制未幾 又遭祖父母喪 以承重服六年 廬墓歔粥行素 一如前喪 前後九年 廬墓常如一日 而哀毀骨立 幾至喪命 與/弟三人 同室而居 終身湛樂 無間言於門庭之內 三世三孝 世所罕有 而益聖之鳥獸所感 陽元之斫脂 亨敏之養志 宜其有公議之愈久愈彰 而且況三世三孝之徵 已著於三綱錄 而尚未蒙褒揚之典 終爲泯沒 則豈非公議之慨惜者乎 茲敢齊聲仰籲伏乞細細 洞燭後特報營門 俾此三世卓異之行 毋至泯沒之地 千萬悚祝 祈懇之至

城主閣下 處分

甲子七月 日

幼學崔珪鉉 曹鳳圭 慎基玉 崔日永 慎錫欽 文秉華 崔栢文 曹明鎮 朴致協 李益友 崔鴻錫 崔儀鉉 崔載洙 崔根恒 文 椅 文秉矩 文秉龍 崔恒秀 李泰緒 朴龍錫 玄相稷/ 梁濟龍 曹膺圭 朴致一 崔進鉉 崔栢承 朴正錫 崔謙洙 朴慶壽 崔明煥 金器澤 金履澤 慎洪龜 辛彥基 慎錫璜 崔鍾然 崔燦永 朴圭英 崔大秀 曹翼鎮 曹有鎮 金丙燦 玄啓默/ 崔鶴基 曹怡鎮 全相默 全相漢 全 晃 崔丙一 朴奇鎮 崔昊錫 朴榮壽 朴齊豐 高時贊 慎在中 郭致華 文世勳 慎基說 文秉成 郭致麟 朴讚鎮 文秉斗 崔應洙 金英燦 金象鉉/ 白基弘 梁大浩 鄭在仁

<題辭>

一門三孝 聞甚欽歎/ 既有士林之公議 可/想實行之卓異 當/依狀辭轉報營門/ 以待褒揚之典/向事

廿七日

[着押]

화민(化民) 유학(幼學) 최각현(崔珪鉉) 등이 삼가 목욕재계하고 성주합하(城主閣下)⁸⁹⁾께 상서하옵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열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과 신이 있다.⁹⁰⁾’ 는 말은 『논어』에서 전하는 교훈이고 ‘한 고을의 선량한 선비⁹¹⁾’ 라는 말은 『맹자』의 말씀입니다. 지금 ‘충과 신(忠信)’, ‘선량한 선비(善士)’에서 백 가지 행동의 근원⁹²⁾을 구하면 오직 효일 따름입니다. 만약 그 일가의 명예를 마을에서 칭하고, 그 마을의 명예를 나라에서 듣고, 그 나라의 명예를 조정에서 표장(表章)⁹³⁾하는 것은 반드시 지극한 효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 무리는 충분히 ‘선행을 드러내고 악행을 반성하게 하여 좋은 풍격과 명성을 수립하게⁹⁴⁾’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에 힘쓸 것입니다. 본군 서종면(西終面) 모정(茅亭)에 사는 김씨가문에 삼대의 효자가 있습니다. 그 선조는 광산인으로 좌의정(左議政)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金國光)의 후예입니다. 가문에서 전해지는 효우(孝友)로 죽은 효자 김익성(金益聖)이 9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거친 베로 만든 상복(喪麻)을 입은 채 자리에 앉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다. 7세인 누이와 함께 죽을 마시며 여묘살이를 하다가, 상을 다 마치기도 전에 조부모의 상을 만나 집상(執喪)⁹⁵⁾의 예로 여묘살이를 하면서 이전의 상과 같게 하였습니다. 여묘살이를 한지 8년 쟤가 되자 밤이면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고, 낮이면 까치와 까마귀가 날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집이 한 고개가 떨어진 곳에 있어도 매일같이 아침이면 어머니께 안부를 묻기 위해 산허리 굽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실 때에는 봉양을 잘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도 산 사람 모시듯 잘하며 한결같이 예에 준수하였습니다. 그 손자인 김양원(金陽元)은 부모님을 모실 때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 정리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인사를 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봉양하기를 온 마음과

89) 城主閣下:군수를 높혀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영암군수를 뜻한다.

90) ‘열 가구가 …… 충과 신이 있다.’:“十室忠信.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 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論語』 「公治長篇」.

91) ‘한 고을의 선량한 선비’:“一鄉善士. 孟子謂萬章曰, 一鄉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 一國之善士, 斯友一國之善士. 天下之善士, 斯友天下之善士.” 『孟子』 「萬章下篇」.

92) 백 가지 행동의 근원:“百行之源. 孝爲百行之源.” 『童蒙先習』.

93) 表章: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내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함을 뜻한다. 또는 그것에 대하여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 따위를 주는 것이다. 表彰.

94) ‘선행을 드러내고 …… 수립하게’:“樹風聲. ‘彰善癉惡, 樹之風聲’.” 『尙書』.

95) 執喪:부모의 居喪 중에 喪祭를 주관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설사병⁹⁶에 걸려서 거의 기절하였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 다시 살려서 7년이나 수명을 늘렸습니다. 상을 당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담제(禫祭)⁹⁷가 끝나도 아침저녁으로 묘 옆에서 정성을 하기를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했습니다. 그 증손자인 김형민(金亨敏)은 어려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을 당했으나 계모에게 지극히 효도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봉양하여 어머니 또한 감화(感化)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일을 하듯이 하였고, 그 뜻을 따라 봉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부모의 삼년상을 당하고서는 피를 토할 것처럼 울면서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사람을 보고 말하거나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상을 마치지 않았는데 또 조부모의 상을 당해 중복(重服)으로 이어서 6년동안 여묘살이를 하며 죽을 마시고 고기 없는 밥을 먹으며 이전의 상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전후로 9년간 여묘살이를 하기를 항상 첫날과 같게 하여 몸이 상해 피골이 상접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아우 셋과 같은 방에서 지내며 살고, 죽을 때까지 평화롭고 화목하게 즐기며 지내기를 마을 안에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삼대에 걸친 세 명의 효자는 세상에서 매우 드문 일로 김익성의 새와 짐승들이 감응한 일, 김양원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수명을 연장한 일, 김형민의 뜻을 받들어 봉양한 일은 마땅히 그 공의가 오래되고 밝으며 더군다나 삼대의 삼효의 증거가 이미 삼강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직 포양의 은전을 받지 못하고 끝내 묻히면 어찌 사람들이 분하고 서운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입을 모아 소리내며 청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데 성주합하께서 특별하게 삼대 삼효자의 기록을 살피시어 영문에 보고하여 이 삼대에 걸친 삼효자의 탁이한 행실이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번 만번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성주합하 처분.

갑자년(高宗1, 1864) 7월 일

유학 최각현(崔珪鉉), 조봉규(曹鳳圭), 신기옥(愼基玉), 최일영(崔日永), 신석흠(愼錫欽), 문병화(文秉華), 최백문(崔栢文), 조명진(曹明鎭), 박치협(朴致協), 이익우(李益友), 최홍석(崔鴻錫), 최의현(崔儀鉉), 최재수(崔載洙), 최근항(崔根恒), 문육(文楮), 문병구(文秉

96) 설사병:痢症. 대변에 끈적한 곱과 피가 섞여 나오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세이다. 심하면 항문이 빠져나오며 정신이 피곤하고 무력하며 살이 마르고 식욕이 줄어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痢疾.

97) 禫祭:3년의 상을 지내는 기간이 끝나고 상주가 平常으로 돌아감을 고하는 제례의식이다. 담제는 부모상을 비롯하여 손자가 지내는 조부상과 남편상, 부인상일 때만 지낸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일 경우 大祥 후 3개월째, 즉 상 후 27개월이 되는 달의 丁日 또는 亥日에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지내는 담제는 상 후 15개월 만에 지내는데, 즉 小祥 후 2개월째가 된다. 담제가 끝나야 비로소 음주와 육식을 할 수 있다.

矩), 문병용(文秉龍), 최항수(崔恒秀), 이태서(李泰緒), 박용석(朴龍錫), 현상직(玄相稷), 양제용(梁濟龍), 조응규(曹膺圭), 박치일(朴致一), 최진현(崔進鉉), 최백승(崔栢承), 박정석(朴正錫), 최겸수(崔謙洙), 박경수(朴慶壽), 최명환(崔明煥), 김기택(金器澤), 김리택(金履澤), 신흥구(愼洪龜), 신언기(辛彦基), 신석황(愼錫璜), 최중휴(崔鍾休), 최찬영(崔燦永), 박규영(朴圭英), 최대수(崔大秀), 조익진(曹翼鎭), 조유진(曹有鎭), 김병찬(金丙燦), 현계묵(玄啓默), 최학기(崔鶴基), 조이진(曹怡鎭), 전상묵(全相默), 전상한(全相漢), 전황(全晃), 최병일(崔丙一), 박기진(朴奇鎭), 최호석(崔昊錫), 박영수(朴榮壽), 박계풍(朴齊豐), 고시찬(高時贊), 신재중(愼在中), 곽치화(郭致華), 문세훈(文世勳), 신기설(愼基說), 문병성(文秉成), 곽치린(郭致麟), 박찬진(朴讚鎭), 문병두(文秉斗), 최응수(崔應洙), 김영찬(金英燦), 김상현(金象鉉), 백기홍(白基弘), 양대호(梁大浩), 정재인(鄭在仁).

<데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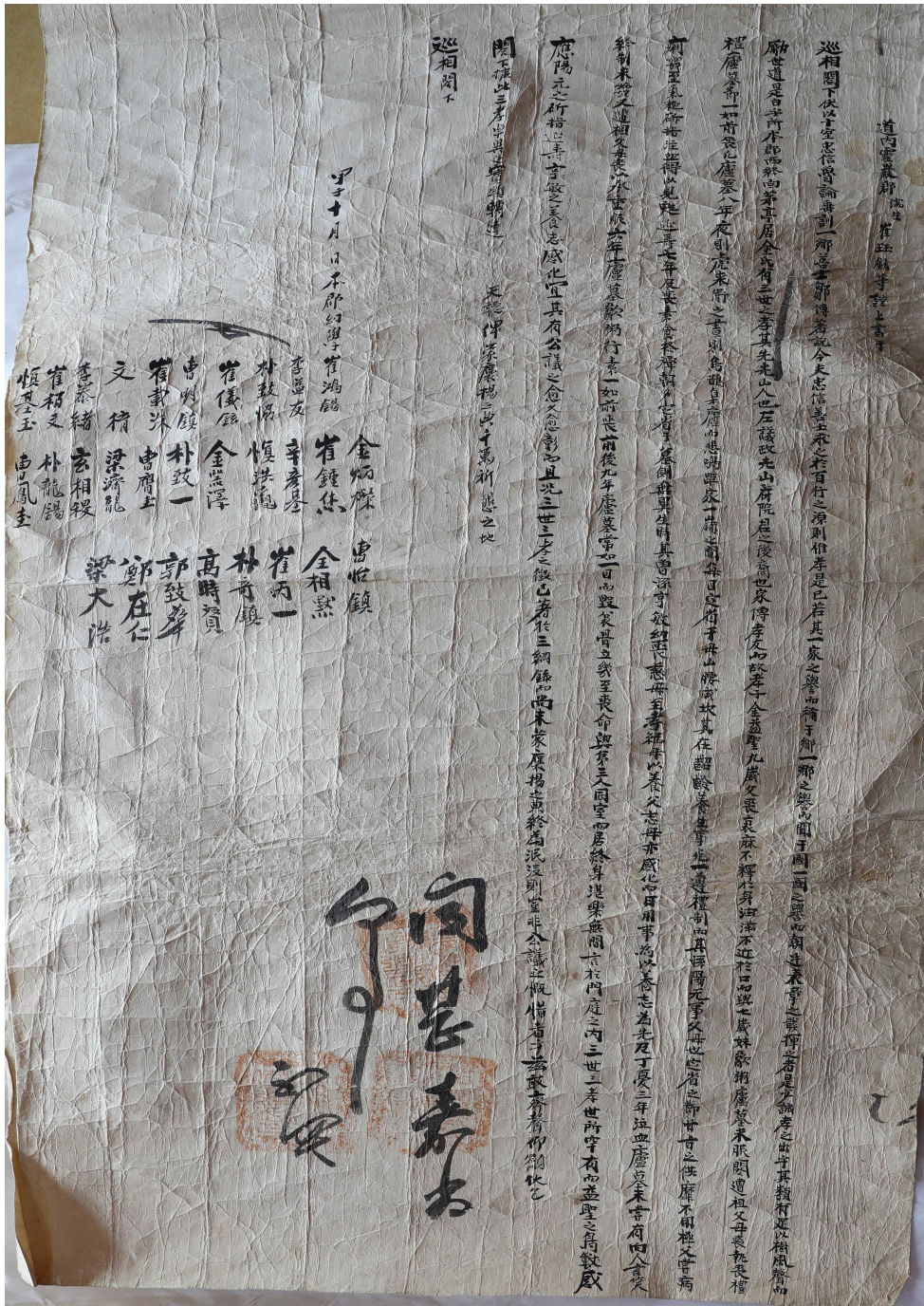
한 가문에 삼효가 있다니 듣기에 매우 감탄스럽다. 이미 사람의 공의가 있고 탁이한 행실이 가상하여 마땅히 장사(狀辭)⁹⁸에 의거하여 영문(營門)에 보고할 것이니 포양(褒揚)하는 은전(恩典)을 기다릴 일

27일

[착암]

98) 狀辭: 訴狀이나 狀啓에 적힌 사연.

(2) 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2



[그림 24] 1864년(高宗1) 최각현(崔珪鉉) 등 상서(上書) 2

道內靈巖郡儒生崔珪鉉等 謹上書于

巡相閣下 伏以十室忠信 魯論垂訓 一鄉善士 鄒傳著說 今夫忠信善士 求之於百行之源 則惟孝是已 若其一家之譽 而稱于鄉 一鄉之譽 而聞于國 一國之譽 而朝廷表章之發揮之者是必誠孝之出乎 其類有足以樹風聲 而勵世道 是白乎所 本郡西終面茅亭居金氏 有三世之孝 其先光山人也 左議政光山府院君之後裔也 家傳孝友 而故孝子金益聖 九歲父喪 衰麻不釋於身 油滋不近於口 而與七歲妹歠粥 廬墓未服闋 遭祖父母喪 執喪禮/禮廬墓 節一如前喪 凡廬墓八年 夜則虎來衛之 晝則烏鵲集廬而悲鳴 距家一嶺之間 每日定省于母 山腰成坎 其在齠齡 養生事死 一遵禮制 而其孫陽元 事父母也 定省之節 甘旨之供 靡不用極 父嘗病痢 幾至氣絕 斫指注血 得以見甦 延壽七年 及喪素食 終禫朝夕 定省于墓側 無異生時 其曾孫亨敏 幼喪慈母 至孝繼母 以養父志 母亦感化 而日用事爲 以養志爲先及 丁憂三年 泣血廬墓 未嘗有向人言笑/ 終制未幾 又遭祖父母喪 以承重服 六年廬墓 歠粥行素 一如前喪 前後九年 廬墓常如一日而毀哀骨立 幾至喪命 與弟三人 同室而居 終身湛樂 無間言於門庭之內 三世三孝 世所罕有 而益聖之鳥獸感/應 陽元之斫指延壽 亨敏之養志感化 宜其有公議之愈久愈彰 而且況三世三孝之徵 已著於三綱錄 而尚未蒙褒揚之典 終爲泯沒 則豈非公議之慨惜者乎 茲敢齊聲仰籲 伏乞/閣下 據此三孝卓異之實蹟 轉達 天聽俾蒙褒揚之典 千萬祈懇之地

巡相閣下

甲子十月 日

本郡幼學崔鴻錫 李益友 朴致協 崔儀鉉 曹明鎮 崔載洙 文 槓 李泰緒 崔栢文 愼基玉 曹鳳圭 朴龍錫 玄相稷 梁濟龍 曹膺圭 朴致一 金器澤 愼洪龜 辛彥基 崔鍾然 金炳燦 曹怡鎮 全相默 崔丙一 朴奇鎮 高時贊 郭致華 鄭在仁 梁大浩

<題辭>

聞甚嘉尚/向事

初四日

[着押]

도내 영암군 유생 최각현 등이 삼가 순상합하(巡相閣下)99)께 상서하옵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열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과 신이 있다.’는 말은 『논어』

에서 전하는 교훈이고 ‘한 고을의 선량한 선비’라는 말은 『맹자』의 말씀입니다. 지금 ‘충과 신(忠信)’, ‘선량한 선비(善士)’에서 백 가지 행동의 근원에서 구하면 오직 효일 따름입니다. 만약 그 일가의 명예를 마을에서 칭하고, 그 마을의 명예를 나라에서 듣고, 그 나라의 명예를 조정에서 표장하는 것은 반드시 지극한 효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 무리는 충분히 ‘선행을 드러내고 악행을 반성하게 하여 좋은 풍격과 명성을 수립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에 힘쓸 것입니다. 본군 서종면 모정에 사는 김씨 가문에 삼대의 효자가 있습니다. 그 선조는 광산인으로 좌의정 광산부원군(金國光)의 후예입니다. 가문에서 전해지는 효우로 죽은 효자 김익성이 9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거친 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자리에 앉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다. 7세인 누이와 함께 죽을 마시며 여묘살이를 하다가, 상을 다 마치기도 전에 조부모의 상을 만나 집상의 예로 여묘살이를 하면서 이전의 상과 같게 하였습니다. 여묘살이를 한지 8년 쟸가 되자 밤이면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고, 낮이면 까치와 까마귀가 날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집이 한 고개가 떨어진 곳에 있어도 매일같이 아침이면 어머니께 안부를 묻기 위해 산허리 굽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실 때에는 봉양을 잘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도 산 사람 모시듯 잘하며 한결같이 예를 준수하였습니다. 그 손자인 김양원은 부모님을 모실 때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 정리해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인사를 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봉양하기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설사병에 걸려서 거의 기절하였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 다시 살려서 7년이나 수명을 늘렸습니다. 상을 당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담제가 끝나도 아침저녁으로 묘 옆에서 정성을 하기를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했습니다. 그 증손자인 김형민은 어려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을 당했으나 계모에게 지극히 효도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봉양하여 어머니 또한 감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일을 하듯이 하였고, 그 뜻을 따라 봉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부모의 삼년상을 당하고서는 피를 토할 것처럼 울면서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사람을 보고 말하거나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상을 마치지 않았는데 또 조부모의 상을 당해 중복(重服)으로 이어서 6년동안 여묘살이를 하며 죽을 마시고 고기 없는 밥을 먹

99) 巡相閣下:순상은 巡察使의 별칭이다. 합하를 붙여 상대를 높이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서는 全羅道觀察使를 뜻한다. 순찰사는 원래 파견직으로 朝鮮後期에 들어 從二品에 한정되었다. 원래는 군사와 국방 분야에 관련된 임무를 띄웠으나 점차 다양한 명목으로 파견되었다. 그 이후로 각 도의 최고 민정, 군정 책임자이던 관찰사와 절제사의 업무와 혼선이 빚어지게 되어 후기에 들어서는 왕과 직접 연결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관찰사에게 겸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의 監營이 巡營, 즉 순찰사의 영으로 불리는 일이 많았다.

으며 이전의 상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전후로 9년간 여묘살이를 하기를 항상 첫날과
 같게 하였습니다. 몸이 상해 피골이 상접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아우 셋과 같은
 방에서 지내며 살고, 죽을 때까지 평화롭고 화락하게 즐기며 지내기를 마을 안에서 나
 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삼대에 걸친 삼효자는 세상에서 매우 드문 일로 김익성의 새와
 짐승들이 감응한 일, 김양원의 손가락을 잘라 수명을 연장한 일, 김형민의 뜻을 받들어
 봉양한 일은 마땅히 그 공의가 오래되고 밝고 더군다나 삼대 삼효자의 증거가 이미 삼
 강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직 포양의 은전을 받지 못하고 끝내 묻히게 되면 어찌 사
 람들이 분하고 서운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입을 모아 소리내며 청하오니 엇
 드려 바라건데 성주함하께서 특별하게 삼효자의 탁이한 실적을 살피시어 영문에 보고
 하여 포양의 은전이 내리게 해주시기를 천번 만번 간절히 바랍니다.

순상합하.

갑자년(高宗1, 1864) 10월 일

본군 유학 최홍석(崔鴻錫), 이익우(李益友), 박치협(朴致協), 최의현(崔儀鉉), 조명진(曹
 明鎭), 최재수(崔載洙), 문육(文楸), 이태서(李泰緒), 최백문(崔栢文), 신기옥(愼基玉), 조
 봉규(曹鳳圭), 박용석(朴龍錫), 현상직(玄相稷), 양제용(梁濟龍), 조용규(曹膺圭), 박치일
 (朴致一), 김기택(金器澤), 신흥구(愼洪龜), 신언기(辛彦基), 최중휴(崔鍾傑), 김병찬(金炳燦),
 조이진(曹怡鎭), 전상묵(全相默), 최병일(崔丙一), 박기진(朴奇鎭), 고시찬(高時贊),
 곽치화(郭致華), 정재인(鄭在仁), 양대호(梁大浩).

<데김>

듣기에 심히 가상한 일

초4일

[착압]

(3) 1864년(高宗1)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그림 25] 1864년(高宗1)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道內儒生 權克壽 黃稔 吳永周等 謹齋沐上書于

巡相閣下 伏以夫孝也者 人道之所當然 而人皆不得爲孝也者 何則苟無卓異之行 則豈可曰孝子乎 是以一鄉咸稱曰孝子者 有卓異之行而然也 一道皆稱曰孝子者 有出天之誠而然矣 自家而聞於隣 自隣而聞於鄉 自鄉而聞於道 自道而聞於朝 然後可知 其卓異之行也 亦知其出天之誠也 道內靈巖郡金氏一門 有三世之孝 其先光山人也 左議政光山府院君 諱國光之後也 家傳孝友 而故孝子金益聖 九歲父喪 衰麻不釋於身 油滋不近於口 而與七歲妹歠粥廬墓 未服/闋遭祖父母喪 執喪之禮 廬墓之節 一如前喪 凡廬墓八年 夜則虎來衛之 晝則烏鵲集廬悲鳴而距家 一嶺之間 每日定省于母 山腰成坎 其在齠齡 養生事死 一遵禮制 而其孫陽元 事父母也 定省之節 甘旨之供 靡不用極 父嘗病痢 幾至氣絕/斫指注血 得以見甦 延壽七年 及喪素食終禫 朝夕定省于墓側 無異生時 其曾孫亨敏 幼喪慈母 至孝繼母 以養父志 母亦感化 而日用事爲 以養志爲先及 丁憂三 年泣血廬墓 未嘗有向人言笑 終制未幾 又遭祖父母喪 以承重服 六年廬墓 歠粥行/素 一如前喪 前後九年 廬墓常如一日 而哀毀骨立 幾至喪命 而與弟三人 同室而居 終身湛樂 無間言於門庭之內 三世三孝 世所罕有 而益聖之鳥獸所感 陽元之斫指延壽 亨敏之養志之孝 盡是出天之誠 則宜其有公議之愈久愈彰 而且/況三世三孝之徵 已著於三綱錄 而尙未蒙褒揚之典 終爲泯沒 則豈非士林之慨惜者乎 茲敢齊聲 仰籲伏乞/ 閣下特察三世三孝之實蹟 轉達 天聽 使此三世卓異之行 毋至泯沒之地 千萬祈懇屏營之至

巡相閣下

甲子十月 日

全州幼學 權克壽 黃 稔 吳永周 李華成 金翊聲 羅州幼學 羅龍集 林正默 柳榮奎 梁錫浩 崔洛源 光州幼學 李基哲 高濟國 奇相鉉 朴龍休 李南秀 南原幼學 金瓚東 崔遇民 安宗濂 盧溫壽 李基泌/ 康津幼學 趙衡臣 尹喜錫 金堤幼學 李明夏 柳德瑞 錦山進士 權龍五 幼學 吉鐘斗 務安幼學 徐萬孝 羅復煥 海南幼學 尹鐘冕 朴秉直 綾州幼學 梁相浩 金寬喆 寶城幼學 安大鉉 任思國 長興幼學 丁昌運 金懿悅 昌平幼學 鄭 瀝 高濟容 柳 瀟 順天幼學 趙相龍 張基烈 樂安幼學 朴海龍 潭陽幼學 宋益模 李仁煥 古阜幼學 金箕斗 李奎鉉 興德幼學 慎漢喆 井邑幼學 南 瓚 泰仁幼學 金龍祚 任實幼學 柳震喆 靈巖幼學 曹明鎮 崔栢承 郭致麟 慎基玉 崔日永/ 鎮安幼學 黃駟顯 金國老 長水幼學 朴龍錫 權炳日 雲峯幼學 金鍾斗 柳錫祚 長城參奉 奇升奎 幼學 朴眞壽 邊升容 金復煥

<題辭>

聞甚嘉 乃/褒揚之典/ 啓體至重/ 姑難遽議/ 向事

初一日

兼使[着押]

[全羅道觀察使之印] 3顆

도내 유생 권극수(權克壽), 황중(黃稜), 오영주(吳永周) 등이 삼가 목욕재계하고 순상합하게 상서하옵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무릇 효라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 모두가 효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인가 하니, 만약 탁이(卓異)한 행동이 없으면 어찌 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마을에서 함께 효자라 칭하는 것은 탁이한 행실이 있는 까닭이고, 한 도에서 모두 효자라 칭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성품이 있는 까닭입니다. 집으로부터 이웃에 들리고, 이웃에서부터 마을로 들리고, 마을로부터 도(道)에 들리고, 도에서부터 조정에까지 들린 뒤에야 그 탁이한 행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린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영암의 김씨가문에 삼대의 효자가 있습니다. 그 선조는 광산인으로 좌의정 광산부원군 휘 김국광의 후손입니다. 가문에서 전해지는 효우로 죽은 효자 김익성이 9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거친 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자리에 앉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7세인 누이와 함께 죽을 마시며 여묘살이를 하다가, 상을 다 마치기도 전에 조부모의 상을 만나 집상의 예로 여묘살이를 하면서 이전의 상과 같게 하였습니다. 여묘살이를 한지 8년 췌가 되자 밤이면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고, 낮이면 까치와 까마귀가 날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집이 한 고개가 떨어진 곳에 있어도 매일같이 아침이면 어머니께 안부를 묻기 위해 산허리 굽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실 때에는 봉양을 잘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도 산 사람 모시듯 잘하며 한결같이 예를 준수하였습니다. 그 손자인 김양원은 부모님을 모실 때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 정리해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인사를 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봉양하기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설사병에 걸려서 거의 기절하였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 다시 살려서 7년이나 수명을 늘렸습니다. 상을 당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담제가 끝나도 아침저녁으로 묘 옆에서 정성을 하기를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했습니다. 그 증손자인 김형민은 어려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을 당했으나 계모에게 지극히 효도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봉양하여 어머니 또한 감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일을 하듯이 하였고, 그 뜻을 따라 봉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부모의 삼년상을 당하고서는 피를 토할 것처럼 울면서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사람을 보고 말하거나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상을 마치지 않았는데 또 조부모의 상을 당해 중복(重服)으로 이어서 6년동안 여묘살이를 하며 죽을 마시고 고기 없는 밥을 먹으며 이전의 상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전후로 9년간 여묘살이를 하기를 항상 첫날과 같게 하였습니다. 몸이 상해 피골이 상접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아우 셋과 같은 방에서 지내며 살고, 죽을 때까지 평화롭고 화락하게 즐기며 지내기를 마을 안에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삼대에 걸친 삼효자는 세상에서 매우 드문 일로 김익성의 새와 짐승들이 감응한 일, 김양원의 손가락을 잘라 수명을 연장한 일, 김형민의 뜻을 받들어 효도한 일 그 모두가 하늘에서 내린 정성입니다. 마땅히 그 공의가 오래되고 밝고 더군다나 삼대 삼효자의 증거가 이미 삼강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포양(褒揚)의 은전(恩典)을 받지 못하고 끝내 문히게 되면 어찌 사람들이 분하고 서운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입을 모아 소리 내며 청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데 합하께서 특별하게 삼대의 삼효의 기록을 살피시어 영문에 보고하여 이 삼대에 걸친 삼효자의 탁이한 행실이 문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번만번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순상합하.

갑자년(高宗1, 1864) 10월 일

전주유학(全州幼學) 권극수(權克壽), 황종(黃稔), 오영주(吳永周), 이화성(李華成), 김익성(金翊聲), 나주유학(羅州幼學) 나용집(羅龍集), 임정묵(林正默), 류영규(柳榮奎), 양석호(梁錫浩), 최락원(崔洛源), 광주유학(光州幼學) 이기철(李基哲), 고제국(高濟國), 기상현(奇相鉉), 박용휴(朴龍休), 이남수(李南秀), 남원유학(南原幼學) 김찬동(金瓚東), 최우민(崔遇民), 안종렴(安宗濂), 노온수(盧溫壽), 이기필(李基泌), 강진유학(康津幼學) 조형신(趙衡臣), 윤희석(尹喜錫), 김제유학(金堤幼學) 이명하(李明夏), 류덕서(柳德瑞), 금산진사(錦山進士) 권용오(權龍五), 유학 길종두(吉鐘斗), 무안유학(務安幼學) 서만효(徐萬孝), 나복환(羅復煥), 해남유학(海南幼學) 윤종면(尹鐘冕), 박명직(朴乘直), 능주유학(綾州幼學) 양상호(梁相浩), 김관철(金寬喆), 보성유학(寶城幼學) 안대현(安大鉉), 임사국(任思國), 장흥유학(長興幼學) 정창운(丁昌運), 김의열(金懿悅), 창평유학(昌平幼學) 정벽(鄭漑), 고제용(高濟容), 류숙(柳瀟), 순천유학(順天幼學) 조상용(趙相龍), 장기렬(張基烈), 낙안유학(樂安幼學) 박해용(朴海龍), 담양유학(潭陽幼學) 송익모(宋益模), 이인환

(李仁煥), 고부유학(古阜幼學) 김기두(金箕斗), 이규현(李奎鉉), 흥덕유학(興德幼學) 신한철(慎漢喆), 정읍유학(井邑幼學) 남찬(南瓚), 태인유학(泰仁幼學) 김용조(金龍祚), 임실유학(任實幼學) 류진철(柳震喆), 영암유학(靈巖幼學) 조명진(曹明鎭), 최백승(崔栢承), 광치린(郭致隣), 신기옥(愼基玉), 최일영(崔日永), 진안유학(鎭安幼學) 황일현(黃駟顯), 김국노(金國老), 장수유학(長水幼學) 박용석(朴龍錫), 권병일(權炳日), 운봉유학(雲峯幼學) 김종두(金鍾斗), 류석조(柳錫祚), 장성참봉(長城參奉) 기승규(奇升奎), 유학 박진수(朴眞壽), 변승용(邊升容), 김복환(金復煥).

<데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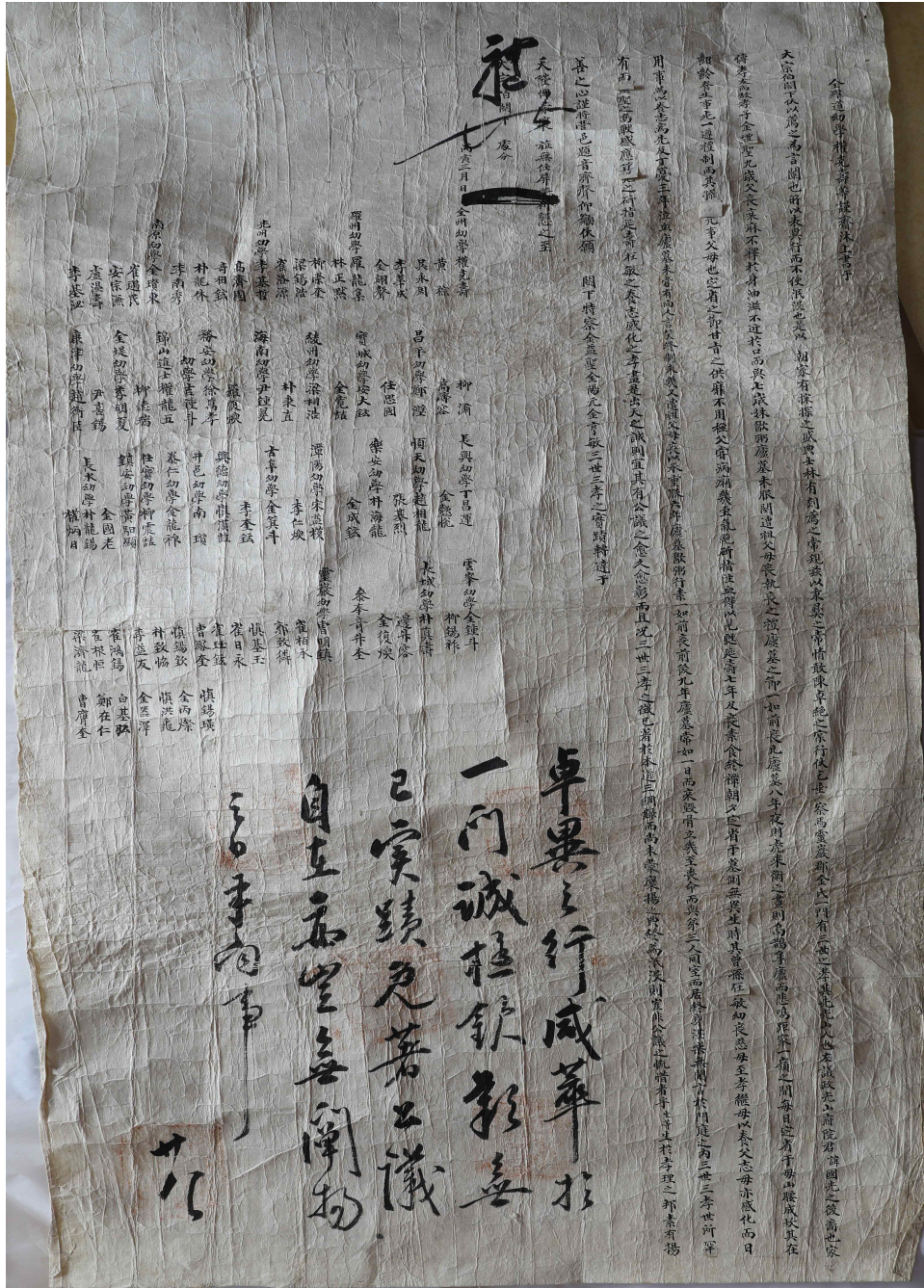
듣기에 심히 아름답다. 허나 포양의 은전은 계체가 무거운 고로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려운 일

초1일

검사[착압]

[전라도관찰사지인] 3과

(4) 1866년(高宗3)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그림 26] 1866년(高宗3)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全羅道幼學權克壽等 謹齋沐上書于

大宗伯閣下 伏以薦之爲言闡也 所以表異行 而不使泯沒也 是以 朝家有採探之盛典 士林有剡薦之常規 茲以秉彝之常情 敢陳卓絕之實行 伏乞垂 察焉 靈巖郡金氏一門 有三世之孝 其先光山人也 左議政光山府院君 諱國光之後裔也 家傳孝友 而故孝子金益「禮」聖 九歲父喪 衰麻不釋於身 油滋不近於口 而與七歲妹歡粥 廬墓未服闋 遭祖父母喪 執喪之禮 廬墓之節 一如前喪 凡廬墓八年 夜則虎來衛之 晝則烏鵲集廬而悲鳴 距家一嶺之間 每日定省于母 山要成坎 其在/韶齡 養生事死 一遵禮制 而其孫陽元「箕陽」 事父母也 定省之節 甘旨之供 靡不用極 父嘗病痢 幾至氣絕 斫指注血 得以見甦 延壽七年 及喪素食終禫 朝夕定省于墓側 無異生時 其曾孫亨「在」敏 幼喪慈母 至孝繼母 以養父志 母亦感化 而日/用事爲以養 志爲先及 丁憂三年 泣血廬墓 未嘗有向人言笑 終制未幾 又遭祖父母喪 以承重服 六年廬墓 歡粥行素 一如前喪 前後九年 廬墓常如一日 而哀毀骨立 幾至喪命 而與弟三人同室而居 終身湛樂 無間言於門庭之內 三世三孝 世所罕/有 而益「禮」聖之鳥獸感應 陽元「箕陽」之斫指延壽 亨「在」敏之養志感化之孝盡 是出天之誠 則宜其有公議之愈久愈彰 而且況三世三孝之徵 已著於本道三綱錄 而尙未蒙 褒揚之典 終爲泯沒 則豈非公議 之慨惜者乎 生等生於孝理之邦 素有揚/善之心 謹將營邑 題音齊聲 仰籲伏願 閣下特察 金益聖 金陽元 金亨敏 三世三孝之實蹟 轉達于/天 陛俾蒙褒 旌 無任屏營 祈懇之至

大宗伯閣下 處分

丙寅三月 日

全州幼學 權克壽 黃 綜 吳永周 李華成 金翊聲 羅州幼學 羅龍集 林正默 柳榮奎 梁錫浩 崔洛源 光州幼學 李基哲 高濟國 奇相鉉 朴龍休 李南秀 南原幼學 金瓚東 崔遇民 安宗濂 盧溫壽 李基泌/ 康津幼學 趙衡臣 尹喜錫 金堤幼學 李明夏 柳德瑞 錦山進士 權龍五 幼學 吉鍾斗 務安幼學 徐萬孝 羅復煥 海南幼學 尹鍾冕 朴秉直 綾州幼學 梁相浩 金寬喆 寶城幼學 安大鉉 任思國 昌平幼學 鄭 澐 高濟容 柳 瀾/ 長興幼學 丁昌運 金懿悅 順天幼學 趙相龍 張基烈 樂安幼學 朴海龍 金成鉉 潭陽幼學 宋益模 李仁煥 古阜幼學 金箕斗 李奎鉉 興德幼學 慎漢喆 井邑幼學 南 瓚 泰仁幼學 金龍祚 任實幼學 柳震喆 鎮安幼學 黃駟顯 金國老 長水幼學 朴龍錫 權炳日/ 雲峯幼學 金鍾斗 柳錫祚 長城幼學 朴眞壽 邊升容 金復煥 參奉 奇升奎 靈巖幼學 曹明鎮 崔栢承 郭致旻 慎基玉 崔日永 崔珏鉉 曹鳳奎 慎錫欽 朴致協 李益友 崔鴻錫 崔根恒 梁濟龍/ 曹膺奎 鄭在仁 白基弘 金器澤 慎洪龜 金丙燦 慎錫璜

<題辭>

卓異之行 咸萃於一門 誠極欽歎 無已實蹟 既著公議/自在亦豈 無闡揚/之日乎 尙事

廿八日

禮曹[着押]

전라도 유학 권극수 등이 삼가 목욕제계하고 대종백합하(大宗伯閣下)¹⁰⁰께 상서 올립니다.

삼가 천거한다는 말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밝히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정에는 모르는 곳을 살피는 제도가 있고, 사림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타고난 천성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심정으로 감히 나아가 남보다 아주 뛰어난 행실에 대해 아뢰입니다. 영암군 김씨 가문에 삼대의 효가 있습니다. 그 선조는 광산인이고 좌의정 광산부호군인 김국광(金國光)의 후예입니다. 가문에서 전해지는 효우로 죽은 효자 김익「예」성(金益聖; 金禮聖)이 9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거친 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자리에 앉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니다. 7세인 누이와 함께 죽을 마시며 여묘살이를 하다가, 상을 다 마치기도 전에 조부모의 상을 만나 집상의 예로 여묘살이를 하면서 이전의 상과 같게 하였습니다. 여묘살이를 한지 8년 재가 되자 밤이면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고, 낮이면 까치와 까마귀가 날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집이 한 고개가 떨어진 곳에 있어도 매일같이 아침이면 어머니께 안부를 묻기 위해 산허리 굽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실 때에는 봉양을 잘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도 산 사람 모시듯 잘하며 한결같이 예를 준수하였습니다. 그 손자인 김양원「기양」(金陽元; 金箕陽)은 부모님을 모실 때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 정리해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인사를 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봉양하기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설사병에 걸려서 거의 기절하였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 다시 살려서 7년이나 수명을 늘렸습니다. 상을 당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담체가 끝나도 아침 저녁으로 묘 옆에서 정성을 하기를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했습니다. 그 증손자인 김형「재」민(金亨敏; 金在敏)이는 어려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을 당했으나 계모에게 지극히 효도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봉양하여 어머니 또한 감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일

100) 大宗伯閣下:禮曹判書를 높혀 부르는 말. 春官의 장을 대종백이라 한다. 춘관은 예조의 별칭이다. 『周禮』「春官」“大宗伯之職, 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 以佐王建保邦國. 以小宗伯爲佐官.”

상생활에서 평범한 일을 하듯이 하였고, 그 뜻을 따라 봉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부모의 삼년상을 당하고서는 피를 토할 것처럼 울면서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사람을 보고 말하거나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상을 마치지 않았는데 또 조부모의 상을 당해 중복(重服)으로 이어서 6년동안 여묘살이를 하며 죽을 마시고 고기 없는 밥을 먹으며 이전의 상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전후로 9년간 여묘살이를 하기를 항상 첫날과 같게 하여 몸이 상해 피골이 상접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아우 셋과 같은 방에서 지내며 살고, 죽을 때까지 평화롭고 화락하게 즐기기를 마을 안에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삼대에 걸친 삼효는 세상에서 매우 드문 일로 김익「예」성의 새와 짐승들이 감응한 일, 김양원「기양」의 손가락을 잘라 수명을 연장한 일, 김형「재」민의 뜻을 받들어 효도한 일 그 모두가 하늘에서 내린 정성입니다. 마땅히 그 공의가 오래되고 밝고 더군다나 삼대의 삼효의 증거가 이미 본도의 삼강록에 기록되어있으나, 아직 포양의 은전을 받지 못하고 끝내 문히게 되면 어찌 사람들이 분하고 서운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입을 모아 소리내며 청하오니 엿드려 바라건데 성주합하께서 특별하게 삼대에 걸친 삼효자의 기록을 살피시어 조정에 올려 이 삼대 삼효자의 탁이한 행실이 문히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번 만번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고있는 효리의 나라는 원래부터 선행을 드러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가 장차 감영에서 데감을 하실 때, 모두 목소리를 모아 바라고 원하건데 합하께서 특별히 김익성, 김양원, 김형민 삼대에 걸친 삼효자의 실적을 살피시어 영문에 보고하여 포양을 하사하는 정려를 받아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종백합하 처분.

병인(高宗3, 1866) 3월 일

전주유학(全州幼學) 권극수(權克壽), 황종(黃綜), 오영주(吳永周), 이화성(李華成), 김익성(金翊聲), 나주유학(羅州幼學) 나용집(羅龍集), 임정묵(林正默), 류영규(柳榮奎), 양석호(梁錫浩), 최낙원(崔洛源), 광주유학(光州幼學) 이기철(李基哲), 고제국(高濟國), 기상현(奇相鉉), 박용휴(朴龍休), 이남수(李南秀), 남원유학(南原幼學) 김찬동(金瓚東), 최우민(崔遇民), 안종렴(安宗濂), 노온수(盧溫壽), 이기필(李基泌), 강진유학(康津幼學) 조형신(趙衡臣), 윤희석(尹喜錫), 김제유학(金堤幼學) 이명하(李明夏), 류덕서(柳德瑞), 금산진사(錦山進士) 권용오(權龍五), 유학 길종두(吉鍾斗), 무안유학(務安幼學) 서만효(徐萬孝), 나복환(羅復煥), 해남유학(海南幼學) 윤종면(尹鍾冕), 박병직(朴秉直), 능주유학(綾州幼學) 양상호(梁相浩), 김관철(金寬喆), 보성유학(寶城幼學) 안대현(安大鉉), 임사국

(任思國), 창평유학(昌平幼學) 정벽(鄭澗), 고제용(高濟容), 류숙(柳瀟), 장흥유학(長興幼學) 정창운(丁昌運), 김의열(金懿悅), 순천유학(順天幼學) 조상용(趙相龍), 장기렬(張基烈), 낙안유학(樂安幼學) 박해용(朴海龍), 김성현(金成鉉), 담양유학(潭陽幼學) 송익모(宋益模), 이인환(李仁煥), 고부유학(古阜幼學) 김기두(金箕斗), 이규현(李奎鉉), 흥덕유학(興德幼學) 신한철(慎漢喆), 정읍유학(井邑幼學) 남찬(南瓚), 태인유학(泰仁幼學) 김용조(金龍祚), 임실유학(任實幼學) 류진철(柳震喆), 진안유학(鎭安幼學) 황일현(黃駟顯), 김국노(金國老), 장수유학(長水幼學) 박용석(朴龍錫), 권병일(權炳日), 운봉유학(雲峯幼學) 김중두(金鍾斗), 류석조(柳錫祚), 장성유학(長城幼學) 박진수(朴眞壽), 변승용(邊升容), 김복환(金復煥), 참봉(參奉) 기승규(奇升奎), 영암유학(靈巖幼學) 조명진(曹明鎭), 최백승(崔栢承), 곽치린(郭致隣), 신기옥(愼基玉), 최일영(崔日永), 최각현(崔珪鉉), 조봉규(曹鳳奎), 신석흠(愼錫欽), 박치협(朴致協), 이익우(李益友), 최홍석(崔鴻錫), 최근항(崔根恒), 양제용(梁濟龍), 조응규(曹膺奎), 정재인(鄭在仁), 백기홍(白基弘), 김기택(金器澤), 신흥구(愼洪龜), 김병찬(金丙燦), 신석황(愼錫璜).

<데김>

탁이한 행적이 일문에서 모두 빛나니 진실로 흠탄(欽歎)하다. 이미 실적이 있고 공의가 드러났으니 어찌 찬양(闡揚)¹⁰¹하지 않을 수 없을 일.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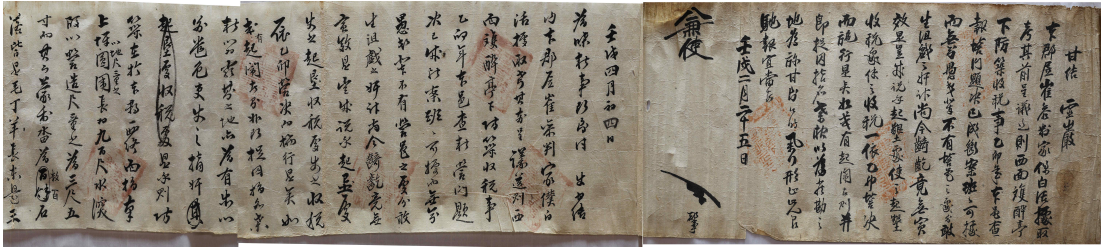
예조[착압]

101) 闡揚: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밝혀서 널리 퍼지게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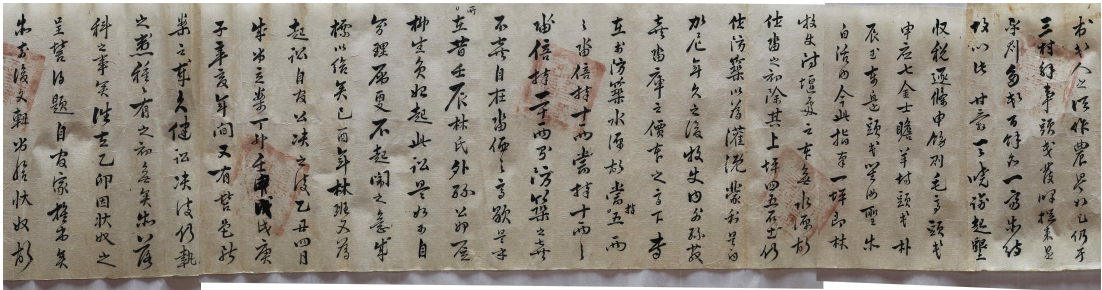
3. 牒關通報類

1) 甘結 및 牒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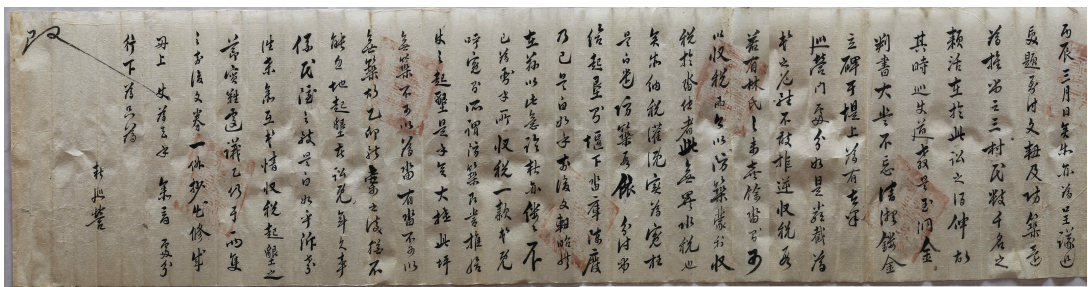
(1)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그림 27]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1



[그림 28]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2



[그림 29] 1862년(哲宗13)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및 1862년(哲宗13)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3

甘結 靈巖

本郡居崔參判家僕 白活據取/考 其前呈議送 則西面雙醉亭/ 下防築收稅事 乙卯年 本邑查報 營門題決 已成斷案 班班可據/ 而無知愚民 輩不有營邑之處分 敢/生沮戲之奸計 尙今齟齬 竟無實/效 是豈成說乎 起墾處使之起墾/ 收稅處使之收稅 一依乙卯營決/ 而施行是矣 如或有起鬧者 則并/卽捉囚 指名牒報 以爲嚴勘之/地爲旌 甘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宜當者

[全羅道觀察使之印] 3顆

감결(甘結)

감결. 영암.

본 군에 사는 최참판가의 종이 올린 발괄(白活)에 의거하여 찾아보니 그 전에 의송(議訟)을 올린 것이 있다. 서면(西面) 쌍취정(雙醉亭) 아래 방축(防築)의 수세(收稅)에 관한 일은 을묘년(철종6, 1855) 본 읍(靈光邑)에서 조사하고 판단하여 영문(營門)의 제결(題決)¹⁰²로 이미 단안(斷案)¹⁰³하여 명백하게 의거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영읍의 처분이 없다고 휘방을 놓는 간계를 부려 아직도 서로 시새워서 미워하며 실효가 없으니 이 어찌 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개간하라는 처사대로 개간을 하고 수세하라는 처사대로 수세를 하는 것을 을묘년 영결에 의거하여 한결같이 시행하라. 혹여 기료(起鬧)¹⁰⁴한 자가 있으면 모두 잡아다 가두고 지명하여 상관에게 보고해 엄중하게 처단하라. 감결이 도착한 날 거행하여 일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을 즉시 중앙에 보고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임술년(哲宗13, 1862) 2월 25일

겸사[착암] 도사

[전라도관찰사지인] 3과

102) 題決:上官이 下官의 보고 내용을 보고 내리는 결정. 또는 官에서 백성의 呈訴에 대해 내리는 판결이다.

103) 斷案:죄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근거를 뜻한다.

104) 起鬧:소란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壬戌四月初四日

爲牒報事到付 使甘結內 本郡居崔參判家僕 白活據取考 其前呈議送 則西面雙醉亭
下防禦收稅事/ 乙卯年 本邑查報 營門題/決 已成斷案 班班可據 而無知/愚民 輩不有營邑
之處分 敢/生沮戲之奸計 尙今齟齬 竟無/實效 是豈成說乎 起墾處/使之起墾 收稅處使之
收稅 /一依乙卯營決 而施行是矣 如/或有起鬧者 則并即捉囚指 名牒/報以爲 嚴勘之地亦
爲有等以/ 別遣色吏使之 摘奸(其起墾處收稅處)是乎則 防/築在於 本郡西終面指南/上坪以
地 尺量之圓圍 長爲九百尺 水深/段 以營造尺量之 爲三尺五/寸 而其下蒙利畝 爲(百餘)
數百石/落 皆是毛丁羊長東邊 三/村民人 之所作農是如乙仍于/ 三村解事頭民 發牌捉來是
乎則 多民百餘名 一齊等待/ 故以此 甘辭一一曉諭 起墾/收稅 逐條申飭 則毛亭頭民/ 申
應七金土瞻 羊場頭民朴/辰玉 東邊頭民崔汝聖等/白活內 今此指南一坪 卽林/牧使防堰 處
而本無水源 故/作畝之初 除其上坪 四五石土 仍/作防禦 以爲灌溉 蒙利是白/加尼 年久之
後 牧使內外孫 發/賣畝庫 而價本之高 下專/在於防禦水源 故當捧五兩/之畝 倍捧十兩 當
捧十兩之/畝 倍捧二十兩 則防禦之賣/不賣 自在畝價之高歎是乎所 在昔壬辰 林氏外孫
公州居/柳生員 始起此訟是如可 自/知理屈 更不起鬧之意 成/標以給矣 己酉年 林班又爲
起訟 自官公決之後 乙丑四月/ 成出立案 丁卯壬申戊戌庚/子辛亥年間 又有營邑斷/案 而
歲久健訟 決後仍執/之患 種種有之初無 矣等落/科之事矣 往在乙卯 因狀奴之/呈 營得題
自官家推出 矣/等前後文軸 出給狀奴 故/丙辰三月日 矣等亦爲呈 議送/受題 到付文軸 及
防禦還/爲推出 而三村民數千名之/賴活 在於此訟之得伸故/其時 巡使道教是 玉洞金/判書
大監 不忘清德 鏤金/立碑 于堤上爲有在果/ 巡營門處分如是 嚴截爲/民之道 雖不敢拒逆
收稅段/ 若有林氏之未賣餘畝 則可/以收稅 而今以防禦 蒙利收/稅於畝作者 此無異水稅也
矣等納稅灌溉 實爲冤枉/是白遣 防禦段 依 分付出/給起墾 則堰下畝庫 陳廢/乃已是白如
乎 前後文軸 昭然/在茲以此意論報 亦縷縷不/已爲臥乎所 收稅一款民 既/呼冤 則所謂防
築 卽當推給/ 使之起墾是乎矣 大抵此坪/無築不可以爲畝 有畝不可以無築 故乙卯斷案之
後 猶不/能忽地起墾者 訟既年久事/係民隱之致是白如乎 溯考/往牒參互民情 收稅起墾之/
節 實難遽議乙仍于 兩隻/之前後文券 一併抄出修成/冊 上使爲去乎 參商處分/行下爲只
爲

報巡營

官

[靈巖郡守之印] 15顆

첩보(牒報)

임술년(哲宗13, 1862) 4월 초4일.

첩보한 일인즉, 도부(到付)¹⁰⁵한 관찰사의 감결 내에 본군에 사는 최참판가의 종이 올린 발괄에 의거하여 찾아보니, 그 전에 의송을 올렸습니다. 서면 쌍취정 아래 방죽에 수세한 일은 을묘년(哲宗6, 1855)에 본읍에서 조사하고 판단한 대로 영문에서 제결하여 이미 명백하게 죄를 판단해 결정을 내릴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지하여 영읍의 처분을 알지 못하고 감히 횡방을 놓는 간계까지 부려서 아직도 서로를 시새워서 미워하고 오히려 실효는 없으니 어찌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겠습니까. 개간의 처사대로 개간을 하고 수세의 처사대로 수세를 하며 한결같이 을묘년 영결에 따르고 시행하되, 혹여 기묘한 자가 있으면 모두 즉시 잡아넣고 개중 하나를 골라 첩보를 올려 엄하게 처벌하게 할 것, 이라고 하였는 바로 특별히 색리(色吏)를 파견하여 부정이 있는지 살폈습니다.(개간 건과 수세 건) 방죽은 본군의 서종면(西終面) 지남상평(指南上平)에 있어 땅으로 측량하면 원위(圓圍)¹⁰⁶ 길이가 구백 척, 수심은 영조(營造)¹⁰⁷로 측량하면 삼척 오촌이며 그 아래 몽리답(蒙利畓)은 (백여)수 백섬 지기가 됩니다. 모두 모정(毛亭), 양장(羊長), 동변(東邊), 세 마을의 사람들이 소작농이라고 하기에 세 마을의 사리를 아는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데려온즉 많은 백성 백여 명이 일제히 기다리고 있어서 이에 감결을 말해 모두 알아듣게 하며 개간, 수세 한 조목씩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모정 두민(頭民) 신응칠(申應七), 김사첨(金士瞻), 양장 두민 박진옥(朴辰玉), 동변 두민 최여성(崔汝聖) 등의 발괄 내에 보면 지금 여기 지남일평(指南一坪), 즉 임목사(林牧師;林九齡)의 방죽은 본래 수원이 없어서 처음 받을 일굴 때 그 위쪽 땅의 4, 5섬(石)의 흙을 나눠서 방죽을 지어 관개 시 물을 받아 사용해왔는데 해가 오래된 후에 목사 내외의 손자가 논꼬(畓庫)를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값어치의 높고 낮음이 오로지 방죽의 수원에 있는데 본래 5냥으로 받았던 받을 배인 10냥으로 받고 본래 10냥이던 땅은 배인 20냥을 받았으며 방죽을 파느냐 팔지 않느냐에 따라 저절로 받의 가격도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였습니다. 옛날 임진

105) 到付:觀察使가 守令의 狀報에 대하여 答하는 公文이다.

106) 圓圍:범위의 둘레이다.

107) 營造:건축, 토목, 교량 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營造尺이라는 단어가 목수들이 쓰는 자를 뜻하는 것을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하던 단위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년(英祖48, 1772)에 임씨 외손이 공주(公州)에 살고 있을 때, 류생원이 이 소송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가 자신의 경위와 어긋나 고쳐서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기유년(正祖13, 1789)에 임반(林班)이 기소(起訴)당해 스스로 관에 가서 결정을 받은 후에 을축년(純祖5, 1805) 4월 입안을 받았고, 정묘(純祖7, 1807), 임신(純祖12, 1812), 무술(憲宗4, 1838), 경자(憲宗6, 1840), 신해년(哲宗2, 1851)간에 또 영읍의 단안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 지날 동안 송사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결론이 난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땅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근심이 종종 처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패소한 일이 없었고 지난 을묘년 소장을 올린 노비로 인하여 영읍에서 내린 제김(題音)에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었습니다. 관가에서 저희들에게 전후 문건을 소장을 올렸던 노비가 받아볼 수 있다 해주셨습니다. 병진년(哲宗7, 1856) 3월 일에 저희들이 의송을 올려 제김을 받아 도부하신 문축으로 방축을 돌려받았고 세 마을의 수천 명이 간신히 살아가며 이 소송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순사도(巡使道)께서 옥동(玉洞) 김판서대감(金判書大監)임을 잊지 않고 그 맑은 덕을 기리기 위해 철에 글씨를 새긴 비¹⁰⁸)를 독 위에 세웠습니다. 순영문의 처분이 이렇게 엄하고 백성을 위한 뜻이었으니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수세는 만약 임씨가 아직 팔지 않고 남은 논이 있으면 수세할 수 있으나 지금 방축의 몽리에 대한 수세는 물에 세금(水稅)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관개에 대한 납세는 실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방축은 분부에 따라 개간할 수 있게 내어주었으나 독 아래 논고는 오래 묵어 황폐하다고 합니다. 전후 문축에 확연하게 그 뜻이 있으나 논보(論報)¹⁰⁹)가 누누히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수세 한가지로도 백성은 이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방축은 마땅히 추급(推給)¹¹⁰)하고 개간하여야 합니다. 이 땅은 방축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으려면 방축이 없으면 안됩니다. 예전 을묘년의 단안 이후에 소홀하던 땅을 개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은 이미 해가 오래되었고 백성들의 괴로움이 극에 달한 것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옛일을 상고하는 첩보를 보내는 것은 세 마을의 사정에 수세와 개간이 절실하고 빠르게 의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전후 문권을 아울러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적어 성책으로 만들어 올리니 살펴보신 후에 처분의 본부를 내리시도록.

108) 맑은 덕을 …… 새긴 비:永世不忘碑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모정마을 영풍정 옆 방축의 독 위에 세워져있다.

109) 論報:下級 官衙에서 상급 관아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여 보고하던 일이다.

110) 推給:찾아서 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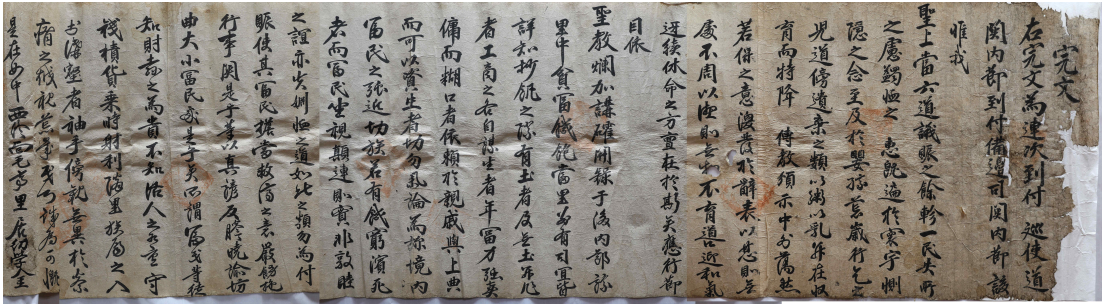
순영관에서 첩보 올림.

[영암군수지인] 15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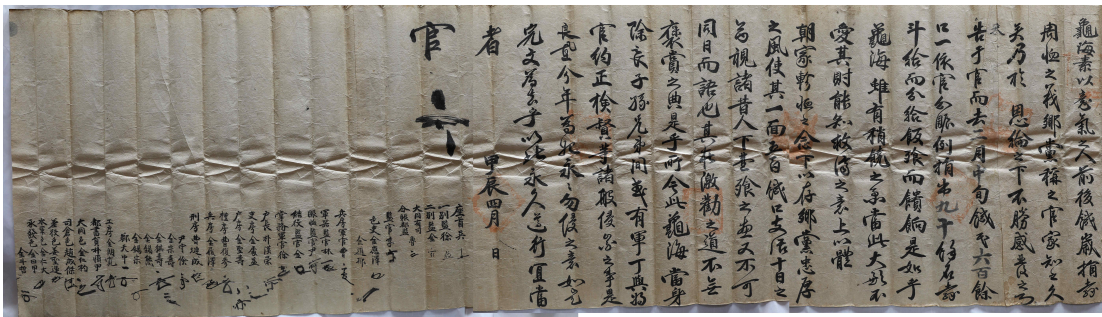
4. 證憑類

1) 完文

(1) 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그림 30] 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1



[그림 31] 1784년(正祖8) 영암군수(靈巖郡守) 완문(完文) 2

完文

右完文 爲連次到付 巡使道/關內 節到付 備邊司關內節該/ 惟我/聖上 當六道議賑之餘 軫一民失所之慮 蠲恤之 惠 既遍於寰宇 惻/隱之念 至及於嬰孩 荒歲行乞之/兒 道傍遺棄之類 以粥以乳 并在收/育 而特降 傳教 頒示中外 蕩然/若保之意 渙發於辭表以恩 則無/處不周以德 則無物不育導迎 和氣/迓續 休命之方 宣在於斯矣 應行節/目 依/ 聖教爛加講確 開錄于後內節該/里中 貧富饑飽 當里別有司 宜皆/詳知抄飢之際 有土者及無土并作/者 工商之各自謀生者 年富力強賣/ 傭而糊口者 依賴於親戚與上典/ 而可以資生者 切勿舉論 爲/ 境內/富民之強 近切族若有饑窮濱死/者 而富民坐視 顛連則實非敦睦/之誼 亦失憫恤之道 如此之類 勿爲付/賑 使其富民擔當 救濟之意 嚴飭施/行事關是乎等以 眞諺反瞻 曉

諭坊/曲大小富民處是乎矣 所謂富民等 徒/知財穀之爲 貴不知活人之所重 守/錢積貨乘時
 射利隣里 族屬之入/ 於溝壑者 袖手傍觀 無異於秦/瘠之越 視荒歲民心 誠爲可慨/是在如
中 西終面毛亭里 居幼學金/龜海 素以意氣之人 前後饑歲 捐穀/周恤之義 鄉黨稱之官 家
 知之久/矣 乃於 恩綸之下 不勝感發之心/ ■告于官 而去二月中旬 饑民六百餘/口 一依
 官分 賑例捐出 九十餘石穀/斗給 而分給飯殮 而饋餉是如乎/ 龜海雖有稍饒之業 當此大歉
 不/愛 其財能知 救濟之意 上以體/朝家軫恤之念 下以存鄉黨忠厚/之風 使其一面五百饑口
 支活十日之/命 視諸昔人 下壺殮之惠 又不可/同日而語也 其在激勸之道 不無/褒賞之典是
乎所 今此龜海 當身/除良子孫兄弟間 或有軍丁與將/官約正檢督等 諸般侵索之事 是/良置
 今年 爲始永永勿侵之意 如是/完文爲去乎 以此永久遵行宜當/者

甲辰四月日

官[着押] 座首吳[着名]
 一別監徐[着名]
 二別監金[着名]
 大同有司
 魯[着名]
 分賑都監
 監官李[着名]
 色吏金應澤[着名]
 金道郁[着名]
 兵房軍官曹[着名]
 軍器監官林[着名]
 賑恤監官尹[着名]
 結役監官金[着名]
 掌務軍官徐[着名]
 戶長朴漢榮[着名]
 吏房金處益[着名]
 戶房金聖壽[着名]
 禮房曹復參[着名]
 兵房金履澤[着名]
 刑房曹璉成[着名]
 尹守儉[着名]

金宗壽[着名]
 金猗壽[着名]
 金錫熊
 金錫宗[着名]
 鄭天中[着名]
 工房金朗寬[着名]
 都書員朴順甲[着名]
 大同色金仁杓[着名]
 司倉色趙成傑[着名]
 差役色姜聖運[着名]
 水軍色金仁大
 承發色金日甲[着名]
 金斗哲[着名]

완문(完文)

이 완문은 차례대로 도부한 순사도(巡使道)의 관(關)의 내용을 도부한 비변사(備邊司)의 관의 요지만 적었다. 정상께서 육도(六道)의 진휼을 논의하는 때에 백성이 의지할 곳을 잃었다는 생각에 진휼하고자 견휼(醵恤)¹¹¹⁾의 은혜를 내리셨다. 이미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천하에 널리 퍼지고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쳐 흉년에 길에서 빌어먹는 아이[行乞兒]와 길가에 버려진 아이[遺棄兒]에게 죽을 먹이고 젖을 먹이며 함께 수육(收育)¹¹²⁾하고자 하셨다. 특별히 전교를 내려 명령을 반포하여 두루 알리고¹¹³⁾ 조정과 민간에서 탕연(蕩然)한 아이를 보호하는 뜻을 말하고 밝히며 천하에 널리 선포¹¹⁴⁾하셨으니 덕이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¹¹⁵⁾ 수육하며 기르던 무리가 없어졌다. 응당 절목에 의거하여 행하고 성상의 전교를 밝히고 더해 강론하여 확정하고 개록(開錄)¹¹⁶⁾한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마을의 빈민과 부민의 생활이 고달

111) 醵恤:조세 따위를 가볍게 덜어 주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을 뜻한다.

112) 收育:남의 자식을 데려다 기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立案과는 달리 버려지거나 길거리에 遺棄된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113) 頒示:法令이나 命令 등을 頒布하여 두루 알리는 것을 뜻한다.

114) 渙發:임금의 명령을 천하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115)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導迎和氣, 온화한 기색으로 남의 환심을 사는 일을 뜻한다.

116) 開錄: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의견 또는 용건을 列記하는 것이다.

픈지의 여부를 해당 마을의 별유사에게 상세하게 알아 시민의 실태를 파악할 때, 땅이 있는 자 및 땅이 없어도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자, 공업, 상업으로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은 자, 나이가 젊고 한창 때라 품을 팔며 겨우 입에 풀칠은 하는 자, 친척이나 주인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경 내에서 부민의 가까운 친족이 만약 배를 주려 굶어죽기 직전인데 부민이 몹시 가난해서 어쩔 수 없다며 좌시하였으니 실로 두텁고 화목한 정이 아니다. 또 시댁을 구휼하는 뜻을 잃은 이와 같은 무리에게는 진휼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민에게 구제의 뜻을 담당하게 하여 엄하게 명령해서 관을 따라 시행하게 하며 한문과 언문으로 적어 반발이 있으면 마을의 크고 작은 부민들을 알아듣게 타일러라. 부민 등이 재물과 곡식이 귀한 줄만 알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게 중한지는 모르고 마을의 돈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익만 챙기고 이웃 마을이나 족속들이 구덩이에 들어가 빠져 죽어도 수수방관 하니 남의 어려움이나 근심을 돌보지 않는 것¹¹⁷⁾과 다를 바 없어 흉년에 민심이 진실로 개탄스러웠다. 서종면(西終面) 모정리(毛亭里)에 사는 유학(幼學) 김구해(金龜海)는 뜻을 품고 사느[意氣] 사람이었다. 전후 흉년에 사람들을 구휼하고자 하는 뜻으로 곡식을 기부하였다. 향당에서도 그것을 칭송하고, 관가에서도 알고 있는지가 오래였다. 이에 왕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관에 고하였다. 지난 2월 중순에 굶주린 백성 600여 구에게 한결같이 관에서 구휼하는 예에 따라 곡식을 나누어 90여섬곡을 한 말씩 나누어 주고, 밥을 지어 대접하였다고 한다. 김구해는 살림이 제법 넉넉하였는데 이 때를 당해 크게 흉년이 들자 그 재물을 아끼지 않고 구제의 뜻을 알았다. 위로는 조정의 진휼의 생각을 알고 아래로는 마을에 충직하고 순후한 면모가 있어 그 한 면(面) 500명의 굶주린 사람이 10일간 목숨을 버틸 수 있게 하였다. 모두가 옛 사람들처럼 비상식량¹¹⁸⁾을 아래에 배풀고 또 같은 동일 선상에 놓아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을 격려하며 권하는 뜻이 있으니 포상의 은전이 없으면 안 된다. 이에 지금 김구해에게 자손, 형제 간에 혹 군정(軍丁)¹¹⁹⁾ 있거나 장관(將官), 약정(約正)¹²⁰⁾, 검독(檢督)¹²¹⁾ 등이 여러가지 침색(侵索)하는 일이라도 금년부터 영영 침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문하니 이를 영구히 쫓아 마땅히 할 것.

117) 남의 …… 돌보지 않는 것:越視秦瘠. 월나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진나라의 땅이 걸고 메마름을 상관하지 않듯이 남의 일에 전혀 무관심함을 뜻한다.

118) 壺飧:밥을 말려 항아리에 담아서 끓여지고 다니던 비상식량이다. 壺餐.

119) 軍丁:軍役의 의무를 지는 壯丁. 고려 시대 이래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하고 軍籍에 등재하였다.

120) 約正:조선시대 향약조직의 임원이다.

121) 檢督:지금의 면장과 같은 조선시대의 지방관원이다.

갑진(正祖8, 1784) 4월 일

관(官)[착압]

좌수(座首) 오(吳)[착명]

1별감(別監) 서(徐)[착명]

2별감 김(金)[착명]

대동유사(大同有司) 노(魯)[착명]

분진도감(分賑都監) 감관(監官) 이(李)[착명]

색리(色吏) 김응택(金應澤)[착명]

김도욱(金道郁)[착명]

병방군관(兵房軍官) 조(曹)[착명]

군기감관(軍器監官) 임(林)[착명]

진휼감관(賑恤監官) 윤(尹)[착명]

결역감관(結役監官) 김(金)[착명]

장무군관(掌務軍官) 서(徐)[착명]

호장(戶長) 박한영(朴漢榮)[착명]

이방(吏房) 김처익(金處益)[착명]

호방(戶房) 김성수(金聖壽)[착명]

예방(禮房) 조복삼(曹復參)[착명]

병방(兵房) 김이택(金履澤)[착명]

형방(刑房) 조연성(曹璉成)[착명]

윤수검(尹守儉)[착명]

김종수(金宗壽)[착명]

김기수(金琪壽)[착명]

김석웅(金錫熊)

김석중(金錫宗)[착명]

정천중(鄭天中)[착명]

공방(工房) 김낭광(金朗寬)[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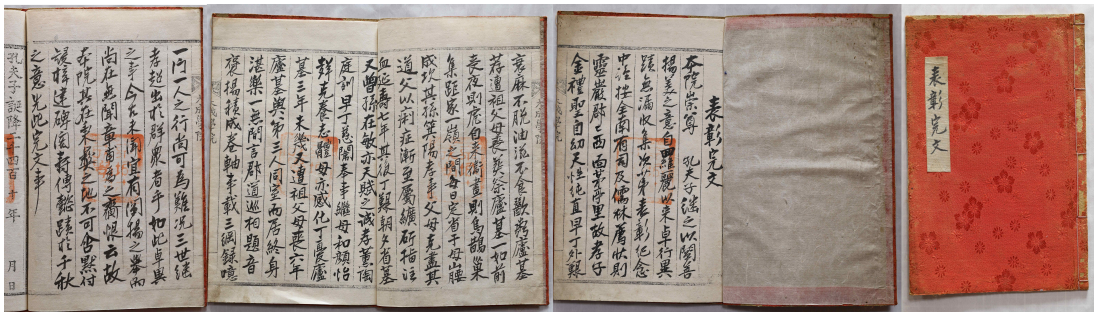
도서원(都書員) 박순갑(朴順甲)[착명]

대동빫(大同色)¹²² 김인표(金仁杓)[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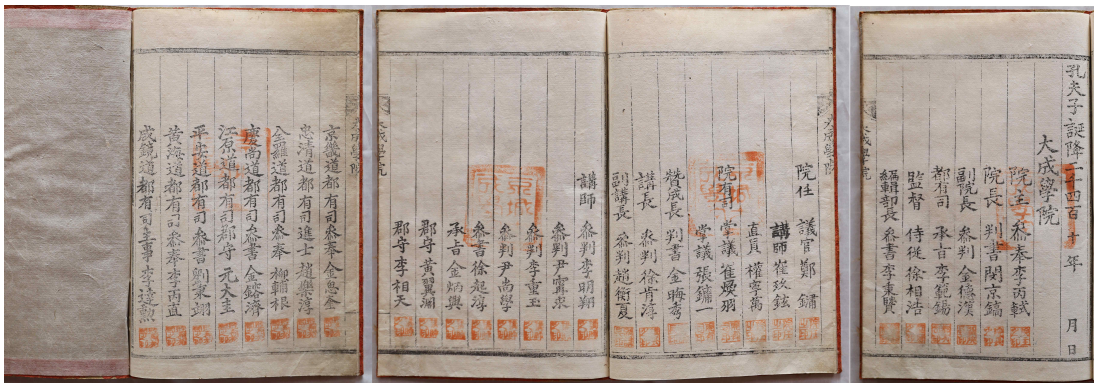
사창빫(司倉色) 조성걸(趙成傑)[착명]

- 차역빛(差役色) 강성운(姜聖運)[작명]
- 수군빛(水軍色) 김인대(金仁大)
- 승발빛(承發色) 김일갑(金日甲)[작명]
- 김두철(金斗哲)[작명]

(2) 대성학원(大成學院) 표창완문(表彰完文)



[그림 32] 대성학원(大成學院) 표창완문(表彰完文) 1



[그림 33] 대성학원(大成學院) 표창완문(表彰完文) 2

表彰完文

本院崇尊 孔夫子 繼之以闡善/揚美之意 自羅麗以來 卓行異蹟 無漏收集 次第表彰紀念

122) 色[빛]:담당자, 담당하는 임시관청을 뜻하는 이두이다.

中 謹按全南有司 及儒林薦狀 則/靈巖郡郡西面茅亭里 故孝子/金禮聖 自幼天性純直 早丁
 外艱/ 衰麻不脫 油滋不食 歠粥廬墓/ 荐遭祖父母喪 葬祭廬墓 一如前/喪 夜則虎自來衛
 晝 則烏鵲巢/集距家 一嶺之間 每日定省于母 山腰/成坎 其孫箕陽 孝事父母 克盡其/道
 父以痢症 漸至屬纊 斫指注/血 延壽七年 其後丁艱 朝夕省墓/ 又曾孫在敏 亦天賦之誠孝
 薰陶/庭訓 早丁慈闈 奉事繼母 和顏怡/聲 克養志體 母亦感化 丁憂廬/墓 三年未幾 又遭
 祖父母喪 六年/廬墓 與弟三人 同室而居 終身/湛樂 一無間言 郡道巡相/題音/褒揚 積成卷
 軸事 載三綱錄 噫/一門一人之行 尚可爲難 況三世繼/孝 超出於群衆者乎 如此卓異/之事
 今古未聞 宜有闡揚之舉 而/尚在無聞章 甫爲之齋恨云 故/本院其 在秉彝之地 不可含默
 付/鉞梓建碑閣 壽傳懿蹟 於千秋/之意 先此完文事

孔夫子誕降二千四百 十 年 月 日

大成學院

院主 參奉 李丙軾[院主之印]
 院長 判書 閔京鎬[院長之印]
 副院長 參判 金德漢[副院長印]
 都有司 承旨 李範錫[都有司印]
 監督 侍從 徐相浩[監督之印]
 編輯部長 參書 李秉賢[編輯部長之印]
 院任 議官 鄭 鏞[院任之印]
 講師 崔玖鉉[院任之印]
 直員 權寧萬[院任之印]
 院有司 掌議 崔煥羽[院有司印]
 掌議 張鏞一[院有司印]
 贊成長 判書 金晦秀[贊成長印]
 講長 參判 徐肯淳[講長之印]
 副講長 參判 趙衡夏[副講長印]
 講師 參判 李明翔[講師之印]
 參判 尹寧求[講師之印]
 參判 李重玉[講師之印]
 參判 尹尙學[講師之印]
 參書 徐起淳[講師之印]

承旨 金炳興[講師之印]

郡守 黃翼淵[講師之印]

郡守 李相天[講師之印]

京畿道都有司 參奉 金思奎[道都有司之印]

忠淸道都有司 進士 趙樂淳[道都有司之印]

全羅道都有司 參奉 柳輔根[道都有司之印]

慶尙道都有司 參書 金鎔濟[道都有司之印]

江原道都有司 郡守 元大圭[道都有司之印]

平安道都有司 參書 劉秉翊[道都有司之印]

黃海道都有司 參奉 李丙直[道都有司之印]

咸鏡道都有司 主事 李達勳[道都有司之印]

[京城大成學院] 8顆

표창완문(表彰完文)

완문을 표창한다.

본 원은 공자님을 숭배하고 존경하며 그 뜻을 밝혀 이어가 아름다운 뜻을 드높인다. 신라와 고려 이래로 높고 뛰어난 행실이나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차례대로 표창하며 기념하는 중이다. 삼가 전남유사(全南有司)와 유림들이 추천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살펴보았다. 영암군(靈巖郡) 군서면(郡西面) 모정리(茅亭里)에 죽은 효자 김예성(金禮聖)은 어려서부터 타고나기를 순박하고 곧은 성정이었다. 일찍이 부친상을 당해서 거친 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자리에 앉지 않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죽만 먹으며 여묘살이를 하였다. 거둬서 조부모의 상을 당해 여묘살이 하기를 전과 같이 하자 밤이면 호랑이가 스스로 와서 지켜주고, 낮이면 새들이 울며 날아와 모여들었다. 고개 하나가 떨어진 거리에 집이 있어 매일 어머니에게 아침마다 문안인사를 드리고 저녁이면 잠자리를 봐드리며 산 허리를 헤치고 다녔다. 그 손자 김기양(金箕陽)은 효로써 부모를 극진하게 모셨다. 그의 아버지가 설사병에 걸려 점점 숨이 멎어가고 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여 수명을 7년이나 연장시켰다. 그 후에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도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여묘살이를 하였다. 증손자인 김재민(金在敏) 또한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효성을 가지고 있었고, 덕으로써

가르치며 선으로 나가게 하는 가정교육을 받으니 일찍이 어머니의 상을 만나서 계묘를 모셔도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뜻과 몸을 다해 극진하게 봉양하여 어머니 또한 감화(感化)하였다. 부모님 상을 당해 여묘살이를 3년 지내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조부모상을 당해서 6년 여묘살이를 하고, 아우 셋과 함께 같은 방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가 한결같았다. 군(郡)과 도(道)의 순찰사가 제김(題音)에서 포양(褒揚)을 말하고 관련 글이나 장부, 서신 등도 많이 쌓여 축(軸)으로 세고 있으며 이 일은 삼강록(三綱錄)에도 실려있다. 아! 한 가문에서 한 사람의 효행이 나오기도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삼 대에 이어진 효라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우 뛰어나도다! 이러한 탁이(卓異)한 일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듣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드러내고 밝혀 펴트려야 하고 또한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유생(章甫)들이 그것을 개탄스럽게 말하는 고로 본원은 그 본연의 도리를 지킬 뜻이 있어 침묵할 수 없다. 침재(浸粹)¹²³⁾를 주고 비각을 건립하여 의로운 뜻이 오랜 세월 전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에 앞서 완문하는 일.

공부자 탄강 24□□¹²⁴⁾년 월 일

대성학원(大成學院)

원주(院主) 참봉(參奉) 이병식(李丙軾)[원주지인]

원장(院長) 판서(判書) 민경호(閔京鎬)[원장지인]

부원장(副院長) 참판(參判) 김덕한(金德漢)[부원장지인]

도유사(都有司) 승지(承旨) 이범석(李範錫)[도유사지인]

감독(監督) 시종(侍從) 서상호(徐相浩)[감독지인]

편집부장(編輯部長) 참서(參書) 이병현(李秉賢)[편집부장지인]

원임(院任) 의관(議官) 정용(鄭鏞)[원임지인]

강사(講師) 최구현(崔玖鉉)[원임지인]

직원 권영만(權寧萬)[원임지인]

원유사(院有司) 장의(掌議)¹²⁵⁾ 최환우(崔煥羽)[원유사지인]

123) 浸粹:인쇄할 목적으로 나무 판에 글자를 새긴 것이다. 鋟材.

124) □:원문에서 글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빈칸으로 표시하였다.

125) 掌議:조선시대 성균관유생들의 자치기구인 齋會의 임원이다. 東齋와 西齋에 각 1인씩 있었는데, 선출방법은 現任掌議가 後任掌議를 薦擧하도록 하되 前任掌議들의 완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재회를 소집하였으며, 재회에서의 역할과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장의 장용일(張鏞一)[원유사인]

찬성장(贊成長) 판서 김희수(金晦秀)[찬성장인]

강장(講長) 참판 서긍순(徐肯淳)[강장지인]

부강장(副講長) 참판 조연하(趙衡夏)[부강장인]

강사 참판 이명상(李明翔)[강사지인]

참판 윤영구(尹寧求)[강사지인]

참판 이중옥(李重玉)[강사지인]

참판 윤상학(尹尙學)[강사지인]

판서 서기순(徐起淳)[강사지인]

승지 김병흥(金炳興)[강사지인]

군수(郡守) 황익연(黃翼淵)[강사지인]

군수 이상천(李相天)[강사지인]

경기도도유사(京畿道都有司) 참봉 김사규(金思奎)[도도유사지인]

충청도도유사(忠淸道都有司) 진사 조낙순(趙樂淳)[도도유사지인]

전라도도유사(全羅道都有司) 참봉 류보근(柳輔根)[도도유사지인]

경상도도유사(慶尙道都有司) 참서 김용제(金鎔濟)[도도유사지인]

강원도도유사(江原道都有司) 군수 원대규(元大圭)[도도유사지인]

평안도도유사(平安道都有司) 참서 유병익(劉秉翊)[도도유사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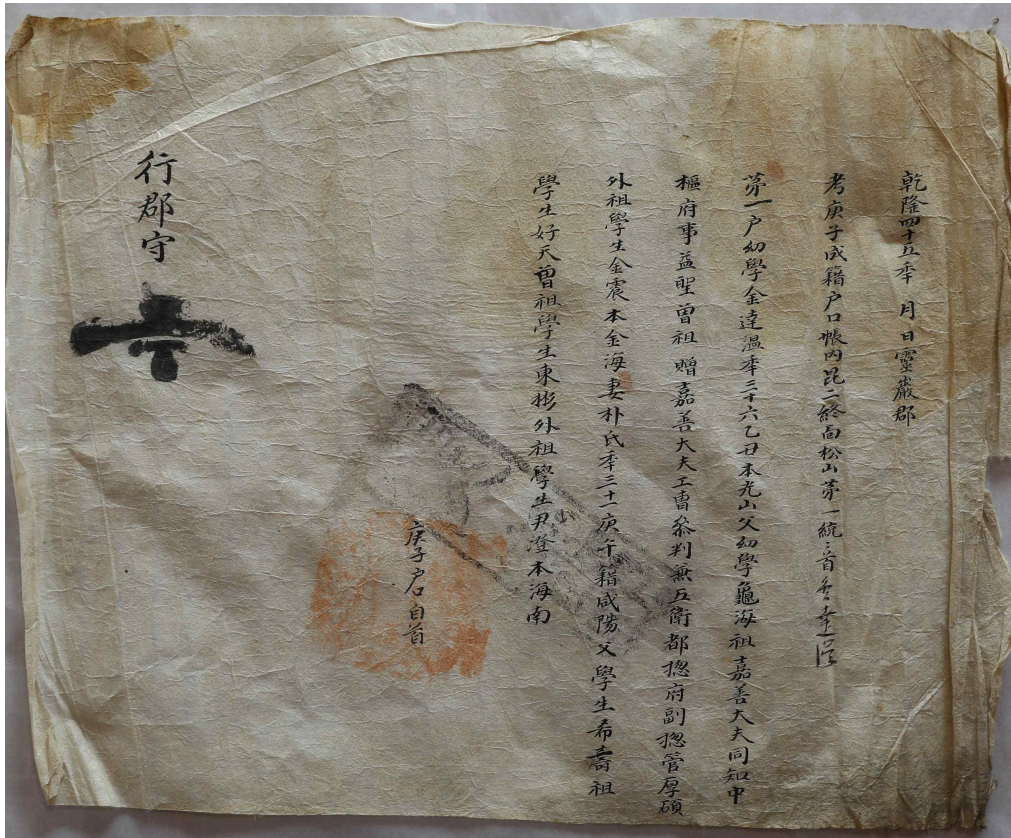
황해도도유사(黃海道都有司) 참봉 이병직(李丙直)[도도유사지인]

함경도도유사(咸鏡道都有司) 주사 이달훈(李達勳)[도도유사지인]

[경성대성학원] 8과

2) 戶籍

(1) 1780년(正祖4) 김달온(金達溫) 준호구(準戶口)



[그림 34] 1780년(正祖4) 김달온(金達溫) 준호구(準戶口)

乾隆四十五年 月 日靈巖郡

考庚子成籍戶口帳內昆二終面松山第一統統首金達溫

第一戶幼學金達溫年三十六乙丑本光山父幼學龜海祖嘉善大夫同知中

樞府事益聖曾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厚碩

外祖學生金震本金海妻朴氏年三十一庚午籍咸陽父學生希壽祖

學生好天曾祖學生東彬外祖學生尹澄本海南

庚子戶口自首

行郡守[着押]

[周挾無改因]

건륭45년(正祖4, 1780) 월 일 영암군

경자년에 작성된 호구대장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다. 곤이종면(昆二終面) 송산(松山) 제 1통 통수 김달온(金達濶). 제 1호 유학 김달온은 나이 36세로 을축생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아버지는 유학 김구해(金龜海), 조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김익성(金益聖), 증조부는 증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 김후석(金厚碩)이다. 외조부는 학생 김운(金震)으로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처 박씨는 31세 경오생이고 본적은 함양(咸陽)이다. 처의 아버지는 학생(學生) 박희수(朴希壽), 조부는 학생 박호천(朴好天), 증조부는 학생 박동빈(朴東彬)이고 외조부는 학생 윤징(尹澄)으로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경자 호구 신고.

행군수[착압]

[주협무개인]

(2) 1798년(正祖22) 김달원(金達元) 호구단자(戶口單子)



[그림 35] 1798년(正祖22) 김달원(金達元) 호구단자(戶口單子)

嘉慶三年戊午正月 日靈巖郡西終面茅亭戶口單子

第九統統首申虎得

第三戶幼學金達元年五十四乙丑本光山

父幼學 龜海年八十一戊戌

祖學生 益聖

曾祖學生厚碩

外祖學生金震本金海

妻朴氏齡四十九庚午籍咸陽

父學生希壽

祖學生好天

曾祖學生東彬

外祖學生尹澄本海南

賤口秩仰役婢春德三十七壬午乙卯戶口相準

行郡守[着押]

[周挾無改因]

가경3년(正祖22, 1798) 무오 1월 일 영암군(靈巖郡) 서종면(西終面) 모정(茅亭) 호구 단자

제 9통 통수 신호득(申虎得)

제 3호 유학(幼學) 김달원(金達元)의 나이는 54세로 을축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아버지 유학 김구해는 나이 81세로 무술생이다.

조부는 학생 김익성

증조부는 학생 김후석

외조는 학생 김진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부인 박씨는 나이 49세로 경오생이고 본적은 함양이다.

부인의 아버지는 학생 박희수,

조부는 학생 박호천

증조부는 학생 박동빈

외조는 학생 윤징으로 본관은 해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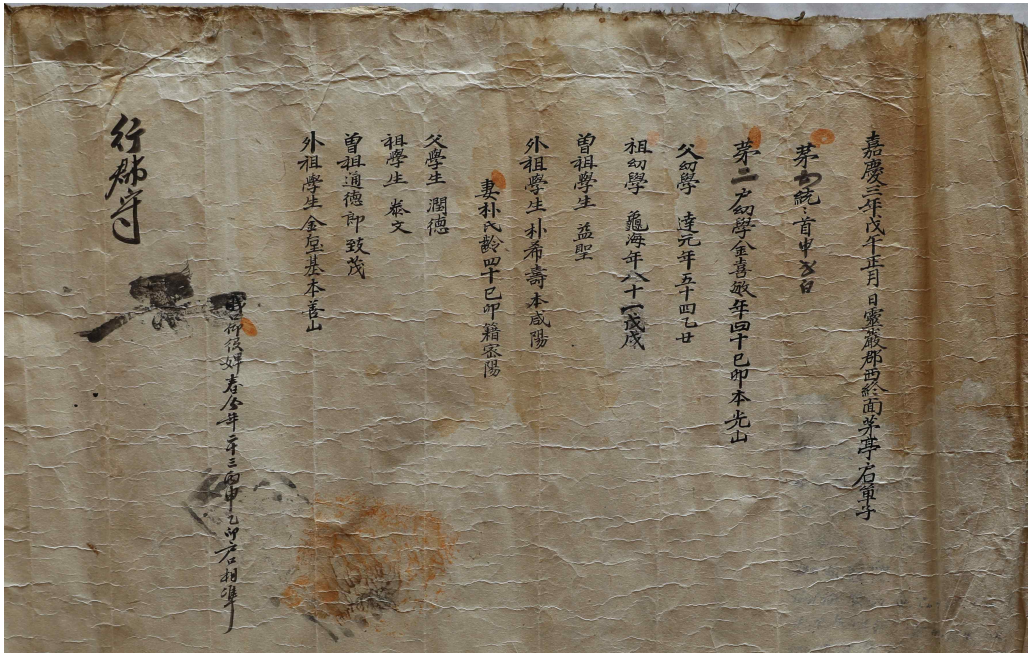
노비는 양역비(仰役婢) 춘덕(春德)으로 나이 37세 임오생이다. 을묘년 호구와 서로

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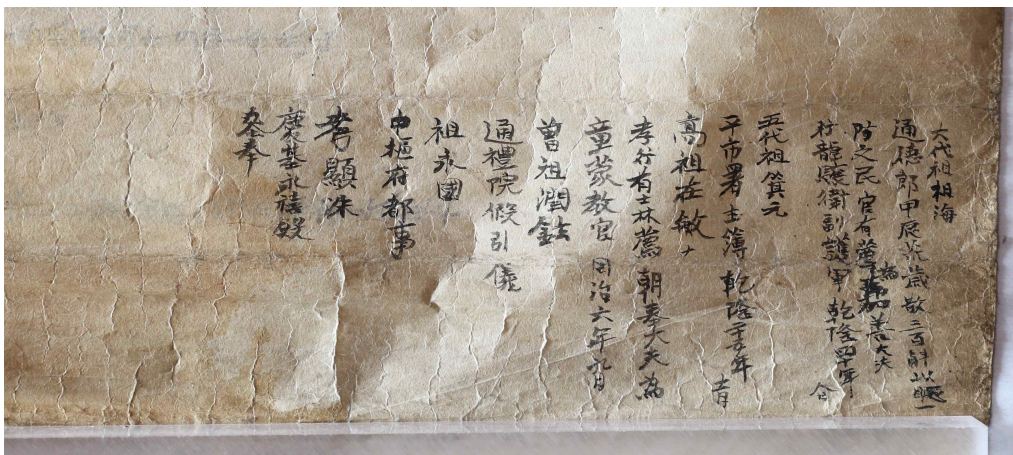
행군수[착압]

[주협무개인]

(3) 1798년(正祖22) 김희민(金喜敏) 호구단자(戶口單子)



[그림 36] 1798년(正祖22) 김희민(金喜敏) 호구단자(戶口單子)



[그림 37] 1798년(正祖22) 김희민(金喜敏) 호구단자(戶口單子) 배면(背面)

嘉慶三年戊午正月 日靈巖郡西終面茅亭戶口單子

第五統統首申世白

第二戶幼學金喜敏年四十己卯本光山

父幼學 達元年五十四乙丑

祖學生 龜海年八十一戊戌

曾祖學生 益聖

外祖學生 朴希壽本咸陽

妻朴氏齡四十己卯籍密陽

父學生 潤德

祖學生 泰文

曾祖通德郎 致茂

外祖學生 金屋基本善山

賤口仰役婢春分年二十三丙申乙卯戶口相準

行郡守[着押]

[周挾無改因]

<背面>

六代祖相海

通德郎甲辰荒歲散三百斛以賑一

防之民官有薦爲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乾隆四十年八月

五代祖箕元

平市署主簿乾隆二十五年十一月

高祖在敏

孝行有士林薦朝奉大夫爲

童蒙教官同治六年九月

曾祖潤鉉

通禮院假引儀

祖永國

中樞府都事

考顯洙

慶基永禧殿

參奉

가경3년(正祖22, 1798) 무오 1월 일 영암군 서종면 모정 호구단자

제 5통 통수 신세백(申世白)

제 2호 유학(幼學) 김희민(金喜敏)의 나이는 40세로 기묘생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아버지는 유학 김달원(金達元)으로 54세 을축생

조부는 학생 김구해로 81세 무술생

증조는 학생 김익성

외조는 학생 박희수(朴希壽)로 본관은 함양이다.

부인 박씨의 나이는 40세로 기묘생이고 본적은 밀양(密陽)이다.

부인의 아버지는 학생(學生) 박윤덕(朴潤德)

조부는 학생 박태문(朴泰文)

증조부는 통덕랑(通德郎) 박치무(朴致茂)

외조부는 김후기(金垆基)로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노비는 양역비 춘분(春分)으로 23세이고 병신생이다. 을묘년 호구와 서로 대조함.

행군수[착압]

[주협무개인]

<뒷면>

육대조(六代祖) 김상해(金相海)

통덕랑으로 갑진년 가뭄이 들었을 때 곡식 300곡을 풀어 일방의 백성들을 구휼했다.

관에서 천거하여 가선대부 행 용양위부호군에 임명되었다.

건륭40년(英祖51, 1775) 8월

오대조(五代祖) 김기원(金箕元)

평시서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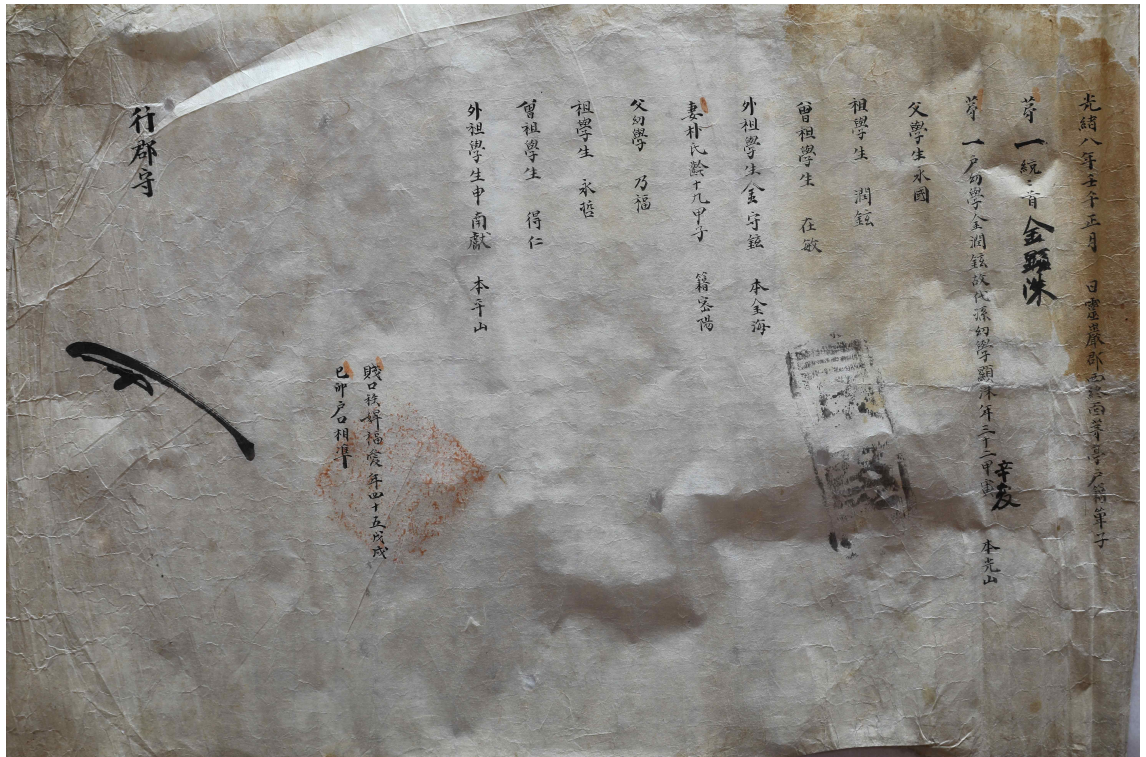
건륭25년(英祖36, 1760) 11월

고조(高祖) 김재민(金在敏)

효행으로 사림이 천거하여 조봉대부 동명교관에 임명되었다.

동치6년(高宗4, 1867) 9월
증조(曾祖) 김윤현(金潤鉉)
통례원가인의
조(祖) 김영국(金永國)
중추부도사
고(考) 김현수(金顯洙)
경기 영희전 참봉

(4) 1882년(高宗19)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그림 38] 1882년(高宗19)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光緒八年壬午正月 日靈巖郡西終面茅亭戶籍單子
 第一統統首金顯洙
 第一戶幼學金潤鉉故代孫幼學顯洙年三十二甲寅(辛亥) 本光山
 父學生 永國
 祖學生 潤鉉
 曾祖學生 在敏
 外祖學生金守鉉 本金海
 妻朴氏齡十九甲子 籍密陽
 父幼學 乃福
 祖學生 永哲
 曾祖學生 得仁

外祖學生申南獻 本平山

賤口秩婢福愛年四十五戊戌

己卯戶口相準

行郡守[着押]

[周挾無改因]

광서8년(高宗19, 1882) 임오 1월 일 영암군 서종면 모정 호적단자

제 1통 통수 김현수(金顯洙)

제 1호 유학(幼學) 김윤현(金潤鉉)이 죽어 손자 유학 현수가 대신한다. 나이는 32세로 갑인(신해)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아버지는 학생 김영국(金永國)

조부는 학생 김윤현(金潤鉉)

증조는 학생 김재민(金在敏)

외조는 학생 김수현(金守鉉)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부인 박씨는 19세로 갑자생이고 본적은 밀양이다.

부인의 아버지는 유학 박내복(朴乃福)

조부는 학생 박영철(朴永哲)

증조는 학생 박득인(朴得仁)

외조는 학생 신남헌(申南獻)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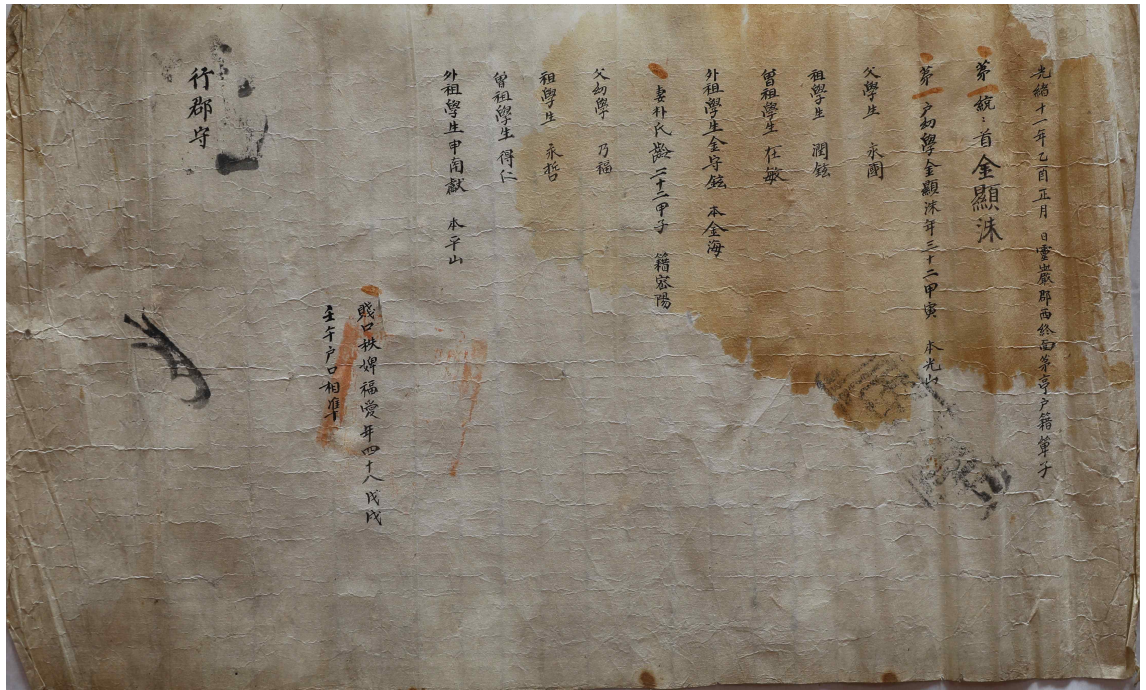
노비는 비(婢) 복애(福愛)로 45세 무술생이다.

기묘년 호구와 서로 대조함.

행군수[착압]

[주협무개인]

(5) 1885년(高宗22)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그림 39] 1885년(高宗22)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光緒十一年乙酉正月 日靈巖郡西終面茅亭戶籍單子

第一統統首金顯洙

第一戶幼學金顯洙年三十二甲寅 本光山

父學生 永國

祖學生 潤鉉

曾祖學生 在敏

外祖學生金守鉉 本金海

妻朴氏齡二十二甲子 籍密陽

父幼學 乃福

祖學生 永哲

曾祖學生 得仁

外祖學生申南獻 本平山

賤口秩婢福愛年四十八戊戌

壬午戶口相準

行郡守[着押]

[周挾無改因]

광서11년(高宗22, 1885) 을유 1월 일 영암군 서종면 모정 호적단자

제 1통 통수 김현수

제 1호 유학 김현수는 나이 32세로 갑인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아버지는 학생 김영국

조는 학생 김윤현

증조는 학생 김재민

외조는 학생 김수현으로 본적은 김해이다

부인 박씨의 나이는 22세로 갑자생이고 본적은 밀양이다.

부인의 아버지는 유학 박내복

조부는 학생 박영철

증조는 학생 박득인

외조는 학생 신남헌으로 본관은 평산이다.

노비는 비 북애로 나이는 48세이고 무술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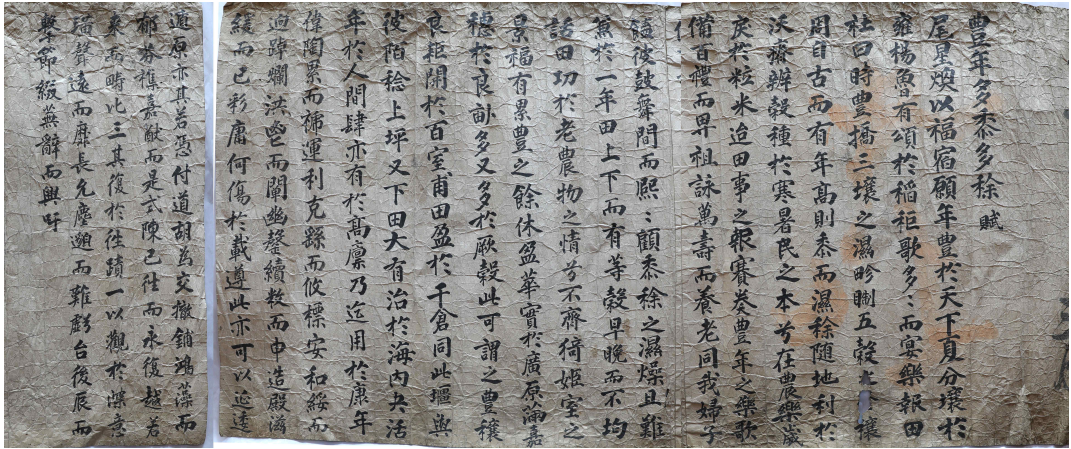
임오년 호구와 서로 대조함

행군수[착압]

[주협무개인]

3) 試券

(6) 미상(未詳) 시권(試券)



[그림 40] 미상(未詳) 시권(試券)

豊年多黍多稌 賦

풍년다서다도¹²⁶⁾ 부

尾星煥以福宿
願年豊於天下
夏分壤於雍楊
魯有頌於稻秬
歌多多而宴樂
報田社曰時豊
橋三壤之濕畛
耨五穀之■穰
周自古而有年
高則黍而濕稌

별뫍별이 별자리에서 환하게 빛나니
천하에 풍년이기를 바라네.
하나라 옹주와 양주로 토지를 나누고
노나라 벼와 기장으로 칭송하네.
많음을 노래하고 즐거운 잔치하며
밭에 전해 말하기를 풍년이라 하네.
삼양¹²⁷⁾의 습한 땅을 치켜들고
오곡의 벼를 밝게 살펴보네.
주나라는 예부터 풍년이 있으니
높으면 기장을 습하면 벼를 심네.

126) 豊年多黍多稌:『시경』「周頌 豊年」에 “풍년이 들어 기장도 많고 벼도 많다. [豊年多黍多稌]”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주에 “기장은 높고 건조하며 추운 곳에서 잘되고, 벼는 낮고 축축하며 더운 곳에서 잘되니, 기장과 벼가 모두 잘 익었다면 백곡 모두가 잘 익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127) 三讓:徵稅에 편리하도록 토질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隨地利於沃瘠
辨穀種於寒暑
民之本兮在農
樂歲戾於粒米
迨田事之報賽
奏豐年之樂歌
備百禮而畀祖
詠萬壽而養老
同我婦子饁彼
鼓舞間而熙熙
顧黍稷之濕燥
且難兼於一年
田上下而有等
穀早晚而不均
話田功於老農
物之情兮不齊
猗姬室之景福
有累豐之餘休
盈華實於廣原
滿嘉穗於良畝
多又多於厥穀
此可謂之豐穰
良耜開於百室
甫田盈於千倉
同此壇與彼陌
稔上坪又下田

땅의 기름지고 마름의 이치에 따르고
추위와 더위에 곡식의 종류를 분별하네.
백성의 본이 농사에 있으니
즐겁게 수확하여 쌀로 돌려주네.
밭일이 잘 되게 해달라 제사¹²⁸⁾를 올리고
풍년의 노래를 연주하네.
조상에게 나아가¹²⁹⁾ 백례를 갖추어
노인을 공경하며 만수를 읊네.
우리 부녀자 다같이 들밥을 내고
복을 두드리고 춤을 추네.
돌아보건대 기장과 벼가 습하고 마름이
또 한해를 쌓기가 어렵네.
밭에 상하 등급이 있어
곡식이 일찍 익고 늦게 익어 고르지 않겠네.
늙은 농사꾼이 밭을 말하니
만물의 뜻이 고르지 않다 하네.
아아 주나라¹³⁰⁾의 큰 복이여
잇다른 풍년에 남은 휴식이 있네.
넓은 들에 꽃과 열매가 가득하고
좋은 이랑에 훌륭한 이삭이 가득하네.
그 곡식이 많고 또 많으니
풍년이라 할 수 있네.
온 집에서 술을 여니 좋고
큰 창고에 큰 밭의 곡식을 채우네.
저 두렁과 이 밭두둑이 같아
아래 밭과 위 평의 곡식이 익네.

128) 제사:원문의 ‘報賽’는 해마다 가을에 농사를 마치고, 神의 공덕과 은혜에 보답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129) 조상에게 나아가:『시경』 「豐年」에 “술을 만들고 단 술을 만들어 조상에게 나아가 올려서, 온갖 예(禮)를 모두 구비하니 복을 내리심이 매우 두루하리로다. [爲酒爲醴, 烝畀祖妣, 以洽百禮, 降福孔皆.] ”에서 따온 표현이다.

130) 姬室:주나라. 주나라의 國姓이 ‘姬’이다.

大有治於海內
 夫活年於人間
 肆亦有於高廡
 乃迄用於康年
 偉陶累而褫運
 利克繇而攸標
 安和緩而迥蹕
 爛洪鬯而闡幽
 罄續救而申造
 殿滋緩而已彩
 庸何傷於載遵
 此亦可以延透
 遁原亦其若憑
 付道胡爲交撤
 鋪鴻藻而郁芬
 雜嘉猷而是式
 陣已往而永復
 越若來而疇比
 三其復於往蹟
 一以觀於深意
 璜聲遠而靡長
 允塵邈而難虧
 台後辰而擊節
 綴蕪辭而興吁

바다 안에 성해짐이 크게 있어
 인간의 한해가 풍년¹³¹⁾이네.
 높은 집에서 또 있어도
 풍년에 이르러 사용하네.
 아름답고 기쁨을 묶어도 되돌려놓고
 날카로움이 극해 따라도 오래 나타나네.
 편안하고 편안하니 뛰어나고 탁월하고
 넓고 울창해도 숨은 것이 밝게 빛나네.
 빈 것이 이어져 거둬 어루만지고
 전각이 번성해 이미 빛나네.
 어찌 좇아 근심하고
 또 이어져 옳다 할까.
 근원을 피하고 또 의지한다면
 도를 따르며 어찌 사림을 끊나.
 시문¹³²⁾을 펴니 성대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움과 피가 섞였으나 법은 옳네.
 이미 가서 돌아오지 않고
 와서 이랑을 비교하네.
 거둬 옛 자취 회복하니
 오로지 깊은 뜻에서 드러나는 까닭이네.
 좋은 명성이 멀게 퍼지지 못하고
 진실로 티끌이 멀어 줄어들기 어렵네.
 내가 때가 늦어 무릎을 치고
 거친 말을 꿰매며 탄식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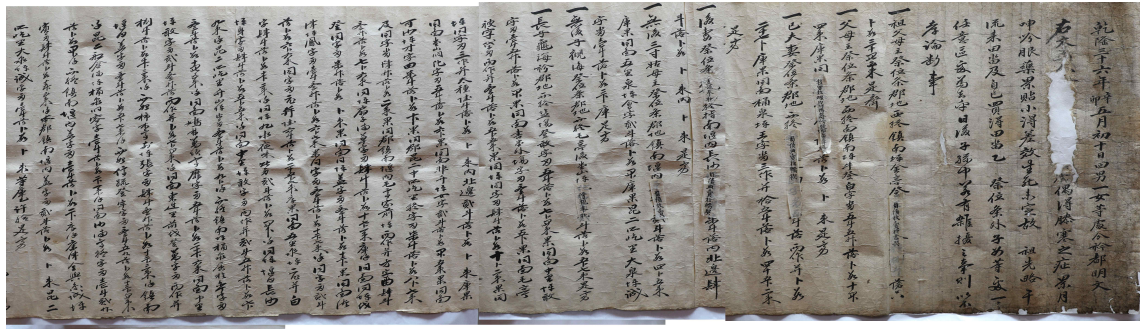
131) 풍년:원문의 ‘夫活’은 朱熹 시 “家家有廡高如許，大好人間夫活年.”의 구에서 나온 것인데, 풍년을 표시하는 말이다.

132) 시문:원문의 ‘鴻藻’는 鴻筆麗藻의 준말로, 시문이나 필력이 웅건하고 화려함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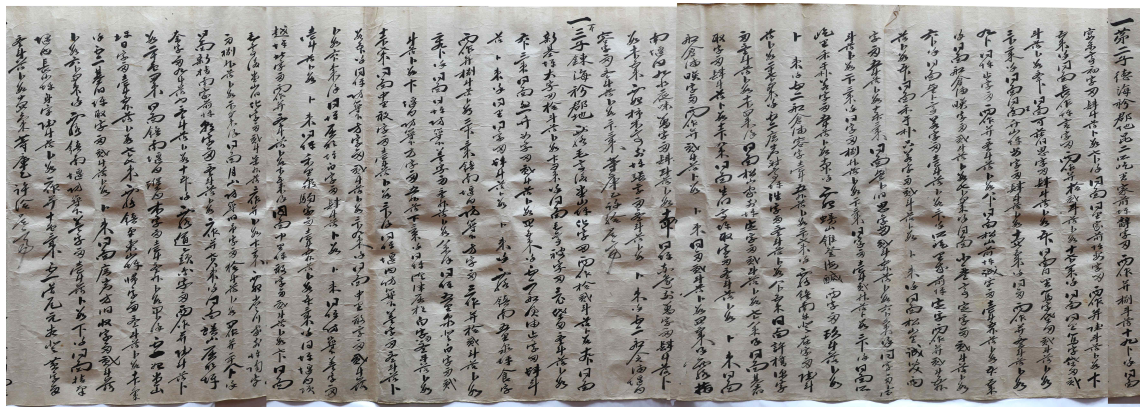
5. 明文文記類

1) 分財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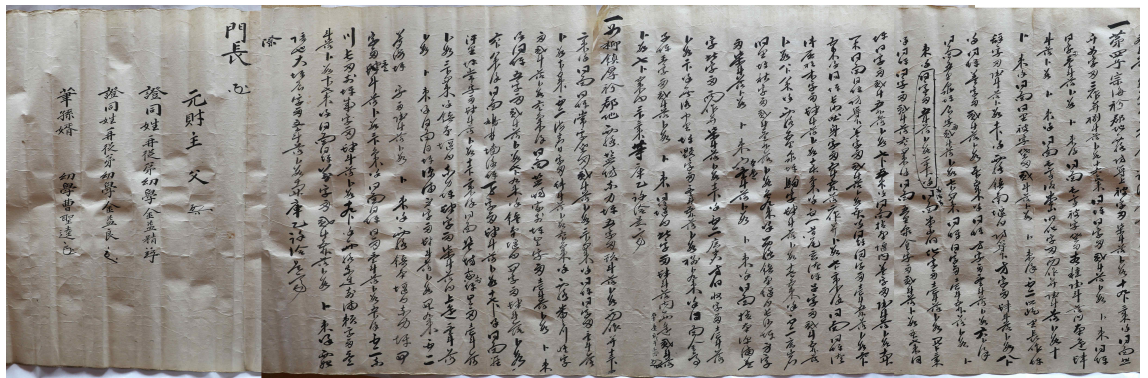
(1) 1771년(英祖47) 4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그림 41] 1771년(英祖47) 4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1



[그림 42] 1771년(英祖47) 4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2



[그림 43] 1771년(英祖47) 4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3

乾隆三十六年辛卯五月初十日 四男一女等處分_分都明文

右文爲_□……_□成 偶得膝寒之症 累月/呻吟 服藥累貼 小得差效 生死未定 故祖先略干/流來田畝 及自己買得田畝_乙 祭位條外子女等 處一一/任意區處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擾之事 則以不/孝論斷_事

一祖父母主祭位條 郡地西終 鎮南坪 金亭登「負債放賣於書契」王字畝 分種捌斗落只/ 卜數三十四卜五束是齊

一父母主祭位條 郡地西終面 鎮南坪 牛登 白字畝 五斗五升落 卜數十四卜/四束_{庫果}同「移買於堰內坪 防築傍 被字畝 三斗落只」坪 造山員在畝 陸斗落 卜數 卜 束是齊

一己夫妻祭位條 郡地西終「負債典賣於驕祺」五里泉登 駒字畝 五斗落 兩作并 卜數/二十七卜_{庫果} 同面 桶泉坪 王字畝 三作并 拾五斗落 卜數 四十五卜二束/是齊

一後妻祭位條 (支孫奉祀) 郡地西終 指南堰內 長沙「負債典賣於驕契」坪 身字畝 柒斗落內北邊 肆/斗落 卜數 卜 束內 卜 束是齊

一無後三寸姑母主祭位條 郡地鎮南堰內「負債放賣」草字畝 貳斗落 卜數四卜五束/_{庫果} 同面 五里泉坪 食字 貳斗落 卜數四卜_{庫果} 昆二 所屹里 大泉坪 誠/字畝 壹斗落 卜數三卜_庫是齊

一無後子觀海祭位條 郡地西終 毛亭後 堂山坪「傍親奉祀」化字畝 貳斗落 卜數五卜七束是齊

一長子龜海_分 郡地西終 鹽場登 敢字田 五斗落 卜數七卜四束_果 同面 中里坪 敢/字田 壹斗五升落 卜數四卜_果 同面 書堂外 場字田 參斗落 卜數五卜_果 同面 毛亭/ 被字垡田 兩作并 參斗落 卜數五卜五束_果 同坪 同字田 肆斗落 卜數十卜二束_果 同/坪 同字田 三作并太種 陸斗落 卜數 卜 束 內北邊 貳斗落 卜數 卜 束_{庫果}/ 同面 堂山洞 化字田 五斗落 卜數六卜_果 同面 非竹坪 女字 貳斗落 卜數四卜五束_果 同面/ 可沙坪 才字田 柒斗落 卜數十卜_果 同郡 昆二 中所屹里 終字田 柒斗落 卜數八卜七束/ 及同字畝 肆升落 卜數二束_果 同郡 鎮南堰內 毛亭家前坪 兩作并 方字畝 肆斗/參升落 卜數七卜六束 同坪 扇子浦 草字畝 肆斗落 卜數十七卜一束_{庫果} 同面 同坪 伐/登 同字畝 柒升落 卜數 卜 束_果 同面 同坪 蓋字畝 參斗落 卜數十二卜_果 同面 德/津坪 鳳字畝 壹斗參升落 卜數六卜七束_果 同字畝 參斗落 卜數十二卜七束_果 同字畝 貳斗/落 卜數六卜六束 同字畝 二作并 陸六斗落 卜數二十五卜七束_{庫果} 同面 五里泉坪 二作并 白/字 肆斗落 卜數十一卜二束_果 同坪 九水_{夜味} 此畝 貳斗落 卜數四卜_果 同坪 堰內 長沙/坪 身字畝 肆斗落 卜數五卜五束_果 同面 中里坪 敢字畝 兩作并 貳斗五升落 卜數七卜/九束_果 昆二 所屹里 竹山坪 止畝 參斗落 卜數九卜_果 西終 鎮南坪 桶泉屈於率字畝/ 參

斗落 卜數十四斗五束_累 同面 鳩林 萬項亭 靡字畝 五斗落 卜數二十一卜六束 同面 中里/坪 敢字畝 貳斗參升落 兩作并 卜數七卜四束_累 同面 東邊里前 伐登 萬字畝 兩作并 / 捌斗落 卜數十一卜三束_累 西始 柿木亭前坪 張字畝 肆斗參升落 卜數十三卜三束_累 鎮南/堰內 蓋字畝 參斗落 卜數五卜七束_累 西始 停疏登 宇字畝 參斗五升落 卜數十三卜四束_累 昆二 船倉浦坪 桶泉洞 容字 壹斗落 卜數二卜一束_累 同面 沙浦亭 終字畝 壹斗貳升/落 卜數四卜_累 西終 鎮南堰內 蓋字畝 壹斗落 卜數二卜_{庫乙} 康津 金與鳳 城坪/賓畝 肆斗落 卜數十五卜五束_累 本郡 鎮南堰內 蓋字畝 貳斗落 卜數 卜 束 昆二/所屹里 大泉坪 誠字畝 壹斗落 卜數 卜 束等_{庫乙} 許給_{是齊}

一第二子德海_齡 郡地 昆二 所屹里 家前坪 辭字田 兩作并 捌斗落十九卜_累 同面/ 宴樂亭 初字田 肆斗落 卜數七卜_累 同面 同里 家前坪 安字田 兩作并 陸斗落 卜數十卜/五束_累 同面 長作坪 言字田 兩作并 拾貳斗落 卜數十七卜一束_累 同面 同里 篤字垡田 貳斗落 卜數參卜 同面 可莊洞 思字田 肆斗落 卜數五卜 同面 同里 篤字垡田 貳斗落 卜數/三卜二束_累 同面 同里 竹山坪 安字畝 肆斗落 卜數十四卜五束_累 同畝 兩作并 參斗落 卜數/九卜 同坪 止字畝 兩作并 參斗落 卜數八卜 同面 松山前坪 誠字畝 壹斗五升落 卜數五卜五束_累 同面 船倉浦 暎字畝 貳斗落 卜數七卜四束_累 同面 小盤亭 定字畝 貳斗落 卜數/六卜_累 同面 興卜亭 若字畝 壹斗落 卜數三卜_累 所屹里 家前坪 定字 兩作并 貳斗五升/落 卜數五卜 同面 禾于 朴只 若字畝 貳斗落 卜數 卜 束_累 同面 松山里 誠美 兩/字畝 五斗落 卜數十五卜三束 同面 興卜洞 思字畝 貳斗五升落 卜數六卜六束_累 同字畝 壹斗落 卜數二卜三束_累 同字畝 捌升落 卜數二卜三束 同字畝 壹斗貳升落 卜數三卜_累 同面 所/屹里 禾于 朴若 字畝 五斗落 卜數十四卜_累 西始 蜈山錐登 海醜 兩字畝 玖斗落 卜數/卜 束_累 昆二 船倉浦 容字 壹斗五升落 卜數三卜七束_累 西終 鎮南 牛登 在字畝 陸斗/落 卜數二十七卜四束_累 昆二 廣巖村亭坪 往字畝 參斗落 卜數八卜五束 同面 許橋 深字/畝 參斗落 卜數十一卜四束_累 同面 松山 家前坪 定字畝 貳斗落 卜數七卜八束_累 同面 基洞/ 取字畝 肆斗落 卜數十二卜九束 同面 生洞 亭坪 取字畝 參斗落 卜數 卜 束 同面/ 船倉浦 暎字畝 兩作并 貳斗落 卜數 卜 束 同畝 貳斗落 卜數四卜五束_累 西終 指/南堰內 九水_{夜味} 萬字畝 肆斗落 卜數十四斗 同坪 東邊前 萬字畝 肆斗落 卜/數十一卜五束 西始 柿木亭前坪 張字畝 參斗落 卜數 卜 束_累 昆二 船倉浦 堰內/ 容字畝 參斗落 卜數三卜三束等_{庫乙} 許給_{是齊}

一第三子鍊海_齡 郡地 西終 毛亭後 堂山坪 化字田 兩作 拾貳斗落 卜數十九卜 同面/ 新基坪 大字田 拾斗落 卜數十卜四束_累 同面 毛亭 被字田 三作垡田 參斗落 卜數/六卜三束 同面 悲竹 女字田 貳斗落 卜數四卜五束_累 昆二 船倉浦 止字田 肆斗/落 卜 束_累

同里 同字田 肆斗落 卜數 卜 束_ㄱ 西終 鎮南 五里泉坪 食字/ 兩作并 捌斗落 卜數三十卜三束 鎮南堰內 防築下 方字畚 三作并 拾貳斗落 卜數/二十九卜_ㄱ 同面 同坪 防築下 蓋字畚 參升落 卜數八束_ㄱ 同坪 五里泉登 白字畚 貳/斗落 卜數十卜 堰內 防築下 方字畚 五升落一卜三束_ㄱ 同坪 德津屈 於白字畚 參斗落 卜數/十二卜七束 同面 中里 敢字畚 壹斗落 卜數三卜_ㄱ 同坪 堰內 防築下 蓋字畚 參斗落 卜/數五卜_ㄱ 同坪 防築下 方字畚 貳斗落 卜數三卜九束_ㄱ 同面 中里 敢字畚 貳斗落/ 卜數六卜六束_ㄱ 同坪 屈於坪 白字畚 肆斗落 卜數 卜 束 同坪 防築下 蓋字畚/ 壹斗落 卜數 卜 束 同坪 禾里泉 駒字畚 壹斗五升落 卜數五卜三束_ㄱ 同坪 堰內 項/越坪 此字畚 兩作并 參斗落 卜數十卜五束_ㄱ 同面 中里坪 敢字畚 貳斗落 卜數七卜 同面/ 毛亭後 堂山洞 化字畚 貳斗柒升落 三作并 卜數十卜二束 西始 省之川 家前坪 陶字/畚 捌升落 卜數二卜四束_ㄱ 同面 月山 防築洞 弔字畚 拾斗落 卜數 四作并 二十八卜_ㄱ/ 同面 新指南 家前坪 朝字畚 參斗落 卜數 二作并 七卜八束_ㄱ 同面 蜈山 屈於坪/ 奈字畚 九斗落內 參斗落 卜數十五卜_ㄱ 西終 道乙頭 鳳字畚 兩作并 陸斗落 卜/數二十六卜四束 同面 鎮南堰內 {_?+堡}內 木字畚 壹斗參升 卜數四卜_ㄱ 昆一始 堂山/坪 日字畚 壹斗五升落 卜數七卜七束 西終 鎮南 東山坪 歸字畚 參斗落 卜數十一卜六束/_ㄱ 昆二 基洞坪 取字畚 貳斗落 卜數 卜 束 同面 廣巖方洞 收字畚 貳斗落/ 卜數六卜四束_ㄱ 西終 鎮南堰 防築下 蓋字畚 壹斗落 卜數一卜_ㄱ 同面 指南/堰內 長沙坪 身字 陸斗落 卜數 二作并 十六卜三束 昆一 骨尾 元太登 黃字畚/ 參斗落 卜數十四卜六束等_{庫乙} 許給_{是齊}

一第四子宗海_紘 郡地 西終 防築上 被字田 柒斗落 卜數十九卜三束_ㄱ 同面 悲/竹 女字田 三作并 捌斗落 卜數十六卜七束 同坪 同字田 貳斗落 卜數 卜 束 同坪/ 同字田 參斗落 卜數 卜 束_ㄱ 同面 毛亭 被字垡田 太種 陸斗落內 南邊 肆/斗落 卜數 卜 束_ㄱ 同面 毛亭後 堂山洞 化字田 兩作并 陸斗落 卜數十/卜 束_ㄱ 同面 同里 被字垡田 貳斗落 卜數 卜 束_ㄱ 昆二 所屹里 長作坪/ 辭字田 陸斗落 卜數十一卜_ㄱ 西終 鎮南堰內 防築下 方字畚 肆斗落 卜數八卜/_ㄱ 同坪 蓋字畚 貳斗落 卜數五卜五束_ㄱ 同坪 方字畚 參斗落 卜數六卜_ㄱ/ 同面 五里泉坪 食字畚 貳斗落 卜數七卜四束 同坪 同字畚 壹斗五升落 卜數 卜/束_ㄱ 同字畚 五斗落 卜數二十一卜_ㄱ 同面 堂山洞 化字畚 壹斗落 卜數四卜三束/_ㄱ 同坪 同字畚 貳斗落六卜四束_ㄱ 同面 五里泉 食字畚 貳斗落 卜數五卜七束 同/坪 同字畚 貳斗五升落 卜數七卜五束_ㄱ 同面 指南堰內 蓋字畚 陸斗落 卜數十四卜/一束 同面 同坪 防築下 蓋字畚 貳斗落 卜數五卜_ㄱ 同坪 同字畚 壹斗五升落 卜數六卜/五束_ㄱ 同坪 長沙吐 身字畚 五斗五升落 二作并 卜數七卜二束_ㄱ 同面 同坪 德/津屈 於木字畚 肆斗落 卜數十五卜六束_ㄱ 昆一 骨尾 玄德坪 呂字畚 貳斗五升落

/ 卜數八卜八束_ㄱ 西終 五里泉坪 駒字 肆斗落 卜數十七卜五束_ㄱ 昆二 廣巖/洞 里坪
 秋_ㄱ 貳斗參升落 卜數六卜九束_ㄱ 西終 鎮南堰內 長沙坪 身字/畓 柒斗落 卜數 卜
 束內 南邊 參斗落 卜 束_ㄱ 同面 指南 深浦 蓋/字 此字畓 兩作并 柒斗落 卜數十二
 卜_ㄱ 昆二 廣巖 方洞 收字畓 壹斗落/ 卜數二卜_ㄱ 西終 中里坪 毀字畓 參斗五升落 卜
 數捌卜九束_ㄱ 同面 金亭/子坪 王字畓 貳斗落 卜數 卜 束 同坪 堰內 此字畓 肆斗落
 內 西邊 貳斗落「南邊二斗還給[着名]」/ 卜數七卜五束內 三卜三束等_{庫乙} 許給_{是齊}
 一女柳鎮厚_經 郡地 西終 鹽場東力坪 五字田 玖斗落 卜數 兩作并 十三卜/二束_ㄱ 同面
 同坪 常字垵田 貳斗落 卜數三卜四束_ㄱ 同坪 同字田 參斗落/ 卜數十卜五束 昆二 海巖
 日字田 肆斗落 卜數六卜五束_ㄱ 西終 番之川 惟字/畓 貳斗落 卜數六卜六束_ㄱ 同面 鹽
 場 家前坪 豈字畓 壹斗落 卜數 卜 束/_ㄱ 同坪 五字畓 貳斗落 卜數七卜九束_ㄱ 鎮南
 堰內 四字畓 肆斗落 卜數/六卜八束_ㄱ 同面 鳩林 墻後坪 方字畓 肆斗落 卜數十七卜_ㄱ
 同面 藏/汗里坪 常字畓 肆斗落 卜數十二卜二束_ㄱ 同面 鹽場家前坪 豈畓 壹斗落/ 卜
 數三卜四束_ㄱ 鎮南堰內 東力坪 肆字畓 柒斗落內 上邊 參斗落/ 卜數 卜 束_ㄱ 同面
 同坪 深浦 身字畓 肆斗落 卜數四卜九束 昆二/ 夢海坪 字畓 陸斗落 卜數 卜 束_ㄱ
 西終 鎮南堰內 東力坪 四/字畓 參斗落 卜數三卜六束_ㄱ 同面 同坪 同畓 參斗落 卜數
 五卜_ㄱ 昆二 東/川 長田前坪 成字畓 肆斗落 卜數十九卜_ㄱ 西終 東邊 前浦 賴字畓 參
 / 斗落 卜數十卜七束_ㄱ 同面 同坪 萬字畓 貳斗落升落 卜數 卜 束_ㄱ 西始/ 陪也大
 坪 辰字畓 參斗落 卜數十四卜_{庫乙} 許給_{是齊}

際

門長[着名]

元財主 父[着名]

證同姓再從弟幼學金益精[着名]

證同姓再從弟幼學金益良[着名]

筆孫婿 幼學曹聖達[着名]

건륭36년(英祖47, 1771) 신묘(辛卯) 1월 초10일 4남 1녀등 분깃도명문(分衿都明文)

이 명문은 □……□¹³³⁾ 우연히 얻은 슬한증(膝寒症)¹³⁴⁾으로 여러 달 신음하며 약을 먹

133) □……□: 원문에서 결락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134) 膝寒症: 元氣가 허한 데다가 찬 기운에 상하여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이다. 노인에게 자주 나타난다.

은 게 여러 첨인데 차도가 조금이고 생사도 알 수 없으니 선조에게 약간 물려받은 전답과 내가 산 전답을 제위조(祭位條)¹³⁵를 제외하고 자녀들에게 일일이 임의로 안배한다. 나중에 자손 중에서 만약 시끄러움이 섞이는 일이 있으면 불효로써 죄를 따져 처벌할 일.

1. 조부모님 제위조는 군 땅 서종면(西終面) 진남평(鎭南坪) 금정등(金亭登)「부채로 방매(放賣)¹³⁶한 서계(書契)」 왕자(王字) 논 분종(分種)¹³⁷ 8두락지(斗落只), 세금(卜數)은 34복(卜) 5속(束)이다.

1. 부모님 제위조는 군 땅 서종면 진남평 우등(牛登) 백자(白字) 논 5두 5승락(升落), 세금은 14복 4속과 같은 평「웁겨 산 언내(堰內) 평 방죽 옆 피자(披字) 논 3두락지, 조산원에 있는 논 6두락지, 세금 □복 □속이다.

1. 나와 내 아내 제위조는 군 땅 서종「부채로 전매(典賣)¹³⁸한 교계(驕稜)」 5리 천등(泉登) 구자(駒字) 논 5두락, 생산량은 2작병, 세금은 27복인 곳과 같은 면의 통천평(桶泉坪) 왕자 논 생산량은 3작병 합쳐서 5두락, 세금 45복 2속이다.

1. 후처 제위조는(지손(支孫)이 제사) 군 땅 서종면 지남언(指南堰) 내 장사평(長沙坪)「부채로 전매한 교계」 신자(身字) 논 7두락 내 북쪽 변두리 4두락, 세금은 □복 □속 내 □복 □속이다.

1. 후손이 없는 삼촌, 고모주 제위조는 군 땅 진남언 내「부채로 방매」 초자(草字) 논 2두락 세금 4복 5속인 곳과 같은 면 5리 천평(泉坪) 식자(食字) 2두락 세금 4복인 곳과 곤이종면(昆二終面) 소흘리(所屹里) 대천평(大泉坪) 성자(誠字) 논 1두락 세금 3복인 곳이다.

1. 후손이 없는 김관해(金觀海) 제위조는 군 땅 서종면 모정(毛亭) 뒤 당산평(堂山坪)「방계 친족이 제사」 화자(化字) 논 2두락, 세금 5복 7속이다.

1. 장자 김구해(金龜海) 몫은 군 땅 서종면 염장등(鹽場登) 감자(敢字) 밭 5두락, 세금 7복 4속과 같은 면 중리평(中里坪) 감자 밭 1두 5승락, 세금 4복과 같은 면 서당(書堂) 바깥쪽 장자(場字) 밭 3두락, 세금 5복과 같은 면 모정 피자 집 터와 밭, 생산량 2작병, 3두락, 세금 5복 5속과 같은 평 같은 자 밭 4두락, 세금 10복 2속과 같은 평

135) 祭位條:제위란 제사를 받는 神位를 뜻한다. 신위란 죽은 이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를 말한다. 位牌 혹은 神主나 紙榜 같은 것이 신위에 해당한다. 제위조는 직계 선조를 모시기 위한 토지와 노비 등을 말한다.

136) 放賣:물건을 내놓고 마구 파는 것이다. 斥賣.

137) 分種:한 폐기의 논밭을 서로 나누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分作.

138) 典賣:本錢을 주고 도로 사들일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파는 것. 또는 典當잡힌 물건을 賣却하는 것이다.

같은 자 밭, 생산량 3작병, 쿵(太種)을 심는 6두락, 세금 □복 □속. 안쪽의 북쪽 가
 장자리 2두락 세금 □복 □속인 곳과 같은 면 당산동(堂山洞) 화자(化字) 밭 5두락,
 세금 6복과 같은 면 비죽평(非竹坪) 안자(女字) 2두락, 세금 4복 5속과 같은 면 가소
 평(可沙坪) 재자(才字) 밭 7두락, 세금 10복과 같은 군 곤이중면 중소홀리(中所屹里)
 종자(終字) 밭 7두락, 세금 8복 7속 및 같은 자 논 4승락, 세금 2속과 같은 군 진남
 언 내 모정 집 앞 평 생산량 2작병, 방자 논 4두 3승, 세금 7복 6속, 같은 평 선자포
 (扇子浦) 초자(草字) 논 4두락, 세금 17복 1속인 곳과 같은 면 같은 평 벌등(伐登)
 같은 자 논 7두락, 세금 □복 □속과 같은 면 같은 평 개자(蓋字) 논 3두락, 세금 12
 복과 같은 면 덕울평(德津坪) 봉자(鳳字) 논 1두 3승락, 세금 6복 7속과 같은 자 논
 3두락, 세금 12복 7속과 같은 자 논 2두락, 세금 6복 6속, 같은 자 논, 생산량 2작병,
 66두락, 세금 25복 7속인 곳과 같은 면 5리 천평(泉坪), 생산량 2작병, 백자(白字) 4
 두락, 세금 11복 2속과 같은 평 구수(九水) 배미(夜味) 논 2두락, 세금 4복과 같은
 평 독 안의 장소평(長沙坪) 신자 논 4두락, 세금 5복 5속과 같은 면 중리평(中里坪)
 감자 논, 생산량 2작병, 2두 5승락, 세금 7복 9속과 곤이중면 소홀리 죽산평 지자(止
 字) 논 3두락, 세금 9복과 서종 진남평 통천굴(桶泉屈)에 솔자(率字) 논 3두락, 세금
 14두 5속과 같은 면 구림(鳩林) 만항정(萬項亭) 미자(靡字) 논 5두락, 세금 21복 6속,
 같은 면 중리평 감자 논 2두 3승락, 생산량 2작병, 세금 7복 4속과 같은 면 동변리
 (東邊里) 앞 벌등 만자 논, 생산량 2작병, 8두락, 세금 11복 3속과 서종면 시목정(柿
 木亭) 앞 평 장자(張字) 논 4두 3승락, 세금 13복 3속과 진남원(鎭南堰) 내 개자 논
 3두락, 세금 5복 7속과 서종 정소등(停疏登) 우자(宇字) 논 3두 5승락, 세금 13복 4
 속과 곤이중면 선창포평(船倉浦坪) 통천동(桶泉洞) 용자(容字) 1두락, 세금 2복 1속
 과 같은 면 사포정(沙浦亭) 종자 논 1두 2승락, 세금 4복과 서종면 진남원 안 개자
 논 1두락, 세금 2복인 곳과 강진(康津) 김홍봉(金與鳳)에게 성평(城坪)의 빌려주는
 논 4두락, 세금 5복 5속과 본군 진남원 내 개자 논 2두락, 세금 □복 □속, 곤이중면
 소홀리 대천평(大泉坪) 성자 논 1두락, 세금 □복 □속 등 곳을 허락하여 준다.

1. 제2자 김덕해(金德海) 묶은 군 땅 곤이중면 소홀리 집 앞 평 사자(辭字) 밭, 생산량
 2작병, 8두락 19복과 같은 면 연악정(宴樂亭) 초자(初字) 밭 4두락, 세금 7복과 같은
 면 같은 리 집 앞 평 안자(安字) 밭, 생산량 2작병, 6두락, 세금 10복 5속과 같은 면
 장작평(長作坪) 언자(言字) 밭, 생산량 2작병, 12두락, 세금 17복 1속과 같은 면 같은
 리 독자(篤字) 집터와 밭 2두락, 세금 3복, 같은 면 가장동(可莊洞) 사자(思字) 밭 4
 두락, 세금 5복, 같은 면 같은 리 독자 집터와 밭 2두락, 세금 3복 2속과 같은 면 같

은 리 죽산평 안자 는 4두락, 세금 14복, 5속과 같은 는 생산량 2작병, 3두락, 세금 9복, 같은 평 지자(止字) 는, 생산량 2작병, 3두락, 세금 8복, 같은 면 송산(松山) 앞 평 성자 는 1두 5승락, 세금 5복 5속과 같은 면 선창포(船倉浦) 영자(暎字) 는 2두락, 세금 7복, 4속과 같은 면 소반정(小盤亭) 정자(定字) 는 2두락, 세금 6복과 같은 면 흥복정(興卜亭) 약자(若字) 는 1두락, 세금 3복과 소흘리 집 앞 평 정자, 생산량 2작병, 2두 5승락, 세금 5복, 같은 면 벼를 심는 용도의(禾于朴只) 약자 는 2두락, 세금 복 속과 같은 면 송산리(松山里) 성미(誠美) 양자(兩字) 는 5두락, 세금 15복 3속, 같은 면 흥복동(興卜洞) 사자 는 2두 3승락, 세금 6복 6속과 같은 자 는 1두락, 세금 2복 3속과 같은 자 는 8승락, 세금 2복 3속, 같은 자 는 1두 2승락, 세금 3복과 같은 면 소흘리 벼를 심는 용도의 약자 는 5두락, 세금 14복과 서종면 오산(蜈山) 추등(錐登) 해함(海鹹) 양자 는 9두락, 세금 □복 □속과 곤이중면 선창포 용자 1두 5승락, 세금 3복 7속과 서종 진남 우등 재자 는 6두락, 세금 27복 4속과 곤이중면 광암촌(廣巖村) 정평(亭坪) 왕자(往字) 는 3두락, 세금 8복 5속, 같은 면 허교(許橋) 심자(深字) 는 3두락, 세금 11복 4속과 같은 면 송산 집 앞 평 정자 는 2두락, 세금 7복 8속과 같은 면 기동(基洞) 취자(取字) 는 4두락, 세금 12복 9속, 같은 면 생동(生洞) 정평(亭坪) 취자 는 3두락, 세금 □복 □속, 같은 면 선창포 영자 는, 생산량 2작병, 2두락, 세금 □복 □속, 같은 는 2두락, 세금 4복 5속과 서종면 지남원 내 구수(九水) 배미[夜味] 만자 는 4두락, 세금 14두, 같은 평 동변(東邊) 앞 만자 는 4두락, 세금 11복 5속, 서종면 시목정 앞 평 장자(張字) 는 3두락, 세금 □복 □속과 곤이중면 선창포 언덕 내 용자 는 3두락, 세금 3복 3속등 곳을 허락하여 준다.

1. 제3자 김연해(金鍊海) 뚝은 군 땅 서종면 모정 뒤 당산평(堂山坪) 화자(化字) 밭, 생산량 2작병, 12두락, 세금 19복, 같은 면 신기坪(新基坪) 대자(大字) 밭 10두락, 세금 10복 4속과 같은 면 모정 피자(被字) 밭, 생산량 3작병, 집터와 밭 삼두락, 세금 6복 3속, 같은 면 비죽(悲竹) 여자(女字) 밭 2두락, 세금 4복 5속과 곤이중면 선창포 지자 밭 4두락, 세금 □복 □속과 같은 리 같은 자 밭 4두락, 세금 □복 □속과 서종면 진남 오리친평 식자 생산량 2작병 8두락, 세금 30복 3속, 진남원 내 방죽 아래 방자 는 생산량 3작병 12두락, 세금 29복과 같은 면 같은 평 방죽 아래 개자 는 3승락, 세금 8속과 같은 평 5리 천등 백자 는 2두락, 세금 10복, 언 내 방죽 아래 방자 는 5승락 1복 3속과 같은 평 덕진굴(德津屈)에 백자 는 3두락, 세금 12복 7속, 같은 면 중리 감자 는 1두락, 세금 3복과 같은 평 언 내 방죽 아래 개자 는 3두락, 세금 5복과 같은 평 방죽 아래 방자 는 2두락, 세금 3복 9속과 같은 면 중리 감자 는 2두

락, 세금 6복 6속과 같은 평 굴어평(屈於坪) 백자 논 4두락, 세금 □복 □속, 같은 평 방죽 아래 개자 논 1두락, 세금 □복 □속, 같은 평 화리천(禾里泉) 구자(駒字) 논 1두 5승락, 세금 5복 3속과 같은 평 언덕 내 항월평(項越坪) 차자 논, 생산량 2작병, 3두락, 세금 10복 5속과 같은 면 중리평 감자 논 2두락, 세금 7복, 같은 면 모정 뒤 당산동 화자 논 2두 7승락, 생산량 3작병, 세금 10복 2속, 서시성(西始省)의 넷가 집 앞 평 도자(陶字) 논 8두락, 세금 2복 4속과 같은 면 월산(月山) 방죽동(防築洞) 조자(弔字) 논 10두락, 세금 생산량 4작병 28복과 같은 면 신지(新指) 남쪽 집 앞 평 조자(朝字) 논 3두락, 세금 생산량 2작병 7복 8속과 같은 면 오산골에 평 내자(奈字) 논 9두락 내 3두락, 세금 15복과 서종 도홀머리[道乙頭] 봉자 논, 생산량 2작병, 6두락, 세금 26복 4속, 같은 면 진남원 내 보(보+堡) 내 목자(木字) 논 1두 3승락, 세금 4복과 곤일(昆一) 시당산평 일자(日字) 논 1두 5승락, 세금 7복 7속, 서종 진남 동산 평 귀자 논 3두락, 세금 11복 6속과 곤이중면 기동평(基洞坪) 감자 논 2두락, 세금 □복 □속, 같은 면 광암방동(廣巖方洞) 수자 논 2두락, 세금 6복 4속과 서종면 진남 언 방죽 아래 개자 논 1두락, 세금 1복과 같은 면 진남언 내 장소평 신자 6두락, 세금 생산량 2작병 16복 3속, 곤일(昆一) 골미(骨尾) 원태등(元太登) 황자(黃字) 논 3두락, 세금 14복 6속 등 곳을 허락하여 준다.

1. 제4차 김종해(金宗海) 뒹은 군 땅 서종면 방죽 위 피자 밭 7두락, 세금 19복 3속과 같은 면 비죽 여자 밭, 생산량 3작병, 8두락, 세금 16복 7속, 같은 평 같은 자 밭 2두락, 세금 □복 □속, 같은 평 같은 자 밭 3두락, 세금 □복 □속과 같은 면 모정 피자 집터와 밭, 콩을 심는 6두락 내 남변 4두락, 세금 복 속과 같은 면 모정 뒤 당산동 화자 밭, 생산량 2작병, 6두락, 세금 10복 속과 같은 면 같은 리 피자 집터와 밭 2두락, 세금 □복 □속과 곤이중면 소홀리 장작평 사자 밭 6두락, 세금 11복과 서종면 진남언 내 방죽 아래 방자 논 4두락, 세금 8복과 같은 평 개자 논 2두락, 세금 5복 5속과 같은 평 반자 논 3두락, 세금 6복과 같은 면 5리 천평 식자 논 2두락, 세금 7복 4속, 같은 평 같은 자 논 1두 5승락, 세금 □복 □속과 같은 자 논 5두락, 세금 21복과 같은 면 당산동 화자 논 1두락, 세금 4복 3속과 같은 평 같은 자 논 2두락 6복 4속과 같은 면 5리 천 식자 논 2두락, 세금 5복 7속, 같은 평 같은 자 논 2두 5승락, 세금 7복 5속과 같은 면 지남언 내 개자 논 6두락, 세금 14복 1속, 같은 면 같은 평 방죽 아래 개자 논 2두락, 세금 5복과 같은 평 같은 자 논 1두 5승락, 세금 6복 5속과 같은 평 장사토(長沙吐) 신자 논 5두 5승락, 생산량 2작병, 세금 7복 2속과 같은 면 같은 평 덕진골에 목자 논 4두락, 세금 15복 6속과 곤일 골미 현덕평

(玄德坪) 여자(呂字) 논 2두 5승락, 세금 8복 8속과 서종 오리천평 구자 4두락, 세금 17복 5속과 곤이종면 광암동(廣巖洞) 이평(里坪) 추자(秋字) 논 2두 3승락, 세금 6복 9속과 서종면 진남언 내 장사평 신자 논 7두락, 세금 □복 □속, 내 남변 3두락 복속과 같은 면 지남심포(指南深浦) 개자, 차자 논, 생산량 2작병, 7두락, 세금 12복과 곤이종면 광암 방동(方洞) 수자 논 1두락, 세금 2복과 서종 중리평 훼자(毀字) 논 3두 5승락, 세금 8복 9속과 같은 면 금정자평(金亭子坪) 왕자 논 2두락, 세금 □복 □속, 같은 평 언덕 내 차자 논 4두락 내 서쪽 변두리 2두락 「남쪽 변두리 2두 돌려 줌.[착명]」, 세금 7복 5속 내 3복 3속 등 곳을 허락하여 준다.

1. 딸(사위) 류진후(柳鎭厚) 몫은 군 땅 서종면 염장(鹽場) 동력평(東力坪) 오자(五字) 밭 9두락, 세금 생산량 2작병 13복 2속과 같은 면 같은 평 상자(常字) 집터와 밭 2두락, 세금 3복 4속과 같은 평 같은 자 밭 3두락, 세금 10복 5속, 곤이종면 해암(海巖) 일자 밭 4두락, 세금 6복 5속과 서종면 번지천(番之川) 유자 논 2두락, 세금 6복 6속과 같은 면 염장가전평(鹽場家前坪) 기자(豈字) 논 2두락, 세금 □복 □속과 같은 평 오자 논 2두락, 세금 7복 9속과 진남언 내 사자 논 4두락, 세금 6복 8속과 같은 면 구림장(鳩林墻) 뒤 평 방자 논 4두락, 세금 17복과 같은 면 장한리평(藏汗里坪) 상자 논 4두락, 세금 12복 2속과 같은 면 염장 집 앞 평 기자 논 1두락, 세금 3복 4속과 진남언 내 동력평 사자 논 7두락 내 위쪽 변두리 3두락, 세금 □복 □속과 같은 면 같은 평 심포(深浦) 신자 논 4두락, 세금 4복 9속, 곤이종면 몽해평(夢海坪) 자 논 6두락, 세금 □복 □속과 서종면 진남언 내 동력평 사자 논 3두락, 세금 3복 6속과 같은 면 같은 평 같은 논 3두락, 세금 5복과 곤이 동천장(東川長) 밭 앞 평 성자 논 4두락, 세금 19복과 서종면 동쪽 변두리 앞 포 퇴자(賴字) 논 3두락, 세금 10복 7속과 같은 면 같은 평 만자 논 2두 승락, 세금 □복 □속과 서종 배야대평(陪也大坪) 진자(辰字) 논 3두락, 세금 14복 곳을 허락하여 준다.

문장(門長)[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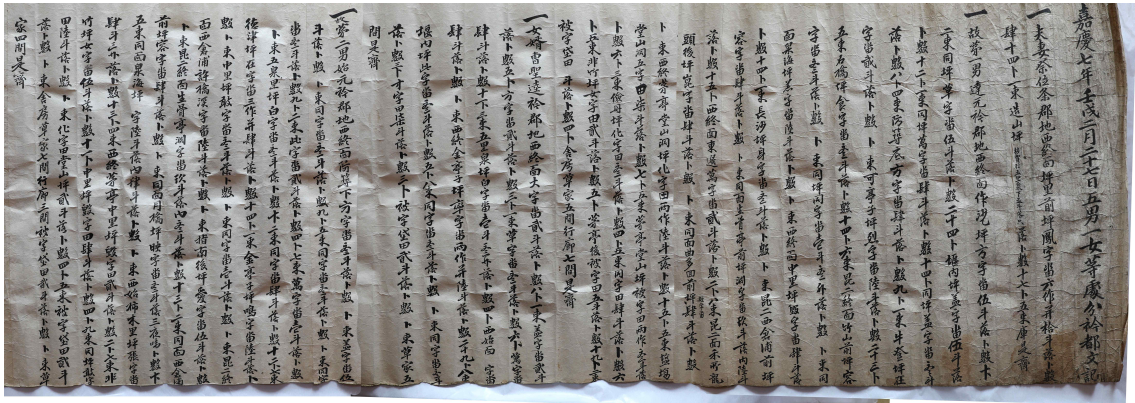
원 재물 주인(元財主) 아버지[착명]

증인 같은 성씨(同姓) 재종제(再從弟) 유학 김익정(金益精)[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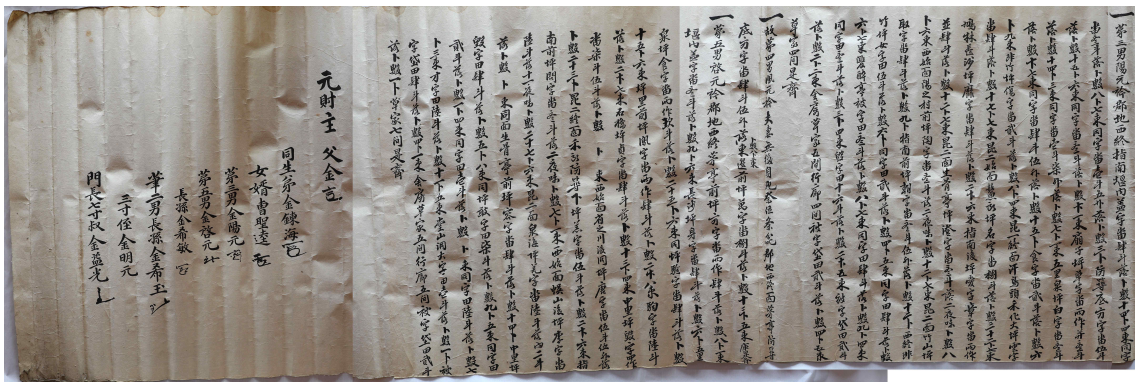
증인 같은 성씨 재종제 유학 김익양(金益良)[착명]

필집(筆執) 손서(孫婿) 유학 조성규(曹聖逵)[착명]

(2) 1802년(純祖2) 5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그림 44] 1802년(純祖2) 5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1



[그림 45] 1802년(純祖2) 5남 1녀 등 분재기(分財記) 2

嘉慶七年壬戌二月二十七日 五男一女等處分份都文記

一夫妻祭位條 郡地 西終面 坪里 前坪 鳳字畓 六作并拾斗落 卜數/肆十四卜一束 造山坪 移買 於五里泉下 五斗落只落 卜數十七卜五束 庫是齋

一故第一男達元 份 郡地 西終面 作芝坪 方字畓 伍斗落 卜數十卜/二束 同坪 草字畓 伍斗落 卜數二十四卜 堰內坪 蓋字畓 伍斗落/ 卜數十二卜一束 同坪 萬字畓 肆斗落 卜數十四卜 同坪 蓋字畓 參斗/落 卜數八卜四束 防築底 方字畓 肆斗落 卜數九卜一束 牛登坪 在/字畓 貳斗落 卜數 卜 束 可亭子坪 烈字畓 陸斗落 卜數二十三卜/五束 石橋坪 食

- 字畚 參斗落 卜數十四卜六束 昆二終面 竹山前坪 容/字畚 參斗落 卜數 卜 束 同坪
 同字畚 壹斗參升落 卜數 卜 束 同/面 泉海坪 羔字畚 陸斗落 卜數 卜 束 西終面
 中里坪 毀字畚 肆斗落/ 卜數十四卜一束 長沙坪 身字畚 參斗落 卜數 卜 束 昆二 西
 倉浦前坪/ 容字畚 肆斗落 卜數 卜 束 同面 生骨亭前坪 淵字畚 玖斗落 內陸斗/落
 卜數十五卜 西終面 東邊 萬字畚 貳斗落 卜數二卜八束 昆二面 禾所龍/ 頭後坪 崑字畚
 肆斗落 卜數 卜 束 同面 曲多回前坪 短字畚 肆斗落 卜數/ 卜 束 西終 茅亭 堂山
 洞坪 化字田 兩作陸斗落 卜數十五卜五束 鹽場/ 堂山洞 五字田 柒斗落 卜數七卜五束
 茅亭 堂山坪 被字田 兩作參斗落/ 卜數六卜三束 儉丹坪 化字田 參斗落 卜數四卜五束
 同字田 肆斗落 卜數六/卜五束 非竹坪 女字田 貳斗落 卜數五卜 茅亭後 被字田 五斗落
 卜數十九卜二束/ 被字垡田 斗落 卜數四卜 舍房草家五間 行廊七間是齊
- 一女媾曹聖遠^衿 郡地 西終面 大字畚 貳斗落 卜數八卜一束 蓋字畚 貳斗/落 卜數五卜 方
 字畚 貳斗落 卜數三卜一束 草字畚 參斗落 卜數六卜 萬字畚/ 肆斗落 卜數十一卜三束
 五里泉坪 白字畚 壹斗參升落 卜數四卜 西始面 字畚/ 肆斗落 卜數 卜 束 西終 金
 亭子坪 率字畚 兩作并 陸斗落 卜數二十九卜八束/ 堰內坪 此字畚 參斗落 卜數五卜八
 束 同字畚 參斗落 卜數 卜 束 同字畚 參斗/落 卜數三卜 寸字田 柒斗落 卜數三卜
 被字垡田 貳斗落 卜數 卜 束 草家五/間是齊
- 一故第二男始元^衿 郡地 西終面 防禦下 方字畚 參斗落 卜數 卜 束 蓋字畚 伍/斗落 卜
 數 卜 束 同字畚 參斗落 卜數九卜五束 同字畚 參斗落 卜數 卜 束 同字/畚 參斗
 落 卜數九卜二束 此字畚 貳斗落 卜數四卜七束 萬字畚 壹斗落 卜數/ 卜 束 五泉里
 坪 白字畚 參斗落 卜數十卜二束 同字畚 肆斗落 卜數十二卜七束/ 德津坪 在字畚 三作
 并 肆斗落 卜數十四卜一束 金亭子坪 鳴字畚 陸斗落 卜/數 卜 束 中里坪 敢字畚 參
 斗落 卜數 卜 束 同字畚 壹斗落 卜數 卜 束 昆二終/面 西倉浦 許橋 深字畚 陸斗
 落 卜數 卜 束 指南後坪 愛字畚 伍斗落 卜數/ 卜 束 昆二終面 生骨亭 淵字畚 玖
 斗落內 參斗落 卜數十三卜二束 同面 西倉浦/前坪 容字畚 肆斗落 卜數 卜 束 同面
 月橋坪 映字畚 參斗落三^{夜味} 卜數十卜/五束 同面 泉海坪 字 陸斗落內 肆斗落 卜數
 卜 束 西始 柿木里坪 張字畚/ 肆斗三升落 卜數十三卜四束 西終 茅亭 中里坪 毀字
 田 貳斗落 卜數二卜七束 非/竹坪 女字畚 伍斗落 卜數十一卜 中里坪 毀字田 肆斗落
 卜數四卜九束 同坪 敢字/田 陸斗落 卜數 卜 束 化字田 堂山坪 貳斗落 卜數四卜五束
 被字垡田 貳斗/落 卜數 卜 束 舍房草家七間 行廊三間 被字垡田 貳斗落 卜數 卜
 束草/家四間是齊
- 一第三男陽元^衿 郡地 西終 指南堰內 蓋字畚 肆斗落 卜數十四卜四束 同字/畚 參斗落 卜

數八卜七束 同字畚 壹斗五升落 卜數三卜 防築底 方字畚 伍斗/落 卜數十五卜六束 同字畚 參斗落 卜數十卜一束 扇子坪 草字畚 兩作并 參斗/落 卜數十四卜三束 同字畚 壹斗柒升落 卜數七卜一束 五里泉坪 白字畚 參斗/落 卜數十卜七束 同字畚 肆斗伍升落 卜數十五卜 食字畚 貳斗落 卜數六/卜九束 非竹坪 傷字畚 貳斗落 卜數八卜四束 昆一終面 汗鳥頭 禾化大坪 雲字/畚 肆斗落 卜數十七卜七束 昆二始面 鰲郎坪 名字畚 捌斗落 卜數三十二卜七束/ 鳩林 長沙坪 靡字畚 肆斗落 卜數二十卜六束 指南後坪 愛字章字畚 兩作/竝 肆斗落 卜數十二卜七束 昆二面 生骨亭坪 澄字畚 參斗落二夜味 卜數八/卜六束 西始面 陽之村前坪 陶字畚 參斗落二夜味 卜數十二卜七束 昆二面 竹山坪/ 取字畚 肆斗落 卜數九卜 指南前坪 朝字畚 參斗伍升落 卜數十二卜 西終 非/竹坪 女字田 伍斗落 卜數六卜 同字田 貳斗落 卜數四卜五束 同字田 肆斗落 卜數/六卜七束 雙醉亭 被字田 參斗落 卜數八卜七束 同字田 肆斗落 卜數九卜四束/ 同字田 參斗落 卜數三卜四束 毀字田 十六斗落 卜數二十卜五束 被字垆田 貳斗/落 卜數二卜二束 舍房草家五間 行廊四間 被字垆田 貳斗落 卜數四卜五束/ 草家四間是齊

一故第四男鳳元紘 夫妻無後身死祭位條紘 郡地 西終面 茅亭 防築/底 方字畚 肆斗伍升落 卜數八卜三束 東邊前坪 萬字畚 捌斗落 卜數十三卜五束庫是齊

一第五男啓元紘 郡地 西終 茅亭前坪 方字畚 兩作 肆斗落 卜數八卜一束/ 堰內 蓋字畚 參斗落 卜數九卜六束 長沙坪 身字畚 肆斗落 卜數六卜 五里/泉坪 食字畚 兩作 玖斗落 卜數二十五卜六束 同坪 駒字畚 肆斗落 卜數/十五卜六束 坪里前坪 鳳字畚 兩作 肆斗落 卜數二十卜八束 駒字畚 陸斗/落 卜數二十卜七束 石橋坪 貞字畚 肆斗落 卜數十三卜四束 中里坪 毀字 四作/畚 柒斗伍斗落 卜數 卜 束 西始面 省之川 後洞坪 唐字畚 伍斗伍升落/ 卜數二十三卜 昆二終面 禾郎防築下坪 羔字畚 伍斗落 卜數二十卜六束 指/南前坪 問字畚 參斗落二夜味 卜數七卜一束 西始面 蜈山後坪 李字畚/ 陸斗落十一夜味 卜數二十七卜六束 昆二面 泉海坪 羌字畚 陸斗落內 二斗/落 卜數 卜 束 同面 生骨亭前坪 容字畚 肆斗落 卜數十四卜 中里坪/ 毀字田 肆斗落 卜數五卜八束 同坪 敢字田 柒斗落 卜數九卜五束 同字田/ 貳斗落 卜數一卜四束 同字田 壹斗落 卜數 卜 束 同字田 陸斗落 卜數七/卜三束 才字田 陸斗落 卜數十一卜五束 堂山洞 大字田 壹斗落 卜數一卜 被/字垆田 肆斗落 卜數四卜一束 舍房草家五間 行廊五間 被字垆田 貳斗/落 卜數一卜 草家七間是齊

元財主 父金[着名]

同生弟金鍊海[着名]

女婿曹聖達[着名]

第三男金陽元[着名]
 第五男金啓元[着名]
 長孫金希敏[着名]
 筆二男長孫金希玉[着名]
 三寸侄金明元
 門長七寸叔金益光[着名]

가경 7년(純祖2, 1802) 임술 2월 27일 5남 1녀 등 분깃도명문(分衿都明文)

1. 나와 내 아내 제위조(祭位條)는 군 땅 서종면(西終面) 평리(坪里) 앞 평 봉자(鳳字)는, 생산량 6작병, 10두락, 세금 44복 1속, 조산평(造山坪) 옮겨 산 오리천(五里泉) 아래 5두락지(斗落只) 세금(卜數) 17복 5속인 곳이다.
1. 죽은 제1남 김달원(金達元) 뭇은 군 땅 서종면 작살평(作筮坪) 방자(方字)는 5두락, 세금 10복 2속, 같은 평 초자(草字)는 5두락, 세금 24복, 언내평(堰內坪) 개자(蓋字)는 5두락, 세금 12복 1속, 같은 평 만자(萬字)는 4두락, 세금 14복, 같은 평 개자(蓋字)는 3두락, 세금 8복 4속, 방죽 아래 방자(方字)는 4두락, 세금 9복 1속, 우등평(牛登坪) 재자(在字)는 2두락, 세금 □복 □속, 가정자평(可亭子坪) 열자(烈字)는 6두락, 세금 23복 5속, 석교평(石橋坪) 식자(食字)는 3두락, 세금 14복 6속, 곤이종면(昆二終面) 죽산전평(竹山前坪) 용자(容字)는 3두락, 세금 □복 □속, 같은 평 같은 자(蓋字)는 1두 3승락, 세금 □복 □속, 같은 면 천해평(泉海坪) 고자(羔字)는 6두락, 세금 □복 □속, 서종면 중리평(中里坪) 훼자(毀字)는 4두락, 세금 14복 1속, 장사평(長沙坪) 신자(身字)는 3두락, 세금 □복 □속, 곤이종면 서창포(西倉浦) 앞 평 용자(容字)는 4두락, 세금 □복 □속, 같은 면 생골정(生骨亭) 앞 평 연자(淵字)는 9두락 내 6두락, 세금 15복, 서종면 동쪽 변두리 만자(萬字)는 2두락, 세금 2복 8속, 곤이면(昆二面) 벼를 심는 용두(龍頭) 뒤 평 곤자(崑字)는 4두락, 세금 □복 □속, 같은 면 곡다회(曲多回) 앞 평 단자(短字)는 4두락, 세금 □복 □속, 서종 모정(茅亭) 당산동평(堂山洞坪) 화자(化字) 밭, 생산량 2작병, 6두락, 세금 15복 5속, 염장(鹽場) 당산동(堂山洞) 오자(五字) 밭 7두락, 세금 7복 5속, 모정 당산평(茅亭 堂山坪) 피자(被字) 밭, 생산량 2작병, 3두락, 세금 6복 3속, 검단평(儉丹坪) 화자(化字) 밭 3두락, 세금 4복 5속, 같은 자(蓋字) 밭 4두락, 세금 6복 5속, 비죽평(非竹坪) 여자(女字) 밭 2두락, 세금 5복, 모정 뒤 피자(被字) 밭 5두락, 세금 19복 2속 피자(被字) 집터와 밭 두락, 세금 4복, 집 초가 5간, 행랑 7간이다.
1. 딸 사위 조성규(曹聖逵) 뭇은 군 땅 서종면 대자(大字)는 2두락, 세금 8복 1속, 개

자(蓋字) 는 2두락, 세금 5복, 방자(方字) 는 2두락, 세금 3복 1속, 초자(草字) 는 3두락, 세금 6복, 만자(萬字) 는 4두락, 세금 1복 3속, 오리천평(五里泉坪) 백자(白字) 는 1두 3승락, 세금 4복, 서종면 □자 는 4두락, 세금 □복 □속, 서종 금정자평(金亭子坪) 솔자(率字) 는, 생산량 2작병, 세금 29복 8속, 언내평(堰內坪) 차자(此字) 는 3두락, 세금 5복 8속, 같은 자 는 3두락, 세금 □복 □속, 같은 자 는 3두락, 세금 3복, 촌자(寸字) 발 7두락, 세금 3복, 피자(被字) 집터와 발 2두락, 세금 □복 □속, 초가 5간이다.

1. 죽은 제2남 김시원(金始元) 뒹은 군 땅 서종면 방죽 아래 방자 는 3두락, 세금 □복 □속, 개자 는 5두락, 세금 □복 □속, 같은 자 는 3두락, 세금 9복 5속, 같은 자 는 3두락, 세금 □복 □속, 같은 자 는 3두락, 세금 9복 2속, 차자 는 2두락, 세금 4복 7속, 만자 는 1두락, 세금 □복 □속, 오천리평(五泉里坪) 백자(白字) 는 3두락, 세금 10복 2속, 같은 자 는 4두락, 세금 12복 7속, 덕진평(德津坪) 재자(在字) 는, 생산량 3작병, 4두락, 세금 14복 1속, 금정자평(金亭子坪) 명자(鳴字) 는 6두락, 세금 □복 □속, 중리평(中里坪) 감자(敢字) 는 3두락, 세금 □복 □속, 같은 자 는 1두락, 세금 □복 □속, 곤이중면(昆二終面) 서창포(西倉浦) 허교(許橋) 심자(深字) 는 6두락, 세금 □복 □속, 지남후평(指南後坪) 애자(愛字) 는 5두락, 세금 □복 □속, 곤이중면 생골정(生骨亭) 연자(淵字) 는 9두락 내 3두락, 세금 13복 2속, 같은 면 서창포 앞 평 용자(容字) 는 4두락, 세금 □복 □속, 같은 면 월교평(月橋坪) 영자(映字) 는 3두락 3배미[夜味], 세금 10복 5속, 같은 면 천해평(泉海坪) □자 6두락 내 4두락, 세금 □복 □속, 서시(西始) 시목리평(柿木里坪) 장자(張字) 는 4두 3승락, 세금 13복 4속, 서종 모정 중리평 휘자 발 2두락, 세금 2복 7속, 비죽평(非竹坪) 여자 는 5두락, 세금 11복, 중리평 휘자 발 4두락, 세금 4복 9속, 같은 평 감자(敢字) 발 6두락, 세금 □복 □속, 화자(化字) 발 당산평(堂山坪) 2두락, 세금 4복 5속, 피자 집터와 발 2두락, 세금 □복 □속, 집 초가 7간, 행랑 3간, 피자 집터와 발 2두락, 세금 □복 □속, 초가 4간이다.

1. 제3남 김양원(金陽元) 뒹은 서종면 지남언(指南堰) 내 개자 는 4두락, 세금 14복 4속, 같은 자 는 3두락, 세금 8복 7속, 같은 자 는 1두 5승락, 세금 3복, 방죽 밑 방자 는 5두락, 세금 15복 6속, 같은 자 는 3두락, 세금 10복 1속, 전자평(扇子坪) 초자(草字) 는, 생산량 2작병, 3두락, 세금 14복 3속, 같은 자 는 1두 7승락, 세금 7복 1속, 오리천평 백자(白字) 는 3두락, 세금 10복 7속, 같은 자 는 4두 5승락, 세금 15복, 식자(食字) 는 2두락, 세금 6복 9속, 비죽평 상자(傷字) 는 2두락, 세금 8복 4속, 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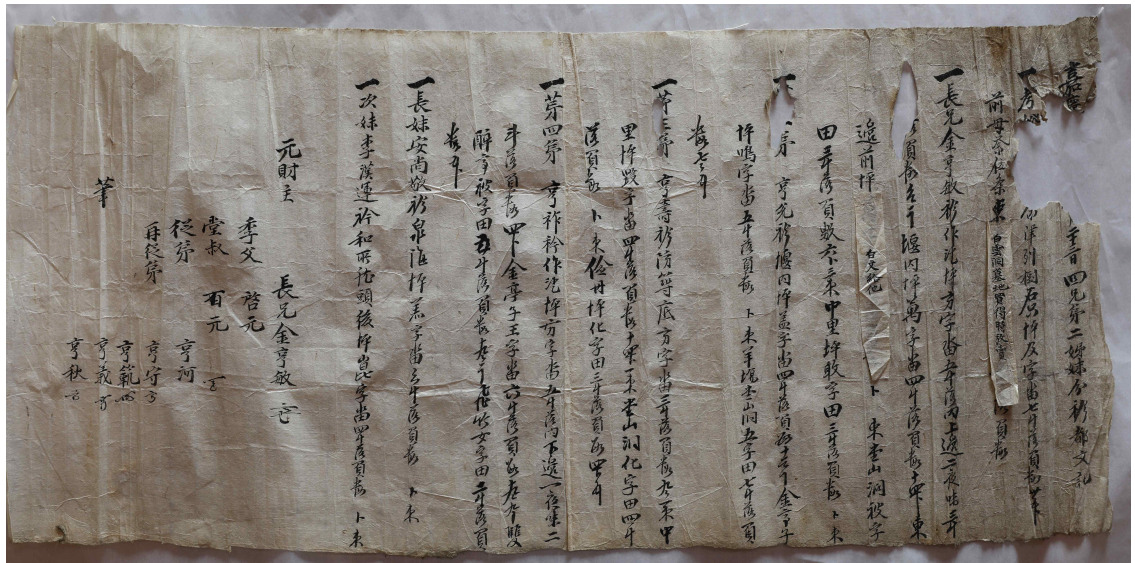
종면(昆一終面) 한조두(汗鳥頭) 벼를 심는 화대평(化大坪) 운자(雲字) 는 4두락, 세금 17복 7속, 곤이시면(昆二始面) 오랑평(鰲郎坪) 명자(名字) 는 8두락, 세금 32복 7속, 구림(鳩林) 장사평(長沙坪) 미자(靡字) 는 4두락, 세금 20복 6속,指南後坪) 애자, 장자(章字) 는, 생산량 2작병, 4두락, 세금 12복 7속, 곤이면 생골정평(生骨亭坪) 징자(澄字) 는 3두락 2배미(夜味), 세금 8복 6속, 서시면 양지촌(陽之村) 앞 평 도자(陶字) 는 3두락 3배미, 세금 12복 7속, 곤이면 죽산평 감자 는 4두락, 세금 9복,指南전평 조자(朝字) 는 3두 5승락, 세금 12복, 서종 비죽평 여자 밭 5두락, 세금 6복, 같은 자 밭 2두락, 세금 4복 5속, 같은 자 밭 4두락, 세금 6복 7속, 쌍취정(雙醉亭) 피자 밭 3두락, 세금 8복 7속, 같은 자 밭 4두락, 세금 9복 4속, 같은 자 밭 3두락, 세금 3복 4속, 휘자 밭 16두락, 세금 10복 5속, 피자 집터와 밭 2두락, 세금 2복 2속, 집 초가 5간, 행랑 4간, 피자 집터와 밭 2두락, 세금 4복 5속, 초가 4간이다.

1. 죽은 제4남 김봉원(金鳳元) 뭍은 나와 아내, 후손이 없이 죽은 본인의 제위조뿐. 군 땅 서종면 모정 방죽 밑 방자 는 4두 5승락, 세금 8복 3속, 동쪽 변두리 앞 평 만자 는 8두락, 세금 13복 5속 곳이다.
1. 제5남 김계원(金啓元) 뭍은 군 땅 서종 모정 앞 평 방자 는, 생산량 2작병, 4두락, 세금 8복 1속, 언(堰) 내 개자 는 3두락, 세금 9복 6속, 장사평 신자(身字) 는 4두락, 세금 6복, 오리천평 식자 는, 생산량 2작병, 9두락, 세금 25복 6속, 같은 평 구자 는 4두락, 세금 15복 6속, 평리 앞 평 봉자(鳳字) 는, 생산량 2작병, 세금 20복 8속, 구자 는 6두락, 세금 20복 7속, 석교평(石橋坪) 정자(貞字) 는 4두락, 세금 13복 4속, 중리평 휘자, 생산량 4작병 는 7두 5두락, 세금 □복 □속, 서시면 성지천(省之川) 후동평(後洞坪) 당자(唐字) 는 5두 5승락, 세금 23복, 곤이종면 화랑(禾郎) 방죽 아래 평 고자(羔字) 는 5두락, 세금 20복 6속,指南전평 문자(問字) 는 3두락 3배미, 세금 7복 1속, 서시면 오산(蜈山) 뒤 평 이자(李字) 는 6두락 11배미, 세금 27복 6속, 곤이면 친해평 강자(羌字) 는 6두락 내 2두락, 세금 □복 □속, 같은 면 생골정전평 용자(容字) 는 4두락, 세금 14복, 중리평 휘자 밭 4두락, 세금 5복 8속, 같은 평 감자 밭 7두락, 세금 9복 5속, 같은 자 밭 2두락, 세금 1복 4속, 같은 자 밭 1두락, 세금 □복 □속, 같은 자 밭 두락, 세금 7복 3속, 재자(才字) 밭 6두락, 세금 11복 5속, 당산동 대자(大字) 밭 1두락, 세금 1복, 피자 집터와 밭 4두락, 세금 4복 1속, 집 초가 5간, 행랑 5간, 피자 집터와 밭 2두락, 세금 1복, 초가 7간이다.

원 재물 주인(元財主) 아버지 김(金;金相海)[착명]

같은 성씨(同生) 동생 김연해(金鍊海)[작명]
 사위 조성규(曹聖逵)[작명]
 셋째 아들 김양원(金陽元)[작명]
 다섯째 아들 김계원(金啓元)[작명]
 장손 김희민(金希敏)[작명]
 필집(筆執) 둘째 아들의 장손 김희옥(金希玉)[작명]
 3촌 조카 김명원(金明元)
 문장(門長) 7촌 숙부 김익광(金益光)[작명]

(3) 가경연간(嘉慶年間) 4남 2녀 분재기(分財記)



[그림 46] 가경연간(嘉慶年間) 4남 2녀 분재기(分財記)

嘉慶□……□二十三日四兄弟二姊妹分_分都文記

一考□……□津列樹 石只坪 及字畚 七斗落 負數卅五卜/ 前母祭位條 東牛登坪 在字畚 二斗落 負數「白雲洞墓地買得時放賣」

一長兄金亨敏_分 作_分坪 方字畚 五斗落內 上邊 二_{夜味}三斗(落) 負數六卜二束 堰內坪 萬字畚 四斗落 負數十四卜_束/ 邊前坪 萬字畚 一斗落 負數 卜 束「白文給他」 堂山洞 被字/田 三斗落 負數六卜三束 中里坪 敢字田 三斗落 負數 卜 束

一(第二)弟 亨兌_分 堰內坪 蓋字畚 四斗落 負數十二卜一束 金亭子/坪 鳴字畚 五斗落 負數 卜 束 羊場 堂山洞 五字田 七斗落 負/數七卜五束

一第三弟 亨壽_分 防築底 方字畚 三斗落 負數九卜一束 中/里坪 毀字畚 四斗落 負數十四卜一束 堂山洞 化字田 四斗/落 負數 卜 束 儉丹坪 化字田 三斗落 負數四卜五束

一第四弟 亨祚_分 作_分坪 方字畚 五斗落內 下邊 一_{夜味}二斗落 負數四卜 金亭子 王字畚 六斗落 負數十九卜九束 雙/醉亭 被字田 五斗落 負數十九卜二束 飛竹 女字田 二斗落 負/數五卜

一長妹安尙敬_分 泉海坪 羔字畚 六斗落 負數 卜 束

一次妹李漢運_分 和所 龍頭後坪 崑字畚 四斗落 負數 卜 束

元財主	長兄金亨敏[着名]
季父	啓元
堂叔	百元[着名]
從弟	亨河
再從弟	亨守[着名]
	亨範[着名]
筆	亨義[着名]
	亨秋[着名]

가경 □……□ 23일 4형제 2자매 분깃도명문(分衿都明文)

1. 고 □……□ 진(津) 열수(列樹) 석지평(石只坪) 급자(及字) 논 7두락, 세금(負數) 35복, 전 모(母) 제위조(祭位條)는 동우등평(東牛登坪) 재자(在字) 논 2두락, 세금 「백운동(白雲洞) 묘지 매득(買得)할 시 방매(放賣) 함」
1. 장형(長兄) 김형민(金亨敏) 묵은 작살평(作煞坪) 방자(方字) 논 5두락 내 위쪽 변두리 2배미[夜味] 3두락, 세금 6복 2속, 언내평(堰內坪) 만자(萬字) 논 4두락, 세금 14복, 동쪽 변두리 앞 평 만자 논 1두(락), 세금 □복 □속 「백문(白文)¹³⁹⁾으로 준 것과 다름.」, 당산동(堂山洞) 피자(被字) 밭 3두락, 세금 6복 3속, 중리평 감자 밭 3두락, 세금 □복 □속.
1. 제(2)제 김형태(金亨兌) 묵은 언내평 개자 논 4두락, 세금 12복 1속, 금정자평(金亭子坪) 명자(鳴字) 논 5두락, 세금 □복 □속, 양장(羊場) 당산동(堂山洞) 오자(五字) 밭 7두락, 세금 7복 5속.
1. 제3제 김형수(金亨壽) 묵은 방죽 밑 방자 논 3두락, 세금 9복 1속, 중리평 훼자(毀字) 논 4두락, 세금 14복 1속, 당산동 화자(化字) 밭 4두락, 세금 □복 □속, 검난평(儉丹坪) 화자 밭 3두락, 세금 4복 5속.
1. 제4제 김형조(金亨祚) 묵은 작흠평 방자 논 5두락 내 아래쪽 변두리 1배미 2두락, 세금 4복, 금정자평 왕자(王字) 논 6두락, 세금 19복 9속, 쌍취정(雙醉亭) 피자(被字) 밭 5두락, 세금 19복 2속, 비죽(飛竹) 여자(女字) 밭 2두락, 세금 5복.
1. 장매(長妹)(사위) 안상경(安尙敬) 묵은 천해평(泉海坪) 고자(羔字) 논 6두락, 세금 □복 □속.

139) 白文:朝鮮時代 官印이 찍히지 않은 官有文書이다. 관인이 없으면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빙성이 없는 편이다. 白文記.

1. 차매(次妹)(사위) 이한운(李漢運) 몫은 화소(和所) 용두후평(龍頭後坪) 곤자(崑字) 논
4두락, 세금 □복 □속.

원 재물 주인 첫째 형 김형민[착명]

막내 삼촌(季父) 김계원(金啓元)

당숙 김백원(金百元)[착명]

종제(從弟) 김형하(金亨河)

재종제(再從弟) 김형수(金亨守)[착명]

김형범(金亨範)[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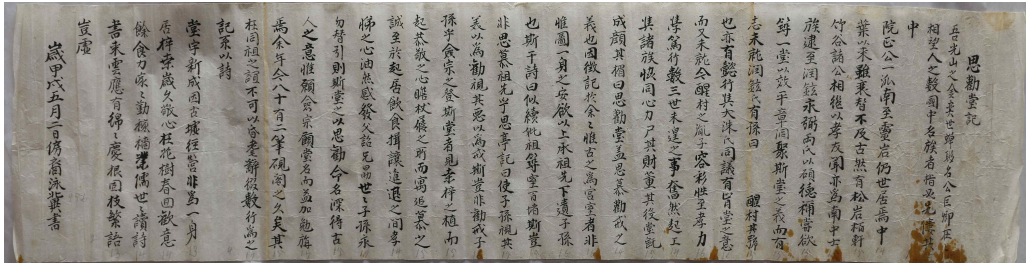
필집(筆執) 김형의(金亨義)[착명]

김형추(金亨秋)[착명]

6. 詩文類

1) 記

(1) 1934년 김영기(金泳冀) 사권당(思勸堂) 기(記)



[그림 47] 1934년 김영기(金泳冀) 사권당(思勸堂) 기(記)

思勸堂記

吾光山之金 奕世蟬聯 名公巨卿 在在相望 人之數國中名族者 指必先僕 其/中/院正公一
 派 南至靈巖 仍世居焉 中/葉以來 雖衰替不及古然 有松巖·栢軒·竹谷諸公相繼 以孝友
 聞亦爲南中士/族 逮至潤鉉·永弼兩氏 以碩德稱 嘗欲/築一堂 以效平章洞聚斯堂之義 而有
 /志未就 潤鉉氏有孫曰醒村其號/也 亦有懿行 與大洙氏 同議有肯堂之意/ 而又未就 今醒
 村之胤子容彩 性至孝力/學篤行 數三世未違之事 奮然起工/ 與諸族協同心力 尸其財董其
 役 堂既/成顏 其楣曰思勸堂 蓋思慕勸戒之/義也 因徵記於余 余惟古之爲宮室者 非/惟圖
 一身之安 欲以上承祖先 下遺子孫/也 斯干詩曰 似續妣祖築室百堵 斯豈/非思慕祖先乎 思
 亭記曰 使子孫視其/美以爲勸 視其惡以爲戒 斯豈非勸戒子/孫乎 僉宗之登斯堂者 見桑梓
 之植而/起恭敬之心 瞻杖屨之所而寓追慕之/誠 至於起居飲食揖讓進退之間 孝/悌之心 油
 然感發 父詔兄勸 世世子孫 永/勿替引 則斯堂之以思勸命名 深得古/人之意 惟願僉宗 顧
 堂名而益加勉旃/焉 余年今八十有二 筆硯閣之久矣 其/在同祖之誼 不可以昏耄辭 綴數行
 爲之/記 系以詩/ 堂宇新成因古墟 經營非爲一身/居 梓桑歲久敬心在 花樹春回歡意/餘 食
 力家家勤稼穡 業儒世世讀詩/書 來雲應有綿綿慶 根固枝繁語/豈虛
 歲甲戌五月二日 傍裔泳冀書

우리 광산김씨(光山金氏)는 여러 대 동안 끊이지 않고 이름난 사람과 높은 관직이

있어 곳곳에 뛰어난 명망이 있다.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름난 집안이라 하면 반드시 먼저 손가락으로 꼽았다. 그 중 원정공(院正公) 일파가 남쪽 영암(靈巖)에 이르러 세거하였다. 중엽(中葉) 이래로 비록 쇠하여 예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송암공(松巖公)¹⁴⁰, 백헌공(栢軒公)¹⁴¹, 죽곡공(竹谷公)¹⁴² 여러 공이 있어 효우로 이어져 내려와 호남의 사족이 되었다. 시대가 바뀌어 김윤현(金潤鉉), 김영필(金永弼) 두 분에 이르러서는 덕이 높은 사람이라 칭송받았다. 일찍이 평장동(平章洞) 취사당(聚斯堂)의 뜻을 본받아 한당을 만들고자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윤현의 손자 성촌(醒村)¹⁴³이라고 말한 이가 있었는데 그의 호이다. 그 또한 의행이 있었다. 김대수(金大洙)와 더불어 의논하여 그 뜻을 이으려 하였으나 또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 성촌의 큰아들인 김용채(金容彩)는 성품이 효에 지극하고 학문에 힘쓰며 행실이 독실하였다. 삼세를 꼭 알리고자 하여 분연(奮然)히 공사를 하였다. 다른 가문과 더불어 협동하여 마음을 다해 그 재무를 주관하고 일을 감독하여 재실(齋室)이 이룩고 완성되자 그 문楣(門楣)를 사권당(思勸堂)이라 하였다. 아마도 사모권계(思慕勸戒)의 뜻이다. 이어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집을 짓는 것은 한몸의 안위만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고 위로는 선조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자손에게 남기기 위함이었다. 사간(斯干)¹⁴⁴시에서 말하였다. 선조를 계승하여 담장이 백도나 되는 집을 지었네. [似續妣祖 築室百堵] 이 것이 어찌 선조를 사모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사정기(思亭記)¹⁴⁵에서 말하였다. 자손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을 보면 더욱 힘쓰게 하고 나쁜 것을 보면 경계하게 하네. [使子孫視其美以爲勸 視其惡以爲戒] 이 것이 어찌 자손을 권계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 종친 가운데 이 재실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은 것을 보고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며¹⁴⁶ 지팡이와 짚신이 머문 곳을 보고 추모하는 정성을 나타낸다. 음식을 읊하고 사양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사이에 이르러 효제의 마음이 저절로 감동하고 분발할 것이다. 부모는 명령하고 형제는 힘써 대대로 자손이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다. 곧 이 재

140) 金禮聖(1697~1777)의 字는 大化이고, 號는 松巖이다.

141) 金箕陽(1756~?)의 字는 彥直이고, 號는 栢軒이다. 贈 通政大夫 兼 經筵參贊官이다.

142) 金在敏(1769~1806)의 字는 乃賢이고, 號는 竹谷이다. 贈 朝奉大夫 童蒙教官이다.

143) 金顯洙(1854~1929)의 字는 德景이고, 號는 醒村이다.

144) 『詩經』 「小雅」 斯干.

145) 『古文眞寶後集』 권10 陳師道の 「思亭記」.

146) 뽕나무와……일으키며:『시경』 「小雅 小弁」에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러러 볼 분으로는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없으며, 의지할 분으로는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 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維桑與梓, 必恭敬止. 靡瞻匪父, 靡依匪母.] ”라는 말이 나온다.

실을 사권(思勸)이라 명명하며 깊은 고인의 뜻을 알 것이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 종친
 은 재실의 이름을 돌아보고 서로 도움을 더하리라. 내 나이가 지금 여든 돌이고 재각
 에 필연한 지 오래되었다. 같은 조상의 후손이니 나이가 많아도 두서너 줄을 위해 말
 을 이을 수 없었다. 시로써 기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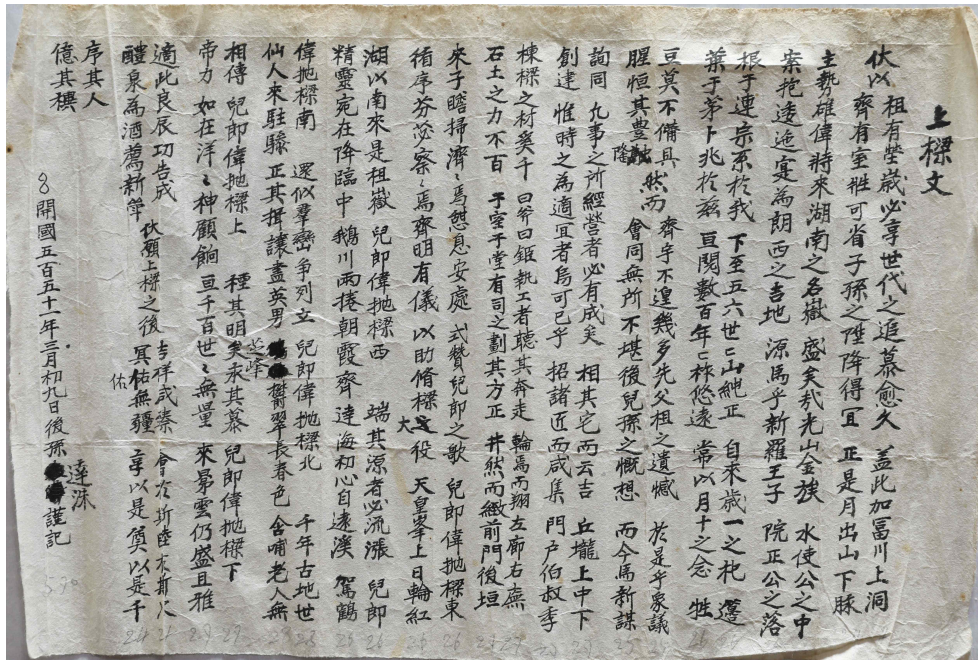
옛 언덕에 새로운 재실을 세웠으니
 운영함은 한 몸의 안위가 아니라네.
 오래된 가래나무와 뽕나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
 봄이 온 꽃나무가 권면의 뜻이 남네.
 집집은 먹기 위해 부지런히 농사를 하고
 대대로 유업으로 『시경』과 『시경』을 읽네.
 후대의 구름에 응당 경사가 이어지고
 뿌리가 곧으니 가지가 많다는 게 어찌 빈말일까.

堂宇新成因古墟
 經營非爲一身居
 梓桑歲久敬心在
 花樹春回歡意餘
 食力家家勤稼穡
 業儒世世讀詩書
 來雲應有綿綿慶
 根固枝繁語豈虛

갑술년(1934) 5월 2일 방계 후손 영기 씀

2) 上樑文

(1) 1943년 김달수(金達洙) 사권당(思勸堂) 상량문(上樑文)



[그림 48] 1943년 김달수(金達洙) 사권당(思勸堂) 상량문(上樑文)

上樑文

伏以祖有塋歲必享世代之追慕愈久 蓋此加富川上洞 正是月出山下脈 主勢雄偉將來湖南之名嶽 案抱逶迤寔爲朗西之吉地 盛矣哉光山金族 源焉乎新羅王子 水使公之中根于連宗系於我 院正公之落葉于茅卜兆於茲 下至五六世世山純正 亘閱數百年年祚悠遠 自來歲一之祀 常以月十之念 籩豆莫不備具 牲腥恒其豐隆 然而齊宇不遑幾多先父祖之遺憾 會同無所不堪後兒孫之慨想 於是乎衆議詢同 而今馬新謀創建 凡事之所經營者必有成矣 惟時之爲適宜者烏可已乎 相其宅而云吉 丘壟上中下 招諸匠而咸集 門戶伯叔季 棟樑之材奚千 石土之力不百 曰斧曰鋸執工者聽其奔走 于室于堂有司之劃其方正 輪焉而翔左廊右廡 井然而綴前門後垣 來子瞻掃濟濟焉憩息安處 循序芬苾察察焉齊明有儀 式贊兒郎之歌 以助脩樑大役 兒郎偉拋樑東 天皇峯上日輪紅 湖以南來是祖嶽 精靈宛在降臨中 兒郎偉拋樑西 鵝川兩捲朝霞齊 端其源者必流漲 達海初心自遠溪 兒郎偉拋樑南 駕鶴仙人來駐驂 還似群巒爭列立 正其揖讓盡英男 兒郎偉拋樑北 芝峯鬱翠長春色 千年古地世相

傳 含哺老人無帝力 兒郎偉拋樑上 如在洋洋神顧餉 禮其明矣永其慕 亘千百世世無量 兒郎
偉拋樑下 來鬘雲仍盛且雅 適此良辰功告成 醴泉爲酒薦新單 伏願上樑之後 吉祥咸臻 冥佑
無疆 會於斯睦於斯 序其人 享以是奠以是千億其祀

開國五百五十一年三月初九日 後孫達洙謹記

상량문

삼가 바라건데 선조가 선영이 있어 해마다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세대의 추모가 오
래고, 삼가 재실이 있어 장차 살피 자손의 승강(陞降)을 마땅히 얻는다. 무릇 가부친
(加富川) 위의 마을이고, 바로 월출산 아래 산맥이다. 주세가 크고 훌륭한 장차 호남의
명산이고 안으로 품고 있으니 낭서(朗西;靈巖)의 길지이다. 성대하다 광산김씨여, 원대
하다 신라왕자여. 수사공(水使公)의 중간 뿌리가 이어져 나와 종가로 잇고 원정공(院正
公)의 낙엽(落葉)이 모정(茅亭)에 자리 잡는다. 아래로 5, 6세에 이르면 세장산(世葬山)
이 순정하고 수백 년 지내도 해의 복이 원대하다. 이로부터 해마다 한 번 제사를 항상
10월 20일로 하고 변두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제사 음식[牲腥]은 항상 풍성하다. 그
러나 먼저 집이 가지런할 겨를이 없어 조상의 섭섭함의 기미가 많고 뒤의 자손이 모일
곳이 없어 강개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이 의논하여 묻고 지금 새롭게 창건하기를 도모
하였다. 이에 일을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오직 때가 적절한 것은 이
미 옳다. 그 집을 만나 길함을 운운하고 모든 장인을 불러 모았다. 언덕에서 동량의 재
목을 나르고 지게로 돌과 흙을 나른다. 도끼와 톱을 잡은 장인은 분주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바름을 도모한다. 좌우 낭청이 높고 상서로우며 전후 문과 담이 반듯하고 면밀
하다. 이에 후손은 우러러보며 비로 쓸며 가지런히 하고 편안히 쉬고 절기를 따라 향
기로움을 살피니 이에 예의를 가지런히 갖춘다. 어기영차[兒郎]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
이 대들보를 닦는 것을 돕는다.

이영차! 들보 동쪽에 던져라
천황봉에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호남으로 오니 조상의 큰 산에
성령이 뚜렷하게 강림 중이구나.

이영차! 들보 서쪽에 던져라
아침 노을이 가지런히 아천에서 두 번 오고
그 근원이 바르니 반드시 물이 불어나고

兒郎偉拋樑東
天皇峯上日輪紅
湖以南來是祖嶽
精靈宛在降臨中
兒郎偉拋樑西
鵝川兩捲朝霞齊
端其源者必流漲

초심은 저절로 먼 시내에서 바다에 도달하네.
 이영차! 들보 남쪽에 던져라
 학을 탄 선인이 와 머무르고
 돌아보니 무리 지은 산봉우리는 다툼듯 벌려 서있고
 읍양을 바르게 하니 영웅이 다하였네.
 이영차! 들보 북쪽에 던져라
 봉우리가 울창하고 푸르러 봄빛이 길고
 천 년된 옛땅을 세상에 서로 전하니
 노인은 임금 없이도 배가 부르네.
 이영차! 들보 위쪽에 던져라
 신의 돌봄과 먹임이 매우 많아
 그 밝음에 제사 지내고 그 추모 영원하고
 천년 백년 대대로 헤아릴 수 없네.
 이영차! 들보 아래에 던져라
 후손들이 거듭 성대하고 또 아름다우니
 마침 좋은 계절을 만나 완공을 고하고
 좋은 물로 술을 만들어 천신단에 올리네.

達海初心自遠溪
 兒郎偉拋樑南
 駕鶴仙人來駐驂
 還似群巒爭列立
 正其揖讓盡英男
 兒郎偉拋樑北
 芝峯鬱翠長春色
 千年古地世相傳
 含哺老人無帝力
 兒郎偉拋樑上
 如在洋洋神顧餉
 禋其明矣永其慕
 亘千百世世無量
 兒郎偉拋樑下
 來曩雲仍盛且雅
 適此良辰功告成
 醴泉爲酒薦新單

삼가 사랑한 후에 길하고 상서로운 게 모두 모이고, 아득한 도움이 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모이고 이로써 화목하며 그 사람을 차례대로 하고 이로써 제사 지내며 그 제사를 천번 억번 지내게 하소서.

개국551년(1943) 3월 초9일 후손 김달수 삼가 기록하다.

[표 2] 靈巖 茅亭 光山金氏 所藏 古文書 目錄

번호	문서명	발급	수취	작성시기	세로	가로
1	1760년 김세보(金世寶) 고신(告身)	兵曹	金世寶	건륭 25년(1760) 11월 일	54.2	64.3
2	1760년 김태성(金泰聖) 고신(告身)	兵曹	金泰聖	건륭 25년(1760) 11월 일	55.0	64.0
3	1773년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英祖	金龜海	건륭 38년(1773) 10월 일	53.2	69.5
4	1774년 김예성(金益聖) 고신(告身)	英祖	金益聖	건륭 39년(1774) 월 일	56.7	79.0
5	1775년 김귀해(金龜海) 고신(告身)	英祖	金龜海	건륭 40년(1775) 8월 일	57.0	81.5
6	1774년 김경(金鏡) 추증교지(追贈教旨)	英祖	金鏡	건륭 39년(1774) 월 일	58.2	88.0
7	1774년 유인신씨(孺人申氏) 추증교지(追贈教旨)	英祖	孺人申氏	건륭 39년(1774) 월 일	58.0	88.0
8	1774년 김기인(金起仁) 추증교지(追贈教旨)	英祖	金起仁	건륭 39년(1774) 월 일	58.0	87.2
9	1774년 유인정씨(孺人鄭氏) 추증교지(追贈教旨)	英祖	孺人鄭氏	건륭 39년(1774) 월 일	58.2	88.0
10	1774년 김후석(金厚碩) 추증교지(追贈教旨)	英祖	金厚碩	건륭 39년(1774) 월 일	58.0	88.0
11	1774년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教旨)	英祖	孺人李氏	건륭 39년(1774) 월 일	58.4	88.2
12	1774년 숙부인박씨(淑夫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教旨)	英祖	淑夫人朴氏	건륭 39년(1774) 월 일	58.2	88.0
13	1903년 김현수(金顯洙) 관고(官誥)	高宗	金顯洙	광무 7년(1903) 12월 18일	39.2	57.2

번호	문서명	발급	수취	작성시기	세로	가로
14	1784년 김시원(金始元) 차첩(差帖)	英祖	金始元	갑진(1784) 4월 일	52.0	59.8
15	1867년 공명첩(空名帖)	-	-	동치 6년(1867) 9월 일	-	-
16	1889년 공명첩(空名帖) 1	-	-	광서 15년(1889) 3월 일	-	-
17	1889년 공명첩(空名帖) 2	-	-	광서 15년(1889) 3월 일	-	-
18	1889년 공명첩(空名帖) 3	-	-	광서 15년(1889) 3월 일	-	-
19	1889년 공명첩(空名帖) 4	-	-	광서 15년(1889) 3월 일	-	-
20	1892년 공명첩(空名帖)	-	-	광서 18년(1892) 6월 일	-	-
21	1864년 최각현(崔克鉉) 등 상서(上書) 1	崔克鉉等 68名	靈巖郡守	갑자(1864) 7월 일	124.3	69.5
22	1864년 최각현(崔克鉉) 등 상서(上書) 2	崔克鉉等 29名	全羅道巡 察使	갑자(1864) 10월 일	133.0	73.2
23	1864년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權克壽等 65名	全羅道巡 察使	갑자(1864) 10월 일	134.1	76.0
24	1866년 권극수(權克壽) 등 상서(上書)	權克壽等 81名	禮曹	병인(1866) 3월 일	125.3	69.6
25	186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監察史) 감결(甘結) 및 1862년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全羅道觀 察使·靈 巖郡守	靈巖郡守· 全羅道觀 察使	임술(1862) 2월 15일· 임술(1862) 4월 초4일	31.8; 25.2	72.5; 77.5
26	1784년 영암군수(靈巖郡守) 원문(完文)	靈巖郡守	金龜海	갑진(1784) 4월 일	47.8	90.2
27	대성학원(大成學院) 표창원문(表彰完文)	京城大成 學院	光山金氏 門中	공부자 단강 24□□년 월 일	30.2	21.3

번호	문서명	발급	수취	작성시기	세로	가로
28	1780년 김달온(金達溫) 준호구(準戶口)	靈巖郡守	金達溫	건륭 45년(1780) 월 일	36.2	42.0
29	1788년 김달원(金達元) 호구단자(戶口單子)	金達元	靈巖郡守	가경 3년(1798) 무오 1월 일	34.3	60.0
30	1788년 김학민(金學敏) 호구단자(戶口單子)	金喜敏	靈巖郡守	가경 3년(1798) 무오 1월 일	41.5	48.3
31	1882년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金顯洙	靈巖郡守	광서 8년(1882) 임오 정월 일	37.5	59.6
32	1885년 김현수(金顯洙) 호구단자(戶口單子)	金顯洙	靈巖郡守	광서 11년(1885) 을유 정월 일	35.0	59.0
33	미상(未詳) 사권(試券)	-	-	-	68.6	133.5
34	1771년 4남 1녀 등 분계기(分財記)	金益聖	金龜海等 5名	건륭 36년(1771) 신묘 1월 초10일	54.7	109.5
35	1802년 5남 1녀 등 분계기(分財記)	金龜海	金達元等 6名	가경 7년(1802) 임술 2월 27일	55.6	81.7
36	가경연간 4남 2녀 분계기(分財記)	金亨敏	金亨敏等 6名	가경 23일	36.5	81.0
37	1934년 김영기(金泳冀) 사권당(思勸堂) 기(記)	金泳冀	-	1934년 5월 2일	26.8	41
38	1943년 김달수(金達洙) 사권당(思勸堂) 상량문(上樑文)	金達洙	-	1943년 3월 9일	32.4	30.8



[그림 51] 世顯門 사진



[그림 52] 思勸堂 사진



[그림 53] 觀察使金公炳喬永世不忘碑 사진

<참고문헌>

1. 원자료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經國大典』,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
 『湖南三綱錄』, 국사편찬위원회(<http://archive.history.go.kr>)
 『靈巖郡地理志』, 국사편찬위원회(<http://archive.history.go.kr>)
 『論語』
 『孟子』
 『童蒙先習』
 『書經』
 『周禮』

2. 단행본

光山金氏史發刊委員會 편『光山金氏史』, 光山金氏大宗會, 1991.
 光山金氏水使公派譜編纂委員會, 『光山金氏水使公派族譜 上』, 1999.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의 관인』, 200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1995.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신서원, 2003.
 박병호, 『한국법제사』, 민속원, 2012.
 박영한·오상학, 『조선시대 간척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1979.
 영암군지편찬위원회, 『靈巖郡誌 上, 下』, 1998.
 영암군향토지편찬위원회, 『靈巖郡郷土誌』, 1972.
 영암문화원, 『영암의 땅 이름』, 2006.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사전』,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89.

3. 논문

- 김경숙,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연명정소 활동과 공론 형성」, 『사학연구』 109, 2013.
- 김경옥, 「朝鮮後期 靈岩地方 士族活動과 書院建立 :全州崔氏家門의 成長과 鹿洞書院 建立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기동, 「18세기 호남지역 광산김시 종족 활동의 변화-시조사당 건립과 현조선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성진, 「조선시대 공문서 위조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나선하, 「17세기 영암지방의 향안·향전과 향촌지배질서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2013.
- 남권희·옥영정, 「고문서로 살펴본 조선시대의 기록문화(1) -남재문고 소장 고문서자료의 유형과 특징」, 『사회과학』 15, 2003.
- 류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문숙자, 「조선시대 분재문기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영남학』 18, 2010.
- 박서진, 『조선후기 유기아 수양법의 변화와 수양의 양상』,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박선미, 「조선후기 영암 서호 밀양김씨 문중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 주, 「조선시대 효자에 대한 정표정책」, 『한국사상사학』 10, 1998.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손계영, 「수집 고문서를 통한 생활사 연구의 가능성 탐색 -경주 영월신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영남학』 12, 2007.
- 심경호, 「고문서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역주를 통한 의미의 확장」, 『장서각』 36, 2016.
- 윤인수, 「조선시대 감결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영식, 「조선전기 효자·열녀와 그 유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해준,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배경과 성격」, 『역사학연구』 2, 1988.
- _____, 「地方史 研究에 있어서 古文書資料의 活用」, 『한국학』 15, 1992.
- _____,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연구」, 『동양학』 23, 1993.
- 장현희,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경기지역 양반 가문 연구 -용인 해주오씨 추탄공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표인주, 「영암군 구림리 죽음의례와 의례조직의 지속과 변화 -학암과 모정마을의 사례-」, 『남도문화연구』 7, 2001.

3. 온라인 자료

광산김씨문중(<http://www.kwangsankim.co.kr/>)

영암신문(<http://www.yasinmoon.com>)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한국학호남진흥원DB(<http://db.hiks.or.kr/>)